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64호 | January 2016

사라사테 :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음악 전곡

텐와 양(바이올린), 나바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에르네스트 마르티네스 이스케르도(지휘)

중국의 신예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막힘없이 연주한 사라사테 음악

중국 바이올리니스트 텐와 양(우리식으로는 '양천와')은 4세에 바이올린을 배웠고 13세에 첫 음반을 냈으며 14세인 2001년에는 유럽 무대에 데뷔했다. 2014년에는 독일 음반 비평가상과 ECHO 클라식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간 그녀가 녹음한 사라사테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음반을 전부 모은 이 세트는 텐와 양이 얼마나 대단한 기교와 개성의 소유자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세트 전체의 첫 곡인 '치고이너바이젠'부터 맨 마지막 곡 '장난꾸러기 요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교적 난점도 구애치 않으면서 활달하고 농밀한 연주를 들려준다.

8.504046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번스타인 :
교향곡 3번 '카디시',
미사 브레비스, 종달새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외, 마린 앨솝(지휘)
작곡가 번스타인의 종교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세 편

8.559742

바흐 :
프랑스 모음곡 3번, 5번 외
이딜 비레트(피아노)
73세 노대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바흐 독주곡 녹음

8.571310

브리지, 스콧 :
피아노 오중주
라파엘 테로니(피아노),
빙엄 현악 사중주단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작곡가의 서로 다른 음악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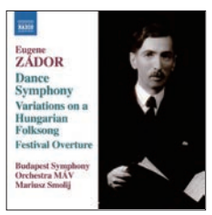
8.571355

레녹스 버클리 :
피아노 독주와 이중주를 위한 작품
라파엘 테로니, 노먼 비디(피아노)
영국적이면서도 프랑스적인 독특한 음악 세계의 소유자

8.571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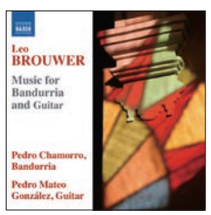
그레인저 외 :
색소폰 작품집
조이스 그릭스, 예세 도흐날,
애덤 호손, 드류 화이팅, 벤 케니스, 필 피어릭 외(색소폰)
기욤 드 마쇼에서 노르웨이 민요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색소폰 편곡

8.573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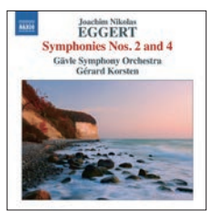
자도르 :
춤 교향곡, 헝가리 민요에 의한 변주곡 외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리우스 슈몰리(지휘)
음악으로 접하는 한 작곡가의 다양한 인생역정

8.573274



브로우어 :
반두리아와 기타를 위한 음악
페드로 차모로(반두리아), 페드로 마테오 곤잘레스(기타)
수백 년에 걸친 반두리아 전통을 이어가는 브로우어의 작품들

8.573363



에게르트 :
교향곡 2번, 4번
게블레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라르 코르스텐(지휘)
스웨덴의 고전주의 작곡가 에게르트의 교향곡

8.573378

모슈코프스키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나즈린 라시도바(바이올린),
대니얼 그림우드(피아노)
'쇼팽의 후계자'가 쓴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이중주 작품들

8.573410

마이어 :
레퀴엠
손힐, 루크가버(소프라노) 외,
지몬 마이어 합창단과 앙상블,
프란츠 하우크(지휘)
비로소 완전히 실체를 드러낸 마이어의 대작 레퀴엠

8.573419–20

2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피닉스뮤직프라자(종로)

아울로스 뉴스지 64호
8 809090 673444

*Key Issue

바이얼린 벨기에 악파 최후의 대표 바이얼리니스트 롤라 보베스코 LP

Arthaus 시벨리우스 7개의 교향곡 전집 DVD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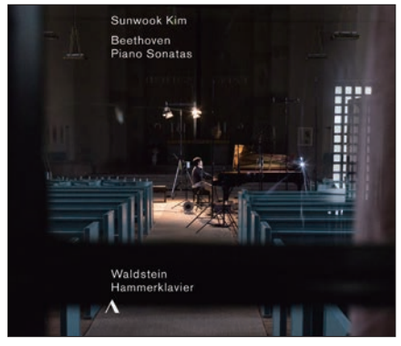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선보인 베토벤의 세계 CD

핫이슈!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선보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
29번 '함머클라비어' 수입 발매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독일의 고품격 클래식 전문레이블 Accentus를 통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2015년 6월 베를린의 유명한 레코딩 로케이션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녹음으로서, 여러 해에 걸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에 심도 깊은 실험과 진지한 모험을 마친 김선욱은 비로소 레코딩을 통해 베토벤을 찬미하기 위한 자신만의 철옹성에 첫 벽돌을 얹었다. 이 음반을 통해 김선욱의 냉철한 이성과 독보적인 심미안은 아직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에 발견해야 할 많은 미지의 음향과 방대한 의미의 광맥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해 주는 음반이다.

[보조자료]

김선욱이 선보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앨범의 첫 곡인 '발트슈타인'에 대한 첫인상부터 말하자면, 발터 기제킹의 콜럼비아 레코딩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욕망의 질주'가 21세기에 새롭게 재탄생한 듯하다. 첫 주제의 연타음이나 트릴부터 베토벤이 의도한 새로운 사운드의 세계를 인식한 듯 장식적인 효과를 배재한 채 스토리 텔링을 위한 주요질료로 받아들여 부분마다 전혀 다른 의미와 구조적인 효과를 생성해낸다. 이러한 주제에 종지부를 찍는 옥타브가 종결된 후 짜릿하게 울려퍼지는 예수 그리수도 교회의 특징적인 잔향, 그리고 2악장의 멜랑콜릭하다기보다 불안한 느낌을 자아내는 첫 주제에 묻어나는 스타인웨이 피아노 모델 D의 묵직하면서도 몹시 정련된 터치의 사운드, 3악장 도입부와 연결구의 신비로운 페달링 또한 대단히 독특하고 개성적이어서 마치 이 작품을 처음 듣는 듯한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모자람이 없다. 김선욱은 활화산처럼 솟구치기보다는 소나타의 구조와 전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음표 및 악상기호가 지시하는 자율적인 음향의 내면에 귀를 기울인다. 디테일의 완벽한 정돈과 이에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음표들의 논리적인 전개, 피아니시모와 포르티시모 사이의 그 광활한 음량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소나타 고유의 내적논리를 적확하게 발견하여 제시와 변형, 조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꿈틀대게끔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특히 3악장에서 첫 주제 제시에 모든 힘을 싣지 않고 전개부와 발전부와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힘은 안배, 점점 확장해 나아가는 구조적인 크레센도를 위해 주제선율마다 각기 다른 힘을 불어넣는 한편, 새로운 경과구나 장식음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으며 연주자 자신만의 새로운 동력원을 찾아낸다. 마치 32번 소나타의 아리에타 악장에 버금가듯, 김선욱은 마지막 피날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마법적인 흐름을 생성해내며 결국 그 힘을 응축하여 피날레에서 남김없이 은백색을 발산하며 완전연소해버린다.



ACC 303551 **[CD]**

29번 소나타 '함머클라비어'는 김선욱이 첫 앨범에 수록할 만한 야심찬 작품이자 연주로서 지난 서울 LG 아트센터에서의 연주회에서 보여주었던 그 커다란 감동을 리마인드시켜준다. 완벽한 양손 옥타브의 화성과 저음부의 배음, 오른손의 육중한 무게감을 실은 날렵한 스타카토와 화음의 도약을 보여주는 첫 악장 Allegro와 붓점의 디테일한 뉘앙스와 글리산도의 신비스러운 사운드가 대조를 이루며 무곡적인 느낌보다는 잘 구성된 유리인형(안에 각기 다른 색의 액체가 든) 시소의 그로테스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Scherzo는 오히려 음반쪽이 실연에서보다 더욱 냉정하고 절제되어 있어 큰 인상을 심어준다. 서늘한 분위기로 시작되는 장대한 드라마인 3악장에서 김선욱은 셋잇단음 옥타브와 16분음표에 제각기 다른 무게의 터치로 상대적인 느낌의 대조를 연출하는 한편, 장조와 단조, 멜로디와 대위법의 느낌을 오가는 멜로디 라인에 단선율적이라기보다는 복선율적인 깊이감과 상징을 담으려는 듯 초감각적이면서 극도로 투명한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특히 espressivo와 sempre legato(혹은 sempre cresc-dimin-cresc-molto espressivo) 패시지의 의미를 극적인 반전보다는 흐름의 새로운 시작으로 읽어내어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Adagio Sostenuto만의 심오한 매혹의 순간을 새롭게 그려낸다. 음울했던 톤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 밝아지고, 다시 어두운 공간으로 일관하다가 순수한 노래를 부르며 짧은 섬광과도 같은 수줍은 엑스타시를 터뜨린 뒤, 다시 여명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사운드 그 자체의 색상적 드라마도 김선욱만의 탁월한 개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3악장이 왜 아름다운가에 대한 정확한 자기 확신과 자기 논리를 김선욱은 이미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장면이다. 마지막 4악장 푸가의 장대함과 단호함은 기존의 비르투오소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사뭇 다르기에 더욱 눈여겨볼 만하다. 열광적인 힘보다 대위법적인 구축력과 논리적인 호소력이 얼마나 큰 감동과 다채로운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서, 특히 왼손 옥타브의 상승과 오른손 옥타브의 하강에 이어지는 트레몰로의 흐드러지는 댓구, 그리고 이어지는 재기발랄한 성부진행과 진폭이 큰 스케일의 수축, 팽창을 통한 음악적인 묘미는 베토벤이 이 작품을 통해 제창하고자 한 전혀 새로운 음향세계를 적나라하게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피날레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뒤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버린 듯한 김선욱의 냉철한 이성과 독보적인 심미안은 아직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에 발견해야 할 많은 미지의 음향과 방대한 의미의 광맥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글: 박제성(음악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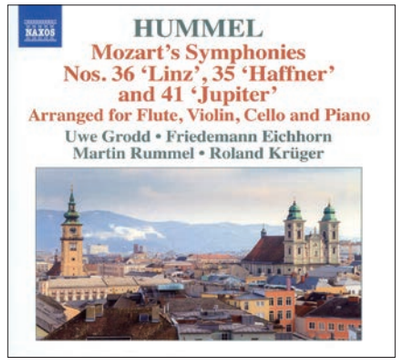
[프로필]

현재 런던에 사는 김선욱이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된 것은, 2006년 세계적 권위의 "리즈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이다. 당시 18살의 나이로 40년 만의 최연소 우승이자 아시아인으로서는 대회 최초의 우승이었다. 결선에서 마크 엘더 경이 지휘하는 할레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브람스 협주곡 1번은 언론으로부터 만장일치의 대호평을 받았다. 이후 그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하나로 경력을 쌓아 왔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디너, 하딩), 암스테르담 콘서트허바우 오케스트라(정명훈),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야노프스키), 함부르크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오라모, 만츠, 소키에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아쉬케나지, 발추하, 가드너), 런던 필하모닉(시나이스키),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정명훈), NHK 심포니(슈테펜스), 할레 오케스트라(엘더) 등과 협연을 했고, 2014년 여름에는 영국 본머스 교향악단과 "BBC 프롬"에 첫 데뷔를 했다. 세계적 명성의 프랑스 "피아노 4스타"에 고정 출연하여 파리 플레이엘홀과 필하모니에서 연주하고 있는 김선욱은, 런던 위그모어홀, 런던 인터내셔널 피아노 시리즈(퀸 엘리자베스홀), 스톡홀름 콘서트홀, 부에노스아이레스 꼴론 극장, 프랑스 라로크 단테롱 인터내셔널 피아노 페스티벌, 도쿄 키오이홀, 오사카 심포니홀, 서울 예술의 전당, 브뤼셀 클라라 페스티벌, 독일 본 베토벤하우스,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페스티벌 등에서의 연주와 더불어 서울 LG아트홀에서의 베토벤 피아노 전곡 연주로 일련의 성공을 거두었다.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선욱은, 3살 때 피아노를 배워 10살에 첫 리사이트을 가졌고, 2년 후에는 첫 협연을 가졌다. 2008년 2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공부하여 지휘 석사 학위를 받았다. 리즈콩쿨 이외의 국제 우승은, 2004년 독일 "에틀링겐 콩쿨" 1위, 2005년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콩쿨" 1위를 하였다. 2013년에는 본 베토벤하우스의 새로운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베토벤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자료들과 컬렉션을 모두 접할 수 있는 첫 연주자로 선발되었다.

Naxos

www.naxos.com



8.572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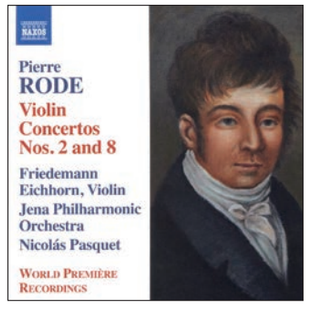
훔멜:

모차르트 교향곡 36번 '린츠', 35번 '하프너', 41번 '주피터'

그로트(플루트), 아이히호른(바이올린), 룸멜(첼로), 크뤼거(피아노)

훔멜이 실내악곡으로 편곡한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 걸작들

요한 네포묵 훔멜은 모차르트가 생전에 가르친 몇 안 되는 제자 가운데 가장 유능한 작곡가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 그가 1823~24년에 걸쳐 실내악용으로 편곡한 모차르트의 교향곡들은 훔멜이 자기 스승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는 당대의 취향에 맞게 초기 낭만주의적인 색채를 더하기는 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는 변경을 가하지 않았으며, 관현악적인 색채를 최대한 유지함과 동시에 피아노에 화려한 기교를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주피터'의 마지막 악장 등 여러 대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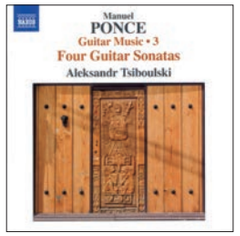
8.573054

로드: 바이올린 협주곡 2번 & 8번, 변주곡

프리데만 아이히호른(바이올린), 예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니코라 파스케(지휘)

단아한 고전미와 화려함이 결합된 피에르 로드의 바이올린 협주곡

피에르 로드는 비오티의 제자이자 명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떨쳐 베토벤의 마지막 바이올린 소나타(10번)를 초연하기도 했다. 그 스스로도 바이올린 협주곡을 열세 곡 작곡했으며, 이 가운데 '2번'은 서정적인 시칠리아노 악장과 앞뒤의 기교적인 악장이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8번'에서는 호흡이 긴 유려한 선율과 극적인 장식음이 돋보인다. 두 곡 모두 아이히호른의 카덴차를 사용했다. 파이시엘로의 '내 마음엔 느껴지지 않네'에 의한 변주곡과 '서주 및 티롤 지방 곡조에 의한 변주곡'은 작곡가 특유의 고전미를 잘 살린 작품들이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284

폰세: 기타 음악 3집(기타 소나타집)

알렉산드르 치불스키(기타)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 폰세의 기타 소나타 네 곡

마누엘 폰세는 1923년에 전설적인 기타 연주자인 세고비아의 연주를 들은 뒤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로 이 연주자와 우정을 쌓는 동시에 많은 기타곡을 작곡했다. 두 사람의 협력이 맺은 첫 결실은 '멕시카나'라는 부제를 지닌 명랑하고도 달콤한 '소나타 1번'이다. 페르난도 소르에 대한 오마주로 작곡한 '고전 소나타'는 제목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지녔으며, '소나타 3번'은 쇼팽의 영향을 보여준다. 한편 '낭만 소나타'는 슈베르트에 대한 오마주로, 실제로 슈베르트가 기타 곡을 썼다면 이랬을까 싶을 만큼 내향적이고 감미로운 사색의 느낌을 전해준다.

8.573317

아렌스키: 피아노 오중주, 현악 사중주 2번, 피아노 삼중주 1번

스펙트럼 콘서츠 베를린

독일 정상급의 실내악단이 연주하는 아렌스키의 실내악 걸작들

안톤 스테파노비치 아렌스키(1861~1906)은 음악사적으로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의 가교 역할을 한 작곡가로 인식되지만, 러시아 실내악을 풍요롭게 해준 인물로도 기억할 만하다. '피아노 오중주 라장조'는 브람스와 멘델스존의 구성미에 러시아 특유의 서정을 더한 작품이며, 차이콥스키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작곡된 '현악 사중주 2번'은 전곡에 걸쳐 통절한 비감이 넘친다. 작곡가의 친구이자 당대 러시아 제일의 첼리스트였던 카를 다비도프에게 헌정된 '피아노 삼중주 1번'은 깊은 감성과 화려한 기교가 잘 결합된 수작이다.

8.573341

시벨리우스: 극부수음악 '백조 아가씨', '도마뱀' 외

리호 에클룬드(내레이션), 투르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레이프 세게르스탐(지휘)

극음악에 대한 시벨리우스의 재능을 일깨워주는 작품들

극작가 스트린드베리는 시벨리우스가 '펠레아스와 멜리장드'의 부수음악으로 거둔 성공을 보고 그야말로 자신의 희곡 '백조 아가씨'에 음악을 붙일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선악의 대립을 계모와 백조 아가씨의 관계로 형상화한 이 상징주의적 희곡을 위해 시벨리우스가 쓴 열네 곡의 부수음악은 희곡과 마찬가지로 호평을 받았다. 미카엘 리베크의 희곡을 위해 쓴 부수음악 '도마뱀'은 백일몽 같은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일종의 멜로드라마인 '외로운 스키 자국'과 '백작부인의 초상'은 극악에 대한 작곡가의 재능을 새삼 일깨워주는 소품들이다.

8.573364

20세기 하프시코드 음악 – 풀랑크, 프랑세, 마르티누, 뒤레

크리스토퍼 D. 루이스(하프시코드)

크리스토퍼 루이스의 연주로 만나는 20세기 하프시코드 음악

프랑시스 풀랑크, 장 프랑세, 보후슬라프 마르티누, 루이 뒤레의 공통점은? 물론 20세기 초의 파리에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맥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하프시코드 음악을 현대에 되살려내고자 노력했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웨일스 출신으로 현대 하프시코드 음악 발굴 및 연주에 열성적인 크리스토퍼 루이스는 여기서 1930년대 플레옐 사의 하프시코드로 연주했다. 20세기 초의 위대한 하프시코드 연주자로 현대 하프시코드 음악 부흥에 큰 공헌을 한 반다 란도프스카가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악기이다.

8.573400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21번 '발트슈타인', 32번

보리스 길트부르그(피아노)

퀸 엘리자베트 콩쿠르 우승자가 연주하는 베토벤 소나타

2013년 퀸 엘리자베트 콩쿠르 우승자인 보리스 길트부르그는 이미 '사육제'를 비롯한 슈만의 피아노곡 녹음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여기 실린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각각 베토벤 창작 시기의 초기와 중기, 후기를 대표하는 걸작들로 모두 다장조/단조 조성을 취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길트부르그는 어느 곡에서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왼손 터치를 최대한 선명하게 부각하며, '비창' 1악장처럼 그저 내달리기 쉬운 악장에서도 서정성을 고스란히 살려내면서 담백하고 깔끔한 연주를 들려준다.

8.573489

브람스: 첼로 소나타와 가곡

가브리엘 슈바베(첼로), 니콜러스 리머(피아노)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두 곡과 새로 편곡된 가곡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두 곡은 이 장르의 수많은 걸작들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피아니스트와 첼리스트 모두에게 만만찮은 도전거리이다. 에마누엘 포이어만 그랑프리 및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 우승자인 슈바베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상을 수상한 리머는 이 까다로운 작품들에 과감히 뛰어들어 치밀하고도 과장 없는 연주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이들이 '5월의 밤', '소식', '여름날 저녁', '나이팅게일', '낙담' 등 브람스의 많은 가곡 가운데 특히 서정적인 여섯 곡을 골라 직접 편곡해 연주한 것은 달리는 접할 수 없는 보물들이다.

8.573495

비아나 다 모타: 교향곡 '조국에' 외

로열 리버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알바로 카수토(지휘)

조국 포르투갈에 바치는 음악적 찬가

포르투갈 작곡가 주제 비아나 다 모타(1868~1948)는 생전에 자신의 조국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뛰어난 작곡가였다. 그의 유일한 교향곡 '조국에'는 포르투갈에 바치는 일종의 찬가로서 포르투갈 전래의 민속적 요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이녜스 데 카스트로'는 극적인 삶을 살다 살해된 14세기의 동명 귀부인을 다룬 교향시이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자국의 음악 유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휘자 알바로 카수토는 마지막 곡 '비토'(안달루시아 지방의 경쾌한 춤곡)의 오케스트레이션을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내지 해설도 직접 썼다.

8.559784

코리: 현악 사중주 3번,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외

모멘타 사중주단, 맥밀런 & 고슬링(피아노), 매콤버(바이올린), 로슨펠드 & 칸(플루트)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는 엘리노어 코어의 개성적인 작품 세계

1943년생인 미국 작곡가 엘리노어 코리는 대단히 폭넓은 음악세계를 지닌 인물이다. 플루트 독주곡인 '결혼 축가'와 피아노곡 '축전'은 해당 악기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에 주목하는 반면 플루트와 기타 및 타악기를 위한 '환상곡'은 한층 가볍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띤다.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Things are'는 지극히 엄격한 음렬음악 작곡가였던 밀턴 배빗을 추모하기 위해 작곡되었다.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은 선법과 조성, 무조가 뒤섞인 흥미로운 작품이며 '현악 사중주 3번'은 내향적인 서정성이 돋보이는 곡이다. 수록곡 모두 세계 최초 녹음.

8.559791

솔: 바이올린 협주곡, 크리스마스 교향곡 외

제임스 버스웰(바이올린), 우크라이나 국립 교향악단, 테오도레 쿠차르(지휘)

이 시대에 작곡된 기독교적 영성의 음악

1954년생인 미국 작곡가 월터 솔은 기독교적 영성을 음악에 불어넣고자 노력하는 작곡가이며, 이는 기독교적 영생을 노래한 '삶에서 더 큰 삶으로'나 내적 평정의 교란과 회복을 다룬 '변용', 예수 탄생과 관련한 네 가지 장면을 그려낸 '크리스마스 교향곡'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보에와 관현악을 위한 '키예프 2014'는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시절의 압제에서 벗어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그린 랩소디이며, '바이올린 협주곡'은 신비주의적인 성향의 1악장과 한층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2악장이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8.501111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로열 리버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바실리 페트렌코(지휘)

신세대 러시아 지휘자의 참신한 감각이 돋보이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집

바실리 페트렌코와 로열 리버풀 필하모니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사이클이 드디어 한 세트로 묶여 나왔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에 걸쳐 로열 리버풀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페트렌코는 2008년부터 5년에 걸쳐 이 프로젝트에 매달려 왔다. 그는 이전 러시아 선배 지휘자들의 이른바 '때려 부수는'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도 정밀하며 균형감이 돋보이는 해석으로 새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녹음을 내놓을 때마다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이 전곡 세트를 들어보면 그의 해석이 얼마나 치밀하고 일관성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8.571359

모런: 영국 및 아일랜드 민요 편곡집

톰슨(테너), 판스워스(바리톤), 탤보트(피아노), 웨이브리지 남성 합창단 단원들

평생에 걸친 영국 민요에의 헌신

20세기 초에 활동한 영국 작곡가 어니스트 존 모런은 음악원 학생 시절에 본 윌리엄스의 '노포크 랩소디'를 듣고 큰 감명을 받은 뒤로 직접 영국과 아일랜드 각지의 민요를 수집한 뒤 편곡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1924년의 '노포크 지방의 여섯 개의 민요'부터 작곡가가 사망한 해인 1950년의 '케리 주의 노래들'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 테너 에이드리언 톰슨과 바리톤 마커스 판스워스는 모런이 영국 민요에 평생 품고 있던 지극한 애정에 깊이 공감하면서 노래하며, 반주자 존 탤보트 역시 정성스런 반주로 이들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8.559745

수자: 관악 밴드를 위한 음악 15집

네덜란드 왕립 해군 군악대, 키스 브라이언(지휘)

행진곡이 전부가 아니다 – 수자의 다양한 작품 세계

군악대장이자 작곡가로서 생전에 140곡의 행진곡을 남겨 '행진곡의 왕'으로 불리는 존 필립 수자의 취주악 모음집 15집. 이번에는 '대헌장', '다뉴브 강을 건너' 등의 행진곡뿐만 아니라 '구세주' 등 오페레타의 발췌와 쇼팽의 '녹턴 11번' 편곡 등도 수록해 수자의 작품 세계를 더 폭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에 창단 70주년을 맞이한 네덜란드 왕립 해군 군악대는 취주악 전문 지휘자이자 수자 스페셜리스티인 키스 브라이언의 지휘 아래 말쑥한 연주를 들려준다. 쇼팽 편곡 등 일부 곡은 **세계 최초 녹음.**

8.559773

존 케이지: 료안지, 플루트 이중주를 위한 세 개의 소품 외

카트린 첸츠, 우베 그로트(플루트), 루도비치 프로호트, 카라 야코비두(피아노)

50년의 간극만큼이나 서로 다른 케이지의 플루트 작품들

존 케이지의 플루트 작품 시리즈 중 첫 번째. '플루트 이중주를 위한 세 개의 소품'은 작곡가가 반음계적인 작법을 탐구하던 시기의 산물이며, 나머지 곡들은 이보다 대략 50년 뒤에 작곡되었다. '돌'은 다분히 점묘적인 악상 속에서 신랄한 내향성을 보여주며, 일본 교토의 사찰에서 이름을 딴 '료안지'는 목탁이 간간이 울리는 가운데 테이프에 미리 녹음된 플루트와 실제 플루트의 이중주로 연주된다. '두 사람을 위한 음악'은 의도적으로 임의성이 강하게 개입되도록 짜인 곡으로, 카트린 첸츠가 직접 편곡한 버전으로는 **세계 최초 녹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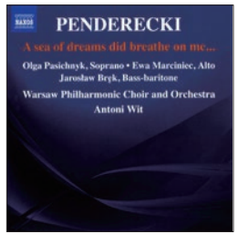
8.572457

에게르트: 교향곡 1번, 3번 외

게블레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라르 코르스텐(지휘)

스웨덴의 고전주의 작곡가 에게르트의 교향곡과 극부수음악

요아힘 니콜라우스 에게르트는 독일 북부 태생이지만 어려서 스웨덴으로 이주했으며, 지휘자로서 베토벤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의 초기 음악은 베토벤 이전 빈 고전주의 전통에 충실하며, 그의 '교향곡 1번'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스웨덴 왕 에릭 14세와 스투레 가문의 대립을 다룬 극부수음악 '스반테 스투레'는 한층 극적이며 낭만주의를 예견케 하는 대담한 화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교향곡 3번'은 빛과 어둠이 변화무쌍하게 교차하며 장대한 푸가로 마무리되는 특이한 작품이다. '교향곡 1번'과 '스반테 스투레'는 **세계 최초 녹음.**



8.573062

펜데레츠키: 꿈의 바다가 내게 입김을 뿜었네

파시흐니크(소프라노), 마르치니에츠(알토), 브렝크(베이스-바리톤), 비트(지휘)

현대음악의 '구루'가 선사하는 음악적 힐링의 체험

펜데레츠키가 2010년에 쓴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바리톤, 혼성 합창 및 관현악을 위한 성찰과 회고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꿈의 바다가 내게 입김을 뿜었네'는 전체 3부로 나뉘어 있으며 전곡 연주에 거의 한 시간이 걸리는 대작이다. 다소 격렬한 3부의 일부 대목을 제외하면 다분히 몽환적이며 때론 애상적이거나 종교적인 분위기를 띠는 악상은 부제가 암시하듯 지친 현대인의 감성에 음악적 힐링의 체험을 선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8.573256

그라치아니: 아담의 오라토리오, 탕아의 오라토리오 외

콘소르티움 카리시미, 개릭 몽토(지휘)

우아하고 격조 높은 그라치아니의 종교 음악 작품집

반종교개혁이 끝날 무렵인 17세기 중반 가톨릭교회의 일과 및 주간 전례에는 소규모 모테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로마 예수회 성당의 악장으로 오랫동안 봉직했던 보니파치오 그라치아니는 이 장르의 대가였다. 사제이자 작곡가로서 교황에게 직접 작곡을 명받을 정도로 명성을 떨쳤으며, 그의 작품은 유럽 전역에 걸쳐 큰 인기를 누렸다. 여기 실린 두 오라토리오와 '이것은 무엇이뇨'를 비롯한 다섯 개의 모테트가 보여주는 우아하고도 격조 높은 악상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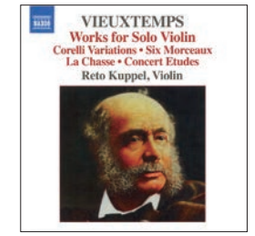
8.573324

비발디: '성난 바다의 혼란 속에서' 외

클레르 드 세비녜(소프라노), 마리아 소울리스(메조), 아라디아 앙상블, 케빈 말론(지휘)

오페라만큼이나 극적인 비발디의 모테트와 시편 작품들

비발디의 작품 세계에서 종교음악은 협주곡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발디의 종교음악 시리즈 4집에 해당하는 이번 음반은 모테트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올 제'(113편), '주님을 찬양하라'(135편), '나는 기뻤노라'(122편) 등 시편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미사 중에 불릴 목적으로 작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오페라를 연상케 하는 강한 극적 성향을 보여준다. 폭넓은 독창 음역과 화려한 멜리스마가 돋보이는 모테트 '성난 바다의 혼란 속에서'가 대표적인 예이며, 다른 곡들도 비발디의 생생한 상상력과 탁월한 극적 감각을 보여준다.



8.573339

비외탕: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

레토 쿠펠(바이올린)

19세기 프랑스-벨기에 바이올린 악파 최고봉의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들

앙리 비외탕은 신동 바이올리니스트였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프랑스-벨기에 바이올린 악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부분적으로 파가니니의 영향을 받은 그의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들은 기민한 활놀림과 지극히 순수한 음색, 노래하는 감각 모두를 요구한다. 1997년부터 16년간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악장으로 활동한 레토 쿠펠은 이 음반에 수록된 '36개의 무반주 바이올린 에튀드' 발췌 및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여섯 개의 소품', '사냥', '여섯 개의 연주회용 에튀드' 어느 곡에서도 작곡가의 까다로운 요구를 모자람 없이 소화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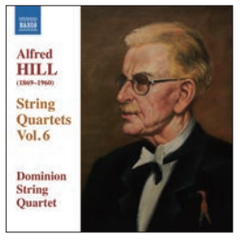
8.573404

J. 비에냐프스키: 바이올린 소나타 외

리브 미그달(바이올린), 마리안 미그달(피아노)

뒤늦게 다시 빛을 본 요제프 비에냐프스키의 작품들

요제프 비에냐프스키 형제가 합작해 쓴 '소나타 형식의 알레그로'와 '그랜드 듀오 폴로네즈'의 화려한 바이올린 파트는 형의 의중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나중에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는 우아하면서도 치밀한 짜임새를 지니고 있다. 2015년 봄에 타계한 마리안 미그달은 자신의 마지막 녹음인 이 음반에서 딸 리브와 함께 정성스럽고도 명징한 연주를 들려준다.



8.573416

힐: 현악 사중주 15~17번

도미니언 현악 사중주단

호주 작곡가 알프레드 힐의 다채로운 마지막 사중주들

지금까지 성공리에 진행된 힐 현악 사중주 시리즈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순서인 이 음반에는 슈베르트적인 소박함과 깊은 감성을 훌륭하게 조화시킨 '15번', 아일랜드 민속 요소가 풍부한 '16번'('켈트'),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인용으로 끝나는 신랄하고도 수수께끼 같은 마지막 사중주 '17번'이 수록되어 있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511

시벨리우스: 발레 '스카라무슈'

투르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레이프 세게르스탐(지휘)

시벨리우스가 극음악 분야에서 거둔 최고의 성과 중 하나

시벨리우스가 포울 크누드센의 비극적인 판토마임인 '스카라무슈'에 붙일 음악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1912년의 일이었다. 오페라 한 곡을 제외하면 이 작품은 시벨리우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끊이지 않게 음악을 붙인 유일한 무대 음악이며, 시벨리우스의 원숙한 기량이 최고로 발휘된 작품 중 하나로서 산뜻하고 꾸밈없는 악상이 돋보인다.

8.504046
사라사테: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음악 전곡
텐와 양(바이올린), 나바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에르네스트 마르티네스 이스케르도(지휘)

중국의 신예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막힘없이 연주한 사라사테 음악
중국 바이올리니스트 텐와 양(우리식으로는 '양천와')은 4세에 바이올린을 배웠고 13세에 첫 음반을 냈으며 14세인 2001년에는 유럽 무대에 데뷔했다. 2014년에는 독일 음반 비평가상과 ECHO 클라식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간 그녀가 녹음한 사라사테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음반을 전부 모은 이 세트는 텐와 양이 얼마나 대단한 기교와 개성의 소유자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세트 전체의 첫 곡인 '치고이너바이젠'부터 맨 마지막 곡 '장난꾸러기 요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교적 난점도 구애치 않으면서 활달하고 농밀한 연주를 들려준다.

8.559742
번스타인 : 교향곡 3번 '카디시', 미사 브레비스, 종달새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외, 마린 앨솝(지휘)

작곡가 번스타인의 종교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세 편
'종달새'는 번스타인이 원래 장 아누이의 동명 희곡(잔 다르크를 다루었다)을 릴리언 헬먼이 각색한 버전에 붙이는 부수음악으로서 작곡한 것으로, 여덟 악장으로 되어 있으며 레퀴엠 미사 가사를 쓴 악장과 프랑스어로 된 민속풍 악장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헬먼의 가사를 사이사이에 삽입해 확장한 버전으로 수록했다. '미사 브레비스'는 '종달새'의 악상 일부를 미사곡으로 개작한 작품이다. '카디시'라는 제목이 붙은 '교향곡 3번'은 1977년의 개정판이 아닌 1963년의 오리지널 버전(여성 내레이터가 포함된 점이 다르다)으로 실려 있다.

8573506
알리 아랑고: 기타 독주곡집
알리 아랑고(기타)

기타 연주계의 떠오르는 샛별 알리 아랑고의 기타 독주집
1982년에 쿠바에서 태어난 알리 아랑고는 그동안 많은 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2014년 알함브라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이 음반의 프로그램은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인물들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으며, 특히 아랑고는 자신의 동포이자 스승이었던 레오 브로우어 및 호아킨 클레르치의 작품을 선곡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경의를 보내고 있다. 또한 '제물'(2011)등의 자작곡은 아랑고가 '연주자이자 작곡가'라는 기타 음악 특유의 전통을 얼마나 잘 계승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8573521
슈미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귀신 붙은 대저택
버팔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조안 팔레타(지휘)

프랑스 후기낭만주의의 대가 플로랑 슈미트의 대작 관현악곡들
플로랑 슈미트는 보통 '살로메의 비극'을 쓴 작곡가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대작 관현악곡을 상당수 작곡했다. 그의 음악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풍의 두터운 화성에 프랑스 특유의 관능적인 감각을 더한 인상을 주는 것들이 많으며,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의한 두 모음곡 형태의 여섯 개의 교향악적 에피소드'라는 긴 부제가 달린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에드거 포의 시 '귀신 붙은 대저택'에 영감을 받은 동명의 교향악적 에튀드는 한층 프랑스적이며 섬세하고도 나른한 느낌의 선율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8.571310
바흐: 프랑스 모음곡 3번, 5번 외
이딜 비레트(피아노)

73세 노대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바흐 독주곡 녹음
터키가 배출한 최고의 피아니스트 이딜 비레트의 독주곡 에디션 9집. 어렸을 때 알프레드 코르토와 빌헬름 켐프를 사사한 바 있는 비레트의 연주에는 근래의 피아니스트들에게서 느끼기 힘든 고풍스러운 고상함이 있다. 비레트는 네 살 때 바흐의 음악을 음반으로 처음 접했고, 이후 바흐의 음악은 그녀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바흐의 세계로 처음 데려가준 피아노 스승인 미타트 펜멘에게 바치는 이 음반에서 자신의 스승과 바흐 모두에게 지극한 애정과 존경심을 담아 투명하고 꾸밈없는 연주를 들려준다.

8.571355
브리지/ 스콧: 피아노 오중주
라파엘 테로니(피아노), 빙엄 현악 사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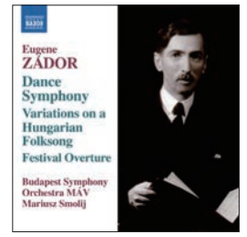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작곡가의 서로 다른 음악 세계
완벽하게 동년배(1879년생)인 두 작곡가의 피아노 오중주가 한데 묶였다. 스탠포드의 제자이자 브리튼의 스승이었던 프랭크 브리지는 초기에 브람스와 후기낭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피아노 오중주' 역시 그런 경향을 보여준다. 열정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이 작품은 피아니스트에게 까다로운 기교를 요구하지만 다른 파트 역시 충실하게 짜여 있다. 시릴 스콧의 음악은 드뷔시에게서 '귀를 취하게' 한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의 '피아노 오중주 1번'은 후기낭만주의와 인상주의의 영향을 같이 보여주며, 매우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8.571369
레녹스 버클리: 피아노 독주와 이중주를 위한 작품
라파엘 테로니, 노먼 비디(피아노)

영국적이면서도 프랑스적인 독특한 음악 세계의 소유자
레녹스 버클리는 벤저민 브리튼의 친구였으며 역시 작곡가인 마이클 버클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의 프랑스적인 우아함과 명쾌함, 뛰어난 형식적 감각을 지닌다고 평가되며 이는 여기 실린 작품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아노는 버클리가 잘 다루는 악기였으며, 이 음반에는 '여섯 개의 전주곡'이나 '소나타'처럼 프랑스 인상주의를 연상케 하는 경묘함과 세련된 감흥을 보여주는 곡과 '네 손을 위한 변주곡'이나 '네 손을 위한 소나티나'처럼 여기에 자신만의 감각을 더해 누구와도 다른 개성을 구축한 작품이 함께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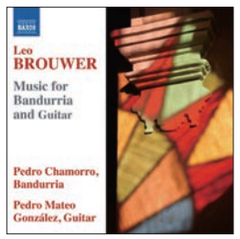
8.573228
그레인저 외: 색소폰 작품집
조이스 그릭스, 예세 도흐날, 애덤 호손, 드류 화이팅, 벤 케니스, 필 피어릭 외(색소폰)

기욤 드 마쇼에서 노르웨이 민요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색소폰 편곡
퍼시 그레인저는 음악상의 새로운 경향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인물이기도 했다. 특히 그는 당시만 하더라도 정규 클래식 악기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던 색소폰을 '최상의 목관악기이자 가장 목소리를 닮은 악기'로 평가하면서 많은 작품과 편곡을 남겼다. 기욤 드 마쇼에서 바흐를 거쳐 노르웨이 민요에 이르는 그레인저의 편곡 작업은 그가 얼마나 다양한 음악적 관심사를 지녔는가를 잘 보여준다. 첫 수록곡인 그레인저의 '확고부동한 도'를 제외한 전곡은 **세계 최초 녹음.**



8.573274
자도르: 춤 교향곡, 헝가리 민요에 의한 변주곡 외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리우스 슈몰리(지휘)

음악으로 접하는 한 작곡가의 다양한 인생역정
예뇌 자도르는 버르토크의 친구였으며 일찍부터 빈의 음악계에서 이름을 떨쳤다. 유대계였던 그는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는 '유진'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할리우드에서 미클로스 로사의 음악을 관현악으로 편곡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 초기작인 '헝가리 민요에 의한 변주곡'(1919)은 민속적인 주제를 슈트라우스 식으로 화려하고 재치 있게 풀어낸 곡이다. 작곡가의 세 번째 교향곡으로 빈에서 작곡된 '춤 교향곡'(1936)은 빈 왈츠의 향취가 물씬한 반면, 1963년 작인 '축전 서곡'은 옛날 할리우드 사극 음악 풍의 당당하고 화려한 작품이다.



8.573363
브로우어: 반두리아와 기타를 위한 음악
페드로 차모로(반두리아), 페드로 마테오 곤잘레스(기타)

수백 년에 걸친 반두리아 전통을 이어가는 브로우어의 작품들
쿠바 출신의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인 레오 브로우어의 폭넓은 작품 세계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기타 음악이지만,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음악적 전통에 따라 반두리아를 위한 음악도 몇 곡 썼다. 16세기부터 전해져 온 일종의 류트로 12개의 현을 지닌 이 악기는 생김새나 음향 면에서나 만돌린과 비슷하다. 기교적인 면에서나 감정적인 면에서나 대단히 폭넓은 작품들이며, '반두리아와 기타를 위한 소품들' 등 일부 곡은 세계 최초 녹음이다. 그 중 하나인 '반두리아를 위한 소나타'는 바로 이 녹음에 참여한 페드로 차모로를 위해 작곡되었다.

8.573378
에게르트: 교향곡 2번, 4번
게블레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라르 코르스텐(지휘)

스웨덴의 고전주의 작곡가 에게르트의 교향곡
요아힘 니콜라우스 에게르트는 독일 태생이지만 어려서 스웨덴으로 이주했으며, 지휘자로서 베토벤의 음악을 적극 소개하기도 했다. 그의 음악은 대체로 베토벤 이전 빈 고전주의 전통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향곡 2번' 역시 어법은 모차르트에 가깝지만 감성은 베토벤에 가까우며 느린 악장의 서정성은 슈베르트도 연상케 한다. '교향곡 4번' 1악장의 어두운 분위기는 이 곡이 정치적으로 억압된 시기에 작곡되었음을 상기시키며, 2악장을 대체할 목적으로 쓴 '라르고'는 에게르트의 작품 중 가장 진보적인 축에 속한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410
모슈코프스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나즈린 라시도바(바이올린), 대니얼 그림우드(피아노)
'쇼팽의 후계자'가 쓴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이중주 작품들
풍부하고 감미로운 서정미가 물씬한 그의 음악이 거둔 성공은 에밀 소레나 야샤 하이페츠, 파블로 데 사라사테 등 여러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그의 작품을 편곡했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아제르바이잔 태생의 영국 바이올리니스트 나즈린 라시도바는 이들 작품 모두를 빼어난 솜씨로 연주했으며,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모음곡'에서는 혼자 두 파트 모두 녹음하는 묘기를 부리기도 했다.

8.573470
타네예프: 현악 사중주 6번, 9번
카르페 디엠 현악 사중주단
대가다운 구성과 인상적인 선율미를 지닌 타네예프의 사중주
타네예프는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도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사중주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러시아 실내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1883년 작품인 '현악 사중주 9번'은 인상적인 선율미와 고전적인 구성을 지닌 반면, 타네예프의 사중주 가운데 마지막 완성작인 '6번'(1905)은 명랑하고 유희적인 '지그' 악장이 있기는 하지만 한층 금욕적으로 절제된 분위기이며 구성 면에서 더 대가다운 작품이다.

8.573419–20 [2CDs]
마이어: 레퀴엠
손힐, 루크가버(소프라노) 외, 지몬 마이어 합창단과 앙상블, 프란츠 하우크(지휘)
비로소 완전히 실체를 드러낸 마이어의 대작 레퀴엠
요한 지몬 마이어는 만하임 악파와 빈 고전주의의 영향에 이탈리아 음악의 성악과 극적 구조를 결합해 뛰어난 오페라를 다수 작곡했다. 연주 시간이 거의 두 시간에 달하며 독창자만 아홉 명을 요구하는 대작 '레퀴엠' 역시 이런 면모를 잘 보여준다. 최근의 연구는 이 곡이 실제 출판되었던 것보다 훨씬 규모와 편성이 큰 작품이었음을 밝혀냈으며, 이 음반은 원래의 의도에 최대한 충실하게 재구성한 버전으로는 세계 최초 녹음이다. 일부 대목이 작곡가의 제자인 도니체티가 쓴 것이라는 사실도 흥미를 끄는 요소이다.

8.573502
사키야 아키히로: 피아노 독주곡집
사키야 아키히로(피아노)
브람스에서 드뷔시, 스페인 음악까지 가로지르는 젊은 일본 피아니스트
브람스의 엄격한 구성과 드뷔시의 몽환적인 풍경은 서로 너무나 다른 세계이기에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있다면 믿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4년에 열린 제56회 하엔 국제 피아노에서 독주 부문과 스페인 음악 부문에서 우승했으며 청중의 인기상까지 수상한 젊은 일본인 피아니스트인 사키야 하키히로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브람스의 독주곡 가운데 가장 대작인 '피아노 소나타 3번'과 드뷔시의 걸작 '판화'는 물론 그라나도스 등 스페인 작곡가들의 음악까지 투명한 터치로 멋지게 연주했다.

8.573563
R.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 마냐르: 만가
릴 국립 오케스트라, 장-클로드 카자드쉬(지휘)
40년에 걸쳐 구축한 신뢰관계의 결정체
2016년은 장-클로드 카자드쉬가 지휘자 경력을 시작한 지 50년째가 되는 해이자 그가 릴 국립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상임지휘자가 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들이 이 뜻 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해 녹음한 것은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였다. 어느 악단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한 신뢰관계는 이 대작 교향시를 막힘없이 유려하게 연주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은 마냐르가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쓴 '만가'를 추가로 수록함으로써 자신들을 있게 한 프랑스 음악 전통에도 경의를 표하고 있다.

8.573475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스크랴빈/ 라흐마니노프: 금관 칠중주를 위한 음악
셉투라 칠중주단
젊은 재간둥이 금관 연주자들이 직접 편곡해 연주한 러시아 음악들
런던의 이름난 금관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셉투라'는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더 정확히는 단원인 사이먼 콕스와 매튜 나이트가 편곡해 연주했다. 19세기 독일(1집)에서 시작해 17~18세기 프랑스/영국(2집)을 거친 이들의 행보는 이제 3집인 이 음반에서 20세기 러시아에 이르렀다.

8.573453
기념비(Monuments): 관악 교향악을 위한 음악
앨리스 해커(소프라노),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관악 교향악단, 마틴 H. 세걸키(지휘)
현악 없이 만들어낸 음향의 소우주
로이 매그너슨은 자신의 음악이 화초처럼 단순하고 아름답길 바라면서 '테라코다 화분 속 실내용 화초'를 썼다. 시드니 호킨슨의 '두 개의 짧은 칸타타'는 제수알도가 쓴 16세기 마드리갈의 단편에 기초한 곡으로 무겁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닌다. 제이스 존 오그렌의 '저녁 음악'은 릴케가 쓴 시의 영어 번역본에 곡을 붙인 것으로 사실상의 가곡이다. 마르티네스 할레호의 '교향곡 1번'은 인도 수학자 카프레카르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지었다.

8.573459
치마로사: '가짜 귀족' 서곡, '파리의 화가' 서곡 외
파르두비체 체코 체임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미하엘 할라스(지휘)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였던 치마로사의 화려한 서곡 모음
도메니코 치마로사는 생전에 파이지엘로와 더불어 당대 최고의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로 유럽 전역에 명성을 떨쳤다. 오페라는 수십 편을 썼던 반면 기악곡은 무척 적지만 그가 기악에 재능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교묘하게 치장한 선율과 화려한 관현악법은 그의 오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으며, 이는 '사랑의 의분', '프라스카타의 가짜 귀부인', '세 연인', '여자들의 경쟁' 등 그의 오페라 서곡만을 모아놓은 이 음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할라스는 같은 성격의 앞선 세 음반과 똑같이 여기서도 말쑥하고 잘 다듬어진 연주를 들려준다.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8.111402
매코맥 에디션 11집: 브람스, 모차르트, 라흐마니노프 등
존 매코맥(테너), 크라이슬러(바이올린) 외
시대를 주름잡은 명 테너 존 매코맥의 유산
1884년에 태어나 1945년에 사망한 아일랜드 테너 존 매코맥은 생전에 쉽고 유창한 발성과 풍부한 음색, 우아한 프레이징, 정확하고도 명료한 발음으로 대단한 명성을 누렸다. 여기 실린 모든 음원은 매코맥의 목소리가 쇠퇴하기 전 전성기의 것으로, EMI의 전신인 그라모폰 사와 RCA의 전신 빅터 토킹 머신 사 음원을 합한 것이다. 브람스와 라흐마니노프에서 어빙 벌린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는 그가 얼마나 폭넓은 역량의 소유자였는가를 잘 보여주며, 프리츠 크라이슬러를 비롯한 뛰어난 음악가들의 참여는 이 음반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8.226119
덴마크의 낭만 피아노 삼중주곡
덴마크 피아노 삼중주단
덴마크 음악의 대부 닐스 가데를 비롯한 덴마크 낭만음악의 거장들
덴마크는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독일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덴마크의 음악은 잘 알려지지 못했는데,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덴마크 낭만음악을 보여준 인물은 닐스 가데였다. 가데는 그만의 아름다운 선율과 감성적인 화음과 리듬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덴마크 음악의 대부로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음반에 가데와 함께 수록된 랑에-뮐러도 그 중 한 사람으로, 그는 보다 감각적이고 극적인 작품들을 작곡했다. 마지막 트랙의 루에드 랑고르의 '산의 꽃'은 전환기의 복합적인 감성으로 그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들려준다.

paladino music Paladino

www.paladino.at

PMR 0069

림스키-코르사코프: 셰헤라자데, 아렌스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1번 등

프락세디스 훅-뤼티(하프), 프락세디스 쥬느비에브 훅(피아노)

하프와 피아노의 하모니로 만들어낸 러시안 로맨틱의 아름다움

'프락세디스'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모녀지간의 하프와 피아노 연주자가 러시아 낭만음악들을 연주했다. 차이코프스키의 '합살의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피아노곡은 하프의 영롱한 음색이 더해졌으며, 그의 라이벌이었던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대작 '셰헤라자데'는 새롭고 사랑스러운 음악으로 재탄생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와 함께 러시아 5인조의 일원이었던 큐이의 '세 개의 소곡'은 낭만 소곡의 애틋한 감성을 오롯이 담고 있으며, 아렌스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1번'을 하프와 피아노로 연주하여 음악적 표현력을 한 차원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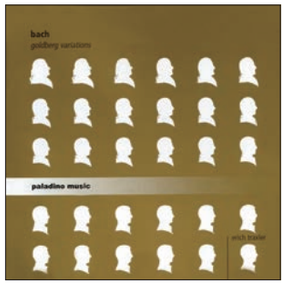
PMR 0047

슈베르트: 피아노 삼중주 2번,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보리스 쿠차르스키(바이올린), 토머스 캐럴(첼로), 엘리자베스 홉킨스(피아노)

지극히 높은 음악성을 보여주는 슈베르트의 두 걸작 실내악곡

슈베르트는 1812년에 단악장의 피아노 삼중주를 쓴 뒤 십 수 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이 장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826~27년 사이에 나온 일련의 피아노 삼중주 중 '2번'은 마지막이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이보다 3년 전에 작곡된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원래 아르페지오네라는 첼로족 악기를 위한 작품이지만 오늘날에는 첼로로 연주된다. 슈베르트의 실내악 가운데서도 특히 풍부한 선율미와 깊은 서정성이 담긴 걸작이며, 1악장 첫머리가 특히 유명하지만 거의 종교적인 경건함을 보여주는 2악장의 아름다움도 이에 못지않다.



PMR 0073

바흐: 골트베르크 변주곡

에리히 트락슬러(하프시코드)

바흐의 걸작 변주곡에 대한 경외심 넘치는 탐구

'골트베르크 변주곡'은 바흐의 최고 걸작 중 하나이자 그의 클라비어 작품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곡이다. 학구적인 탐구와 즐거운 유희가 결합된 이 곡은 지금까지 수많은 피아니스트 및 하프시코드 주자들에게 도전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프시코드 겸 오르간 주자인 에리히 트락슬러는 17~18세기의 건반 작품을 전문적으로 연주하고 있으며, 바로크 시대의 연주 기법 및 표현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해 자신의 해석에 반영하고 있다. 그는 전반적으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편이지만 아무것도 소홀히 다루지 않으며 명료하고 우아한 연주를 들려준다.

Arco Diva

www.arcodiva.cz

UP 0179-2 131

유럽의 심장으로부터

보니 푸에리 체코 소년 합창단, 파르두비체 체코 챔버 필하모닉, 마렉 슈틸레츠(지휘)

합창으로 들려주는 다양한 클래식 음악의 세계

'착한 소년들'이라는 뜻의 '보니 푸에리'는 1252년 성 비투스 성당에서 시작된 소년합창 전통을 상징한다. '보니 푸에리' 체코 소년 합창단은 이 오랜 전통의 계승을 표방하는 합창단으로, 세계 정상의 소년 합창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음반은 클래식의 주요 합창곡과 체코 작곡가의 합창곡을 고루 수록했다. 헨델 〈할렐루야〉와 카치니(바빌로프) 〈아베 마리아〉, 프랑크 〈파니스 안젤리쿠스〉를 비롯하여, 바흐 〈G선상의 아리아〉와 스메타나 〈몰다우〉를 합창으로 편곡하여 들려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제가와 할리우드 메들리도 흥미롭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141

스트라빈스키/ 무소르크스키 : 페트루슈카, 전람회의 그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날렵하게 연주된 '페트루슈카'와 가필이 인상적인 효과를 내는 '전람회의 그림'

무소르크스키는 2014년 11월, 스트라빈스키는 2015년 4월 실황.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는 1947년 버전이다. 한편 '전람회의 그림'은 라벨의 관현악 버전에 기초하고 있지만 얀손스는 요소요소에 상당한 가필을 더해 연주 효과를 한층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얀손스는 두 곡 모두에서 모든 성부의 밸런스를 교묘하게 조절하면서 세부적인 꾸밈새와 색채감을 살려내기 위해 비상한 주의를 기울이며,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어느 대목에서나 날렵하고도 치밀하며 정성스러운 연주를 들려준다.

900510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도일(소프라노), 자조(카운터테너), 데이비슬림(테너),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 딕스트라(지휘)

정갈한 관현악과 경건하고도 화려한 성악이 만난 이 시대의 '메시아'

2014년 11월 뮌헨 헤르쿨레스잘 실황. 모든 성악진(소프라노, 카운터테너, 테너, 베이스 바리톤)은 여러 대목에서 화려한 장식음을 붙이면서 연극적인 느낌을 잘 살려내며, 합창단은 30여 명에 이르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깔끔하고 정확하게 노래한다.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브로크(B'Rock) 벨기에 바로크 오케스트라 겐트 역시 명확하고 투명한 연주를 들려준다. 절제미와 극적 역동성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은 또 하나의 뛰어난 '메시아' 음반.

900511

페르트: 테 데움, 베를린 미사 외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 뮌헨 방송 오케스트라, 페터 딕스트라(지휘)

21세기에 중세적 영성의 세계를 돌아보는 아르보 페르트의 음악

'테 데움'은 세 개의 합창단과 프리페어드 피아노, 현악 오케스트라, 테이프라는 현대적인 편성의 대작이지만 페르트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중세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작품이다. '순례자의 노래'는 남성 합창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2001년 버전으로 연주되며, 불길하고 엄숙한 느낌이 지배한다. 이 음반에서 '베를린 미사' 중 '글로리아'와 '크레도' 사이에 삽입된 아카펠라 칸타타 '승리 이후'는 성 암브로시우스가 '테 데움'을 지은 경위를 설명하는 이탈리아어 텍스트에 가사를 붙인 것으로, 표제곡이자 첫 곡인 '테 데움'과 텍스트상으로 연결된다.

900512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하르니슈(소프라노), 폰둥(메조), 슈미트(테너), 이믈러(베이스), 한프트(오르간), 딕스트라(지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하는 연주

2012년 12월 11~12일 실황. 낭랑한 목소리와 명확한 억양으로 복음사가 역을 빼어나게 소화해낸 테너 막시밀리안 슈미트를 비롯해 전 성악진이 고른 완성도로 노래하며,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은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감격에 이르기까지 곡이 요구하는 모든 감정 표현을 훌륭하게 소화해낸다. 독일 고음악계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명가인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유연하고 따뜻한 연주와 10년째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의 예술감독으로 재직중인 딕스트라의 뛰어난 통솔력 역시 이 연주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900129 **[3 FOR 2.5]**

차이코프스키: 오페라 〈스페이드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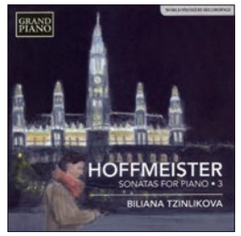
미샤 디디크, 타티아나 세리안,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모든 순간에서 극적 에너지를 아낌없이 분출하는 최고의 앙상블

차이코프스키는 교향곡과 발레곡으로 친숙하지만 이들보다 많은 수의 오페라를 작곡했다. 〈스페이드 여왕〉은 3막 7장의 대규모 작품으로, 원작은 푸슈킨의 단편소설이지만 극적 효과를 위해 상당히 수정되었다. 교향곡 5번과 6번의 완숙한 후기에 작곡되었는데,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 많이 등장하는 비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이 오페라를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 극적인 가수의 목소리가 더해져 러시아 낭만음악의 절정을 들려준다. 최고의 파트너쉽을 보여주고 있는 얀손스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모든 순간에서 극적 에너지를 아낌없이 분출한다.

Grand Piano

www.grandpiano.org



GP668 **[세계 최초 녹음]**
호프마이스터: 소나타 D장조, 소나타 C장조, 소나타 B♭장조
빌리아나 친리코바(피아노)

간결하면서도 극적인 특징으로 고전음악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소나타들

호프마이스터는 오늘날 비올라 협주곡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당대에는 오페라와 여러 실내악곡, 건반악기 작품들로 유명했다. 이 음반은 그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녹음한 새 개의 음반 중 마지막 앨범이다. 〈소나타 D장조〉는 모차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소나타 B♭장조〉는 호프마이스터의 소나타 중에서 느린 템포로 시작하는 유일한 곡으로, 빠른 중간 악장을 지나 마지막에 민속 풍의 느린 주제로 변주곡을 만든 실험적인 작품이다. 이들보다 앞선 〈소나타 C장조〉는 간결하면서도 극적인 특징으로 고전음악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GP682 **[세계 최초 녹음]**
오스왈드: 피아노 작품집
세르지오 몬테이로(피아노)

프랑스 인상주의의 풍미와 낭만적 서정이 가득한 기품 있는 피아노 음악

헨리크 오스왈드는 19~20세기의 브라질 작곡가로, 빌라-로부스는 그를 "브라질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작곡가"로 칭송했다. 그의 음악은 프랑스 음악의 영향을 받았으며, 브라질의 토속적인 감수성이 녹아있다. 이 음반은 오스왈드의 젊은 시절의 작품부터 유작까지 그의 음악세계를 망라하고 있다. 브라질의 피아니스트 몬테이로는 제2회 아르헤리치 콩쿠르 우승자이며, 오클라호마 시립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견 연주자이다. 그는 오스왈드의 작품에서 프랑스 인상주의의 풍미와 낭만적 서정을 훌륭히 살려내고 있으며, 기품 있는 음악을 들려준다.

GP683 **[세계 최초 녹음]**
고다르: 피아노 소나타 2번, 환상 소나타
엘리안 레이스(피아노)

19세기 말 진정한 프랑스의 음악을 추구했던 젊은 거장의 선구적인 작품들

벵자맹 고다르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4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당시 바그너 열풍에 반대하여 프랑스만의 음악을 추구하던 그룹의 선두주자였지만,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작품과 노력을 잊히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드뷔시를 예견할 정도로 선구적이었으며, 동시대 음악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 음반은 〈피아노 소나타 2번〉과 〈환상 소나타〉 등 주요 대작이 수록되어있다. 특히 〈환상 소나타〉는 네 악장의 서로 다른 정령을 표현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GP656 [**전곡 세계 최초 녹음**]
크라머: 앵글로-칼레도니아풍의 변주곡, 피아노 소나타
마테오 나폴리(피아노)

베토벤의 동시대 피아니스트가 쓴 숨은 걸작들

요한 밥티스트 크라머(1771~1858)는 독일의 이름난 음악가 집안 출신으로 당대 유럽에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였으며 베토벤의 지인이기도 했다. 105곡에 이르는 소나타는 그의 작품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대다수가 상당한 수준의 기교를 요구한다. 이탈리아 출신 뉴질랜드 피아니스트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고전주의 시대 피아노 작품을 열성적으로 발굴□ 연주하고 있는 마테오 나폴리는 명확하고 간결하면서도 생생한 연주로 곡마다 분위기를 뚜렷이 차별화해 연주하고 있다.

GP661
헨젤트: 피아노 작품
세르조 갈로(피아노)

뛰어난 감수성이 돋보이는 헨젤트의 피아노 소품들

아돌프 폰 헨젤트(1814~1889)는 쇼팽, 슈만, 리스트 등과 같은 시기에 활약한 스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훔멜의 제자이기도 한 그는 특유의 화려한 기교로 명성을 떨쳤지만 곧 무대에서 은퇴해 작곡과 교육에 전념했다. 대작이라 할 만한 작품은 많지 않지만 모두가 풍부한 감수성을 보여주며, 여기 실린 작품들도 예외가 아니다. 리스트 등 낭만주의 중기의 피아노곡을 전문으로 하는 세르조 갈로는 모든 곡에서 일관되게 매끄럽고 세심한 연주를 들려준다. 베버의 '무도에의 권유' 편곡 등 일부 곡은 **세계 최초 녹음.**

GP685
시마노프스카: 피아노 독주를 위한 춤곡 전곡
알렉산드르 코스트리차(피아노)

생전에 유럽을 주름잡은 여성 피아니스트의 춤곡 모음집

폴란드 출신 여성 피아니스트 마리아 시마노프스카(1789~1831)는 생전에 유럽에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였다. 괴테는 시를 써서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고, 케루비니는 자신의 작품을 헌정했다. 이외에도 베토벤, 필드, 토마셰크 등 많은 작곡가-피아니스트가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다. 이 음반에는 그녀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쓴 마주르카, 미뉴에트, 폴로네즈 등 춤곡이 모두 실려 있으며, 대부분은 명랑하고 가벼운 곡이지만 '폴로네즈 4번'처럼 까다로운 기교를 요구하거나 '마주르카 17번'처럼 낭만적인 어두움을 지닌 곡도 있다.

Ondine

www.ondine.net

ODE 1266-5
실베스트로프: 그대에게 우리 노래하나니
라트비아 방송 합창단, 시그바르즈 클라바(지휘)

새로운 영성의 세계를 보여주는 실베스트로프의 종교 합창곡집

우크라이나 출신 작곡가로 기야 칸첼리 등과 더불어 '스피리추얼 미니멀리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발렌틴 실베스트로프의 종교 합창곡 모음집. '알렐루야', '2부작', '두 개의 종교적 찬가', '두 개의 크리스마스 자장가' 등 여기 실린 곡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아카펠라 합창곡이며, 일부 곡에는 독창이 추가된다. 실베스트로프는 중세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아르보 페르트 같은 작곡가와는 달리 어찌 들으면 뉴에이지 같은 음향을 들려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고 신비로운 울림으로 새로운 영성의 세계를 보여준다.

ODE 1277-2
쇼스타코비치: 미켈란젤로의 시 모음곡 / 리스트: 페트라르카 소네트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바리톤), 이바리 일랴(피아노)

흐보로프스키 특유의 강렬한 가창이 돋보이는 쇼스타코비치와 리스트의 가곡들

쇼스타코비치는 예술가로서 자신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를 토로한 미켈란젤로의 시를 통해 자신의 고뇌와 분노를 표현했다. 한편 리스트의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세 편'은 연인 라우라에 대한 사랑의 기쁨과 절망을 노래한 페트라르카의 시에 리스트가 음악을 붙인 것이다. 특유의 강렬한 가창으로 일찍이 많은 애호가를 사로잡았던 흐보로스토프스키는 여기서도 당당하고 깊이 있는 노래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ODE 1280-2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9~13번, 14번 '월광', 15번 '전원', 19~20번
파발리 윰파넨(피아노)

핀란드의 자연처럼 청명한 윰파넨의 베토벤 소나타 연주

핀란드 출신 피아니스트 파발리 윰파넨은 모차르트에서 불레즈와 핀란드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소나타 사이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이 음반은 그가 온딘에서 진행 중인 베토벤 소나타 사이클 중 반환점에 해당한다. 윰파넨은 어느 곡에서나 주관적인 감정이입을 절제하고 아티큘레이션을 대단히 명확하고 엄격하게 구사해 곡이 스스로를 말하게끔 한다. 듣다 보면 청명하기 그지없는 핀란드의 하늘과 호수가 눈 앞에 펼쳐지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ODE 1264-5
말러: 교향곡 1번, 블루미네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 한누 린투(지휘)

일관되게 청명한 음색을 유지하는 한누 린투의 말러 1번

2012년에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 객원지휘자가 된 한누 린투는 1년 뒤에 같은 악단의 상임지휘자가 된 뒤로 이 악단과 더불어 활발한 녹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말러 '교향곡 1번'에서 마지막 악장까지 일관되게 매우 깔끔하고 청명한 음색을 유지하며, 이따금 저음현을 강조해 색다른 색채감을 창출한다. 이 음반에는 말러가 당초 '교향곡 1번'의 2악장으로 작곡했으나 나중에 빼버린 '블루미네'도 별도 수록되어 있다. 요우코 하리얀네가 연주한 트럼펫 독주와 오케스트라 모두 매우 달콤하면서도 싱그럽게 연주한다. **하이브리드 SACD.**

ODE 1269-2
드뷔시: 전주곡집 2권,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마리타 비타살로(피아노)

스테인드글라스처럼 선명하고 다채로운 비타살로의 드뷔시

마리아 비타살로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핀란드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시벨리우스를 비롯한 많은 음반을 녹음했으며 특히 드뷔시의 '전주곡집 1권'과 라벨의 피아노곡 음반은 큰 호평을 받았다. 비타살로는 이 새 드뷔시 앨범에서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섬세한 다이내믹 처리와 현대적인 예리함을 결합한 참신한 해석을 들려준다. 기존의 드뷔시 해석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몽롱함과 나른함을 걷어내고 기민한 타건과 명확하고도 유려한 아티큘레이션으로 연주하는 비타살로의 해석은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다채롭고 눈부시다.

ODE 1273-2
'바흐-골드베르크 변주곡'
라르스 포그트(피아노)

라르스 포그트가 연주하는 바흐-골드베르크 변주곡

크리스탈과 같은 연주로 충격과 감동을 안겨준 쇼팽의 피아노 작품집에 이어 라르스 포그트가 탄생시킨 또 하나의 역작. 섬세한 터치와 명징한 음향을 바탕으로 각각의 변주를 거침없이, 명쾌하게 읊어 내려가는 연주는 전작에 이어 다시금 놀라움을 안겨준다. 담백함과 우아함을 두루 갖춘 음색, 과하지 않은 잔향도 인상적이다. 본 음반을 통해 라르스 포그트는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대하는 그만의 방식을 찾아낸 듯 느껴진다. 레퍼런스의 반열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연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Capriccio

www.capriccio.at

C5264
차니: 열 두 개의 디베르티멘토
레나 노이다우어(바이올린), 마르틴 루멜(첼로)

차니의 디베르티멘토에서 듣는 초기 고전음악의 예술
안드레아 차니는 크레모나 태생으로 만투아와 빈에서 활동했으며, 합스부르크 왕가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는 작곡가로서 비발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바로크에서 벗어나 초기 고전음악으로 향하고 있으며, 초기 교향곡의 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열 두 개의 디베르티멘토는 초기 고전음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전시대에 흔히 작곡된 디베르트멘토는 여흥용 음악이지만,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차니의 작품들은 보다 진지하다. 세 악장의 코렐리 실내소나타의 형식을 갖춘 초기고전의 소나타에 가깝다. **[세계 최초 녹음]**

C5244
히나스테라: 협주곡 풍의 변주곡, 오얀타이 외
세하라(소프라노), 도이치 슈타츠필하모니 라인란트-팔츠, 슈테펜스(지휘)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바라본 남미의 정체성
20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아르헨티나 작곡가 알베르토 히나스테라는 남미 특유의 정체성을 음악으로 승화하기 위해 평생토록 노력했다. '크리오요 파우스트를 위한 서곡'과 퀘추아어 희곡에 의한 삼부작 교향시 '오얀타이' 등이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한편 다채로운 악기 조합과 다양한 형식상의 시도를 보여주는 '협주곡 풍의 변주곡'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과 더불어 교육용으로도 적합한 곡이다. 오페라 '보마르소'는 관현악 모음곡 버전으로는 **세계 최초 녹음**이다.

C5258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비가, 보칼리제, 로망스
하리엇 크리그(첼로), 마그다 아마라(피아노)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 노래하는 라흐마니노프의 낭만성
쇼팽과 마찬가지로 라흐마니노프에게도 첼로는 피아노 다음으로 중요한 악기였다. '첼로 소나타'는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다른 많은 작품과 마찬가지로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낭만성이 깊이 담겨 있다. '환상 소품집'의 첫 번째 곡 '비가'는 그 다음 곡 '전주곡 올림다단조'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역시 깊은 정감을 지녔으며, '로망스'는 원래 '비밀스런 밤의 고요함 속에서'라는 제목의 가곡인데 여기서는 '보칼리제'와 마찬가지로 첼로와 피아노 버전으로 연주되었다. 크리그와 아마라는 모든 곡에서 감성을 잘 살리면서도 절제된 태도로 연주했다.

C3001
슈베르트: 가곡 '인간의 한계', '프로메테우스', '승리' 외
틸로 달만(바리톤), 찰스 스펜서(피아노)

재능 있는 젊은 베이스 바리톤의 다양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선곡
독일 태생 베이스 바리톤인 틸로 달만은 21세기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성악가로 근래 오페라와 가곡 양쪽 장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이 음반에서, 자신의 다양한 표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선곡을 했다. '죽음과 소녀', '달에게', '어부' 등은 부드럽고 정감 있는 특유의 목소리를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내지만, '죽음에' 등에서는 충분히 위엄 있는 가창을 들을 수 있다. 군둘라 야노비츠, 제시 노먼 등 많은 성악가와 작업한 경험이 있는 찰스 스펜서는 여기서도 베테랑 반주자답게 안정적이고 정감 있는 반주를 들려주고 있다.

C3002
카이 슈티퍼만 – 독일 발라드집
카이 슈티퍼만(바리톤), 알렉산더 슈말츠(피아노)

다양한 주제, 다양한 양식으로 작곡된 독일 발라드 모음집
발라드는 중세 시대부터 전해 오는, 시와 노래가 결합된 문학 형식이다. 하이네, 실러, 괴테 등 이른바 '질풍노도' 시대의 시인들이 이 형식의 시를 다수 썼으며, 여기에 슈베르트, 슈만, 볼프 등이 곡을 붙였다. 독창적인 기획이 돋보이는 이 음반은 이렇게 음악이 붙은 발라드를 내용의 성격에 따라 '우정과 신의', '왕과 기사', '유령과 환영'이라는 세 주제군으로 분류했다. 바리톤으로 쿠르트 몰의 제자인 카이 슈티퍼만은 곡마다 제각각인 다양한 분위기와 표현 양식을 적극적으로 소화해내며, 알렉산더 슈말츠는 충실한 반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C5140
베토벤: 가곡 전곡
헤르만 프라이(바리톤), 파멜라 코번(소프라노), 레너드 호칸슨(피아노)

노장 음악가들의 예술혼이 돋보이는 베토벤 가곡 전집
여기 실린 음원은 모두 1987~89년에 녹음된 것으로 이번에 한데 묶여 다시 나왔다. 1998년에 69세를 일기로 타계한 헤르만 프라이는 이 프로젝트에 도전했을 당시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며, 미국 태생이지만 유럽에서 더 명성이 높았던 피아니스트 레너드 호칸슨 역시 2003년에 타계한 상태다. 프라이는 고령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잘 보전된 목소리로 원숙하게 노래하며, 파멜라 코번은 청아하고 산뜻한 목소리로 꾸밈없이 노래했다. 일관되게 면밀한 반주를 들려주는 호칸슨 역시 이 세트의 완성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내지에 전곡 가사 수록.**

C5209
바스크의 노래
아란차 에세나로(소프라노), 후안 카를로스 로드리게스(피아노)

스페인 바스크 지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가 소개하는 바스크의 노래
바스크 지역은 프랑스 남서부와 스페인 북부 중앙에 걸친 지역으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와 다른 바스크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그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스페인의 바스크주 출신인 미모의 소프라노 가수 아란차 에세나로는 이러한 바스크인의 예술을 노래로 소개한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바스크 작곡가인 솔라이카와 이가르사발의 곡으로, 서정적이고 진지한 감수성이 배어있다. 선율에서 느껴지는 삶의 애환과 애수에 바스크가 낯선 이들도 곧 공감하게 된다.

C5255 **[2 FOR 1]**
하이든: 오판된 부정, 참된 정조
케르메스(소프라노), 라이스(소프라노), 트로스트(테너), 에델만(바리톤), 홀츠마이어(바리톤), 팔리(베이스), 쾰른 서독일 방송관현악단, 포쉬너(지휘), 에르난데스-실바(지휘)

에스테르하지 궁전에서 상연되었던 하이든의 오페라 갈라
하이든이 소속되어있던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는 오페라를 매우 좋아하여 1년에 무려 150회의 오페라 공연을 열었다. 이를 위해 하이든은 약 20곡의 오페라를 작곡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남아있는 열네 곡의 에스테르하지 오페라는 거의 연주되지 않고 있다. 이 음반은 하이든의 오페라 두 편의 하이라이트를 수록하여 이러한 안타까움을 달래주고 있다. 〈오판된 부정〉는 1773년에, 〈참된 정조〉는 1779년에 완성된 이탈리아 스타일의 오페라로, 성악가의 화려한 기량을 뽐내는 아리아와 극의 상황을 표현하는 흥미로운 음악들로 가득하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 LPO

www.lpo.co.uk

LPO–0087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 교향곡 5번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클라우스 텐슈테트(지휘)

텐슈테트가 제시하는 장대하고 웅혼한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은 1992년 2월 23일 로열 페스트벌 홀 실황, '교향곡 5번'은 1990년 8월 30일 로열 앨버트 홀 실황. 텐슈테트는 두 곡 모두에서 특유의 스타일로 선이 굵고 단호하며 힘찬 연주를 들려준다. 특히 현의 중저음부를 강조해 무게중심을 한껏 낮춘 '교향곡 5번'은 오늘날 접하기 힘든 장대함과 웅혼함을 갖추고 있다. 1977년에 처음 텐슈테트의 지휘로 연주한 이래 그를 수석 객원지휘자, 상임지휘자, 계관 지휘자의 지위에 차례로 올렸으며 그가 1998년에 타계할 때까지 함께한 런던 필은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 텐슈테트의 지시에 부응하고 있다.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www.rcolive.com

RCO 15004 **[SACD]**
말러: 교향곡 4번
도로테아 뢰쉬만(소프라노), 로얄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마리스 얀손스(지휘)

밝고 아름다운 선율들을 아기자기하고 화려하게 이끌어낸 얀손스의 마력
최고의 앙상블로 손꼽히는 얀손스와 RCO가 2015년 2월에 연주한 말러의 '교향곡 4번' 실황이다. 말러의 교향곡 중에 가장 작은 규모이자 길이도 가장 짧으며, 밝은 분위기에 아름다운 선율들이 가득하여 인기가 높다. 마지막 4악장에 등장하는 소프라노 노래가 민화집 '어린이의 신기한 뿔피리' 중 '하늘에서의 삶'을 가사로 하고 있는데, 이 음악은 이 글과 매우 어울린다. 3악장 아다지오는 영화에 사용되어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말러의 곡이기도 하다. 얀손스는 이러한 특징들을 섬세하게 포착해내어 밝고 아기자기하고 화려하게 이끌어냈다.

Accord

www.cdaccord.com.pl

ACD 217–2
바인베르크: 바이올린 소나타 4번 & 5번, 소나티나
마리아 스와베크(바이올린), 피오트르 로잔스키(피아노)
음울한 아다지오와 리드미컬하고 거친 알레그로 사이의 극단적인 줄타기
미에치스와프 바인베르크는 폴란드 출신의 소련 작곡가로, 22개의 교향곡과 17개의 사중주곡을 쓴 다작가이다. 최근에 그의 작품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주 연주되고 있다. 그는 쇼스타코비치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음악은 쇼스타코비치와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지만 보다 내면적이고 현대적이다. 이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 역시 이러한 바인베르크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음울한 아다지오와 리드미컬하고 거친 알레그로 사이의 극단적인 줄타기에서 바인베르크의 음악적 표현력이 드러나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ACD 139–2
라틴 아메리카 기타 이중주 작품집
토마스 카쥬보프스키 & 파벨 나바라(기타)
기타로 편곡된 라틴아메리카 민속 음악의 정수
본 음반에는 라틴 아메리카(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의 민속 음악이 담겨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에서도 세 작품(가을, 겨울, 봄)이 수록되어 있다. 기타로 편곡된 라틴 아메리카 음악은 오케스트라 또는 다른 악기로 편곡된 버전 보다 라틴 아메리카인의 삶과 애수를 잘 드러낸다. 이중주 속에 흐르는 삶의 단편들은 시간도 삶도 예술도 흐르는 강물과 같다던 보르헤스의 말과 어울릴 법 하다. 나지막하게 흐르는 선율 속에 잠시 시간을 맡겨도 좋을 만한 음반.

ACD 156–2
부흐빈더의 명연주들: 베토벤 부활절 축제
루돌프 부흐빈더(피아노, 지휘),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연주)
부흐빈더의 폴란드 베토벤 부활절 축제 실황!
폴란드의 베토벤 부활절 축제에서 고정 게스트로 활약 중인 부흐빈더의 연주 실황(2002년 3월 26일)이 담겨있는 음반. 당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4번이 연주되었는데, 이 중 3번과 4번이 본 음반에 수록되었다. 부흐빈더는 전체적으로 사색적인 음색과 역동적인 터치를 두루 갖춘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번 1악장 후반부와 4번 2 · 3악장이 특히 인상적이다. 건반 위를 자유로이 유영하는 영감의 흐름은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말을 떠올릴 만하다.("나는 내 인생의 주인/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므로") 이는 베토벤의 모습이기도 하다.

Marco Polo

www.naxos.com

8.225367
고도프스키 : 피아노 작품 13집
콘스탄틴 셰르바코프(피아노)
현란한 피아니즘을 과시하는 고도프스키의 독주곡 모음집
폴란드 태생의 미국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레오폴드 고도프스키(1870~1938)는 당대 최고의 비르투오소였다. 이 음반에 실린 곡들은 알렉산드르 실로티 등 당대를 주름잡았던 여섯 명의 동료 피아니스트를 위해 쓴 '왼손을 위한 여섯 개의 소품'을 제외하면 모두 비제나 베버, 쇼팽, 알베니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등 다른 작곡가의 작품을 편곡하거나 변형한 것이다. 생상스의 '백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고도프스키는 원곡에 매우 섬세하고 다채로운 장식을 붙여 놓았지만, 라흐마니노프 콩쿠르 1회 우승자인 셰르바코프는 이 모두를 어려움 없이 소화했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 223
바흐: 프랑스 모음곡 1, 2, 6번/ 멘델스존: 진지한 변주곡/ 파니 헨젤: 무언가
미쿠 니시모토-노이버트(피아노)
투명하고 명확한 톤과 설득력 있는 성부간의 밸런스가 돋보이는 바흐
뮌헨 음대 교수인 니시모토-노이버트는 라이프치히 바흐 콩쿠르에 입상한 이후 바흐 전문가로서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이 음반에서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1, 2, 6번을 연주했다. 명확한 톤으로 투명한 바흐를 들려주고 있으며, 재조정된 성부간의 밸런스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바흐를 발굴한 멘델스존의 걸작 '진지한 변주곡'을 함께 수록했다. 바흐의 영향과 낭만 작곡가의 감수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해석력이 돋보인다. 멘델스존의 누나인 파니의 작품에서는 그녀의 넓은 표현력이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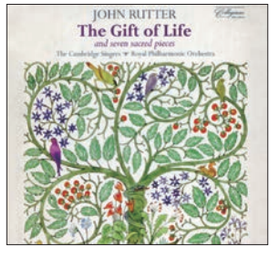
SM 230
모차르트: 프러시아 사중주곡
스트라디바리 사중주단
전설적인 명장 스트라디바리의 악기로 연주한 모차르트 최후의 사중주곡들
스트라디바리 사중주단은 18세기 초 바이올린 제작 명장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악기로 연주한다. 선명한 톤과 맑은 음색을 지닌 이 악기들은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주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 음반에 수록된 모차르트의 '프로이센 사중주'는 1789~90년에 작곡된 세 곡의 마지막 사중주곡들로,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에게 헌정되었다. 이 곡들은 모차르트의 음악적 아름다움이 한껏 성숙한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프로이센 왕이 연주했던 악기인 첼로의 활약이 돋보인다. 특히 스트라디바리의 아름다운 첼로 사운드는 귀를 사로잡는다.

SM 228
'사랑의 크리스마스'
CHRISTMAS WITH LOVE
안나 마리아 카우프만(소프라노), 뮌헨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나이젤 케네디(피쳐링)
안나 마리아 카우프만이 선사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음악
본 음반에는 캐나다 출신으로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안나 마리아 카우프만이 선사하는 크리스마스 음악이 담겨 있다. 귀에 익은 크리스마스 캐롤 이외에도 북아메리카 휴런 인디언의 민요, 나이젤 케네디가 직접 작곡한 크리스마스 음악도 수록되어 있어 색다르다. 맑고 낭랑한 카우프만의 목소리는 안드레아스 코발레비츠가 지휘하는 뮌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따뜻한 음색과 어우러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마지막 트랙에 등장하는 나이젤 케네디의 익살스런 바이올린 선율에 미소 짓게 된다.

SM 222
'삶과 꿈'
앙상블 라로(연주)
내면의 상처를 안고 있는 세명의 작곡가, 그들의 백일몽
전작에 이어 세기말 세기초 동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실내악 작품을 다루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내면의 상처를 갖고 있는 3인의 작곡가(드보르작, 수크, 야나첵)에 주목하였다. 본 음반에 수록된 3인의 작품은 아무 것도 바랄 수 없는 상실의 슬픔 속에서 꾸게 되는 백일몽(동화의 이미지)이 예술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일 밤, 잠 없이 오직 꿈을 꿀 뿐'이라는 카프카의 고백은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앙상블 랄로의 섬세하면서도 진폭 큰 연주는 멜랑콜리를 표현하는 대목에서 빛을 발한다.

Collegium Records

www.collegium.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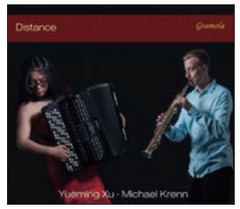
COLCD 138
러터: '삶이라는 선물' 외
케임브리지 싱어스,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존 러터(지휘)
순수한 기쁨과 경외심의 찬가 모음집
1945년생인 영국 작곡가 존 러터는 오늘날 최고의 교회음악 작곡가로 꼽히며, 대중적이고 친근한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삶이라는 선물'은 부제가 말해주듯이 천지창조에 대해 노래한 여섯 개의 찬송가를 묶은 연작이다. 이외에도 '오 신이여, 왕에게 그대의 심판을 내리소서', '탐색', '시편 150편', '천국의 모든 종이', '기뻐하라 노래하라' 등 일곱 개의 찬송가가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러터가 직접 가사를 쓴 것이다. 1981년에 러터 자신이 창단한 케임브리지 싱어스는 순수한 기쁨과 경외심으로 노래하고 있다.

Gramola

www.gramola.at

99064
비발디: 라 폴리아, 피치니니: 샤코나, 마리니: 4성 파사칼리아, 아르헨티나 민속음악
바흐 콘소트 빈, 루벤 두브롭스키(지휘)

남미 특유의 리듬감으로 민속음악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고음악
'바흐 콘소트 빈'은 유럽의 고음악계에 신선한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단체를 창단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첼리스트 루벤 두브롭스키가 남미 특유의 리듬감을 바탕으로 고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다. 비발디의 유명한 〈라 폴리아〉는 그 어떤 연주보다도 살아있는 리듬을 경험할 수 있으며, 피치니니의 〈샤코나〉는 타악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다 감각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함께 수록된 여러 민속음악은 거친 리듬과 애잔한 선율로 클래식 음악들과 이질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이것이 이 음반의 의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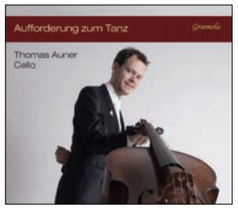


99073
바흐: 플루트 소나타, 마르첼로: 오보에 협주곡, 피아졸라: 렌타멘테 등
미하엘 크렌(색소폰), 수 유에밍(아코디언)

가슴 깊이 젖어드는 색소폰의 음색과 애잔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아코디언의 조화
색소폰과 아코디언의 독특한 앙상블로 클래식을 듣는다. 미하엘 크렌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돋보이는 색소포니스트 중 한 사람이며, 중국 출신의 아코디언 연주자 수 유에밍은 예후디 메뉴힌 재단의 아티스트이다. 이 둘을 위해 작곡된 부르칼리의 〈삭스아코르디아〉는 이 악기들의 특징이 고루 드러나면서 조화를 이루고, 서정적인 멜로디와 톡톡 튀는 리듬으로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곡이다.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는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탱고가 연상되며,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은 아다지오에서 아코디언의 애잔한 표현이 매우 감동적이다.

99085
열정 – 열정적인 유럽과 시간의 여행
아르카디 비노쿠로프(바이올린), 엘리자베트 에쉬베(피아노)

비노쿠로프가 들려주는 독특한 바이올린 소품 리사이틀
린츠 브루크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비노쿠로프가 다양한 바이올린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부제인 '애정 어린 유럽의 시간여행'(독일어 제목)에 걸맞은 아름다운 소품들인 엘가의 〈사랑의 인사〉,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라벨의 〈블루스〉를 비롯하여,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2악장과 시마노프스키의 〈신화〉 1악장,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3악장 등 무게 있는 작품들도 포함하고 있다. 비노쿠로프는 진솔하면서도 남성적인 에너지가 지배하는 호탕한 연주를 들려주며, 에쉬베의 피아노는 여성적인 따스함으로 받쳐준다.



99096
베버: 무도회의 권유, 피아졸라: 르 그랑 탕고, 차이코프스키: 감상적인 왈츠 등
토마스 아우너(첼로), 이리나 아우너(피아노)

첼로와 함께 추는 클래식 200년의 다양한 춤곡들
토마스 아우너는 리비니우스와 나탈리아 구트만의 제자이자 리첸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한 실력파 첼리스트이다. 그는 이 음반에서 클래식 200년의 다양한 춤곡들을 선보인다. 편안하면서도 열정적이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표정 연출로 각 춤곡의 극적 효과들을 훌륭하게 포착해낸다. 바흐의 첼로 모음곡 중 세 곡과 피아졸라의 〈르 그랑 탕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2번〉, 라벨의 〈아바네라〉, 차이코프스키의 〈감상적인 왈츠〉, 파야의 〈스페인 무곡〉 등 개성적인 춤곡들을 들을 수 있으며, 마지막은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로 화려하게 곡을 맺는다.

99086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피아노 삼중주
하이든 체임버 앙상블

빈을 빛낸 세 작곡가의 후기 피아노 삼중주
여기 실린 곡들은 각각 해당 작곡가의 피아노 삼중주 가운데 후기에 속한다. 하이든의 '삼중주 사장조'는 대략 45곡에 달하는 그의 피아노 삼중주 가운데서도 완숙한 솜씨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모차르트는 1788년에 '삼중주 마장조'를 포함해 피아노 삼중주를 연달아 쓴 뒤 더 이상 이 장르의 곡을 남기지 않았고, 슈베르트의 삼중주 역시 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피아노 삼중주이다. 오랜 실내악 연주 경험을 가진 세 연주자가 2013년에 결성한 하이든 체임버 앙상블은 명칭대로 하이든 및 동시대 작곡가들의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고 있다.

99105
사랑의 길: 바흐와 마르완의 음악
마르완 아바도(우드), 파울 굴다(하프시코드)

유럽과 중동의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다
'우드'는 류트와 흡사한 중동의 악기로, 이 음반에서 하프시코드와 이중주로 연주한다. 하프시코드는 건반악기지만 우드와 동일한 원리로 소리 내는 발현악기이기 때문에, 두 악기의 하모니는 매우 훌륭하다. 이 음반은 바흐와 우드 연주자 마르완 아바도의 작품이 번갈아 등장하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두 음악의 연관성과 조화를 보여준다. 특히 아바도가 바흐의 곡을 편곡한 〈베이루트의 바흐〉에서 절정에 이른다. 유럽과 중동의 음악과 악기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듯,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의 이 음반은 이 두 세계의 화합을 기원한다.

99043
차이코프스키: '외로운 마음뿐' 등 19 가곡집
나디아 크라스테바(메조소프라노), 도라 델리스카(피아노)

강한 호소력과 진지한 무게감이 가득한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가곡
시카고 오페라에서 카르멘 역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세계의 오페라 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불가리아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나디아 크라스테바가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가곡 열아홉 곡을 녹음했다. 차이코프스키는 교향곡과 협주곡, 발레곡 등 기악곡이 유명하지만, 열곡의 오페라와 104곡에 달하는 가곡을 남기는 등 인성을 위한 작품에도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었다. 크라스테바는 오페라에서 인정받은 극적인 표현력과 특유의 중후한 메조소프라노 음성으로 차이코프스키의 가곡들을 강한 호소력과 진지한 무게감으로 그렸다.

99053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 7번, 론도 G장조, 여섯 개의 독일무곡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미하엘 코어슈티크(피아노)

6번의 서정성과 7번의 극적인 특징을 성공적으로 표현한 호연
베토벤의 열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모두 초중기 작품에 속한다. 이 중 6, 7, 8번은 작품30의 세트로 묶여있으며, 〈교향곡 2번〉을 작곡했던 1803년에 완성되었다. 이 세트는 러시아의 알렉산더 1세에게 헌정되었다. 이 음반에 수록된 6번은 바이올린 선율의 서정성이 돋보이며, 피아노는 반주로서 비교적 단백하다. 반면에 7번은 바이올린과 피아노 모두에 충분한 표현력을 요구하며, 듀오로서 역할이 배분되어있다. 오스트리아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이른베르거는 이러한 특징을 살려 6번의 서정성과 7번의 극적인 표정을 성공적으로 표현했다.

MD&G

www.mdg.de

340 1900–2 **[9 CDs for 3.5]**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
Christian Zacharias, Piano & Direction / Orchestre de Chambre de Lausanne

스페셜 가격 [세계 2000조 한정 수량 발매)
독일의 최정상급 클래식 오디오파일 레이블 MDG의 대표 피아니스트 Christian Zacharias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전곡
이 박스 세트는 지난 12년간 크리스티안 차하리아스와 로잔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녹음하였으며 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에디션 전체를 묶은 것이다. 각각의 음반에서, 그리고 세트 전체를 통틀어 해가 지남에 따라 이 피아니스트와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함께 성장했는가를 체험할 수 있다. 모든 조바꿈은 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오케스트라는 독주자의 자유로운 연주에 기민하고도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또한 이들은 친밀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매혹적인 음색을 빚어낸다.

[해외평]
"결론적으로, 이것은 최근 들어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가장 독특한 축에 속하는 연주이며 그 결과는 탁월하다." ***– 인터내셔널 레코드 리뷰***

"비범한 연주" ***– 스케르초***

"피아니스트의 독주는 잘 설계되고 구현되었으며, 오케스트라의 내적 명료함은 이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 목관은 밸런스가 훌륭하게 맞춰진 SACD (HYBRID)녹음 덕에 매우 명랑하게 들리며, 때로는 음향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화려하게 들린다." ***– 오디오파일 오디션***

603 1923–2
타네예프: 두 개의 현악오중주
위트레흐트 현악사중주단, 알렉산더 젬초프(비올라), 피터르 비스펠베이(첼로)

차이코프스키의 제자 타네예프의 실내악에서 즐기는 러시아 낭만의 아름다움
세르게이 타네예프는 차이코프스키와 루빈스테인의 제자이자 아우어의 반주자였으며,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스크리아빈과 라흐마니노프를 가르쳤던 거장이자 뛰어난 교육자였다. 그의 음악은 그의 두 스승의 영향으로 러시아 낭만의 사랑스러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화음을 지니고 있다. 이 음반이 수록하고 있는 두 곡의 현악오중주는 타네예프의 대표적인 실내악곡으로, 그의 특징을 잘 대변하고 있다. 첼로 두 대가 편성된 작품14는 고음과 저음이 극적인 대비를 만들어낸다면, 첼로 대신 비올라 두 대가 편성된 작품16은 선율의 아름다움이 만개한다.

Dynamic

www.dynamic.it

CDS 7738
이자이/ 프로코피예프/ 만촐리: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
마테오 피파 & 마달레나 피파(바이올린)
바이올리니스트 남매가 걸어가는 미지의 길
두 대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은 음악사 전체를 통틀어도 매우 드문 편이다. 마테오 피파와 마달레나 피파 남매는 바로 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피마듀오'(둘의 성씨 앞 글자 'Pi'와 이름 앞 글자 'Ma'를 합친 것)를 결성했다. 외젠 이자이의 소나타는 고풍스럽고 이따금 애상적인 반면,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는 다정한 온화함에서 표현주의적인 격렬함과 유희적인 낙천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정을 보여준다. 1977년생 작곡가인 안드레아 만촐리의 '토니오 카빌라를 위한 작은 모음곡'은 이 남매에게 헌정한 곡으로, 세계 최초 녹음이다.

CDS7663
미요/ 모차르트/ 라벨 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
마르타 아르헤리치, 가브리엘레 발도치(피아노)
아르헤리치와 발도치의 오랜 협력이 낳은 또 하나의 귀한 선물
말이 필요 없는 피아노의 여제 아르헤리치는 오래 전부터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인 가브리엘레 발도치와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발도치는 2010년부터 '마르타 아르헤리치 프레젠츠 프로젝트'의 예술감독 겸 대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2008년 2월 2일에 이탈리아 리보르노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고 있는 이 음반에서, 아르헤리치와 발도치는 모차르트에서 쇼스타코비치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함께 연주했다. 모차르트의 단아함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신랄한 유머, 미요의 낙천적이고 기발한 익살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은 치밀한 팀워크로 막힘없이 연주했다.

CDS 7720
치마로사: 피아노 소나타 전곡 1집
다리오 칸델라(피아노)
새롭게 조명되는 치마로사의 피아노 소나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메니코 치마로사의 작품은 오페라가 대부분이며, 그밖에는 교회 음악이 약간의 비중을 차지할 뿐 기악곡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기악곡도 적지 않다. 단악장의 건반용 소나타만 88곡에 달하며, 이번 음반은 이 가운데 절반인 44곡을 수록했다. 모두 1~3분 내외의 소품들이지만 간결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곡들이다. 알도 치콜리니의 제자인 다리오 칸델라는 모든 곡에서 단정하고 투명하게 연주하면서도 곡마다 분위기와 정감을 살려 연주했다.

Gothic

www.gothic-catalog.com

G-49294
달콤한 선율에 담긴 나의 마음
앤드루 에니스(플뤼겔혼),
피터 리처드 콩트(와나메이커 그랜드 오르간)
사랑스러운 멜로디와 플뤼겔혼의 절묘한 조화로 느끼는 따뜻한 감동
앤드루 에니스는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트럼페터로, 미국 뉴저지 벨모어의 성 요아힘 교회 음악감독이기도 하다. 그는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한데, 이 음반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피터 콩트가 그의 스승이다. 이 음반에서 에니스는 '플뤼겔혼'이라는 악기를 연주한다. 이 악기의 모양은 트럼펫과 유사하면서도 호른에 가까운 부드러운 음색을 내는 금관악기로, 최근에 클래식과 재즈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차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멜로디에 플뤼겔혼의 음색은 상상 이상으로 절묘하게 어울리며 더없는 따뜻한 감동을 준다.

Rondeau

www.rondeau.de

ROP6074
마르틴 루터의 코랄 편곡들
드레스덴 성모교회 실내합창단, 인스트루멘타 무지카, 마티아스 그뤼너트(지휘)
바로크 시대의 거장들이 편곡한 마르틴 루터의 코랄들
드레스덴 성모교회는 바흐가 오르간을 연주했던 곳으로, 현재 마티아스 그뤼너트가 이 교회의 칸토르로 봉직하고 있다. 그는 이 음반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코랄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비롯하여 '구세주가 곧 오시네', '높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여 찬송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포로가 되셨도다',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등을 샤이트, 프레토리우스, 파헬벨, 쉬츠, 아그리콜라, J. C. 바흐 등이 편곡한 작품들을 모았다. 바로크 거장들의 다양한 음악세계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앨범이다.

ROP6111
마르탱: 미사, 그뤼너: 아뉴스 데이, 플레처: 입당축전곡 등
드레스덴 성모교회 실내합창단, 마티아스 그뤼너트(지휘)
유서깊은 드레스덴 성모교회에서 펼쳐진 20세기 최고의 미사곡
드레스덴 성모교회는 바흐가 오르간을 연주했던 곳이며, 바그너가 이 교회를 위해 곡을 쓰고 연주하기도 했다. 이 교회의 칸토르이자 드레스덴 교회음악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뤼너트는 성모교회 실내합창단과 마르탱의 〈미사〉를 녹음했다. 마르탱은 스위스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그의 〈미사〉는 종교적인 중량감과 낭만적인 감성을 고루 갖춘 20세기 최고의 미사곡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함께 수록된 그뤼너트의 두 곡의 합창곡은 성모교회의 뛰어난 음향을 고려한 아름다운 작품들이며, 낭만적이고 화려한 플레처의 오르간 곡도 손수 연주했다.

ROP6100
브리튼: 캐럴의 제전, 어린이 십자군
하노버 소녀 합창단, 앙상블 5, 바흐후버(하프), 스미트(오르간), 슈뢰펠(지휘)
너무나 다르지만 같은 것을 지향하는 브리튼의 두 작품
벤저민 브리튼이 1942년에 예배용으로 쓴 '캐럴의 제전'은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소재를 구하여 영국의 종교 합창음악 전통의 영향을 더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캐럴에 곡을 붙인 것으로 대부분 중세 영어로 되어 있다. 한편 '어린이 십자군'은 2차 대전 폴란드를 배경으로 추위와 굶주림, 전쟁이 없는 따뜻한 나라로 떠난 55명의 아이들 이야기를 읊은 브레히트의 동명 장시에 기초하고 있다. 전쟁의 참상을 통렬히 고발하며 평화와 위안을 간구하는 이 작품은 정신적인 면에서 '전쟁 레퀴엠'의 자매곡이라 할 수 있다.

ROP6110
프랑크: 십자가 위의 일곱 마디 말씀, 대오르간을 위한 세 개의 소품
다니엘 베크만(오르간), 마인츠 성당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카르스텐 슈토르크(지휘)
하이든에 버금가는 프랑크의 대작 종교음악
이 음반은 세자르 사망 125주년에 해당하는 2015년을 기념해 녹음되었다. 한동안 작곡가 진위 여부가 의심되었던 '십자가 위의 일곱 마디 말씀'은 같은 제목의 하이든 작품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극적 성격과 경건함이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일부 대목은 동시대인이었던 브루크너의 음악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한편 1878년에 완성된 '세 개의 소품'은 작곡가의 친구이자 오르간 제작자인 카바이예 콜이 새로 설치한 오르간을 위해 작곡되었다. 여기서 프랑크는 오르간을 오케스트라에 맞먹는 교향악적 가능성을 지닌 악기로 다루고 있다.

SDG

http://www.monteverdi.co.uk

SDG722
바흐: 미사 B단조
모리슨(소프라노), 몬테베르디 합창단,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가디너(지휘)
30년만의 복귀 – 가디너와 몬테베르디 합창단의 바흐 'B단조'
존 엘리엇 가디너는 몬테베르디 합창단 및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와 더불어 1985년에 '미사 B단조'를 녹음한 뒤 30년 만에 같은 팀을 이끌고 이 곡에 뛰어들었다. 여기서 가디너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시대악기 녹음들이 일구어낸 성과를 모범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는 굳이 곡 전체를 하나의 시각으로 조망하고자 애쓰지 않으며, 악상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양하고도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풍부하면서도 명확하며, 대단히 폭넓은 감정 표현을 보여주면서도 과장 없는 이 '미사 B단조' 녹음은 앞으로의 바흐 녹음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Steinway & 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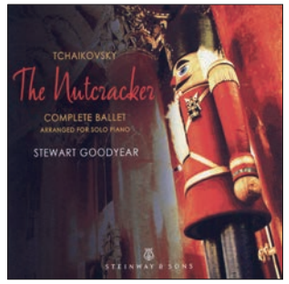
www.steinway.com

30034
후기 바로크 시대의 푸가 음악
앨런 파인버그(피아노)

푸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최고의 가이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명성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인 앨런 파인버그가 후기 바로크 음악의 정수인 푸가를 연주했다. 푸가는 대위법의 한 종류로, 한 성부에서 주제 선율이 연주되면 다른 성부에서 이 주제를 음높이를 달리하여 연주한다. 이렇게 여러 성부가 등장하게 되면 여러 개의 선율이 겹쳐지는 복잡하고 고풍스러운 음악이 만들어진다. 푸가의 거장 바흐와 바흐가 존경했던 북스테후데, 건반의 거장이었던 프로베르거와 헨델, 초기 고전 소나타를 태동했던 스카를라티 등을 수록하여 푸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최고의 가이드이다.

30039
라벨: 거울/ 라흐마니노프: 연습곡, Op. 33/ 탄둔: 여덟 개의 추억 등
션루(피아노)

피아노에서 마법과 같은 다양한 음색을 뽑아내는 백혜선의 제자, 션루
션루는 힐튼 헤드 국제 콩쿨, 와이드만 콩쿨, 캠필로스 콩쿨, 플로리다 콩쿨, 페롤 국제 콩쿨 등을 모두 1등으로 장식한 중국 출신의 신예로, 현재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백혜선의 지도를 받고 있다. 그는 더블린 국제 콩쿨의 프랑스 음악 최고상 수상자로서, 피아노에서 마법과 같이 다양한 음색을 뽑아낸다. '수채화'라는 타이틀의 이 음반에서 그는, 특히 프랑스 음악 최고상을 안긴 라벨의 '거울'과 탄둔의 '여덟 개의 추억'에서 그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연습곡'은 강력한 타건으로 그의 보다 폭넓은 표현력을 증명해 보인다.



30040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전곡 (피아노 버전)
스튜어트 굿이어(피아노)

생생하게 편곡되고 연주된 '호두까기 인형'의 피아노 버전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스튜어트 굿이어 자신이 말한 바에 따르면, 그는 '호두까기 인형'을 모음곡이 아닌 발레 전곡 버전으로 되풀이해 들으며 자랐다. 이 발레곡의 스토리라인과 악상에 매료된 그는 결국 이 곡 전체를 피아노 독주용으로 편곡해 직접 녹음했다. 그 결과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원곡의 색채감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묻히기 일쑤였던 세부 요소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굿이어는 단순히 정성스럽게 연주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담한 다이내믹과 악센트 구사로 생생한 대비감을 부여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SACD.**

BMMA (British Military Music Archive)

www.bmma.org.uk

BMMAWG1501
Cavalcade of Martial Songs
웨일즈 경비대 군악대, 앤드루 해리스(밴드마스터), 토마스 챈들러(밴드마스터)

1931년부터 1940년 사이에 이루어진 뛰어난 음질의 역사적 녹음
웨일즈 경비대와 소속 군악대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인 1915년에 창단되었다. 이 군악대의 초대 밴드마스터는 앤드루 해리스가 맡았으며, 1916년 3월 1일에 첫 공개연주회를 가졌다. 이 음반은 경비대와 군악대 창설 100주년을 맞아 1931년부터 1940년 사이의 역사적 녹음을 CD로 발매한 것이다. 초대 밴드마스터인 앤드루 해리스의 연주가 포함되어있으며,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에 가사를 붙인 〈희망과 영광의 땅〉과 수자의 〈성조기여 영원하라〉 등 명곡과 유명 민요를 모은 〈캠프파이어의 노래〉 등이 들어 수록되었다. 음질은 매우 좋다.

Grappa

www.grappa.no

GRCD 4151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영화음악
시그문 그로벤(크로마틱 하모니카), 레인보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페르 세문 비에르쿰(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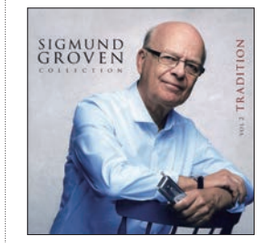
특색 있는 편곡과 정감어린 하모니카 연주로 듣는 아름다운 멜로디
시그문 그로벤은 세계 최고의 크로마틱 하모니카 연주자로, 이 음반은 영화음악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중심으로 꾸몄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명화 '바그다드 카페'와 '마농의 샘', '티파니에서 아침을', '타이타닉'을 비롯하여, '일 포스티노', '핀클리프 그랑프리', '알마노', '현금에 손대지 마라', '미드나잇 카우보이' 등의 유명한 선율을 특색 있는 편곡과 정감어린 하모니카 연주로 들을 수 있다. 또한 거슈윈의 재즈 오페라 〈포기와 베스〉의 '섬머타임'과 '필요치 않아요'를 수록하여 그로벤의 하모니카 재즈를 들을 수 있다. 그로벤의 자작곡도 수록되어있다.

GRCD 4195
오버 더 레인보우
시그문 그로벤(크로마틱 하모니카), 이바르 안톤 보고르(피아노)

세계 정상의 하모니카 연주자가 연주하는 사랑스러운 멜로디
세계 최고의 크로마틱 하모니카 연주자인 시그문 그로벤이 이 음반을 사랑스러운 멜로디로 가득 채웠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오버 더 레인보우〉을 비롯하여, 영화 '더 스팅'에 사용된 스콧 조플린의 래그타임 〈엔터테이너〉, 뮤지컬 'A Little Night Music'의 〈어릿광대를 보내주오〉 등을 비롯하여 토마의 오페라 〈미뇽〉 중 가보트, 생상스의 〈백조〉, 바흐/구노의 〈아베 마리아〉,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중 시실리아노 등 다양한 장르의 아름다운 음악을 수록했다. 마지막에 그로벤의 자작곡 〈비늘란 모음곡〉은 이 음반의 하이라이트이다.

GRCD 4393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
시그문 그로벤(크로마틱 하모니카), 이바르 안톤 보고르(피아노)

하모니카의 정감어린 음색으로 재탄생된 아름다운 클래식 멜로디
세계 최고의 크로마틱 하모니카 연주자인 시그문 그로벤이 유명한 클래식 소품들을 연주했다. 드뷔시의 가장 사랑받는 멜로디인 〈달빛〉을 비롯하여 모차르트의 〈소나타 K.545〉 중 안단테, 그리그의 〈노르웨이의 포크송과 춤〉과 〈할머니의 미뉴엣〉, 버르토크의 〈루마니아의 포크 댄스〉, 호바네스의 〈그리스의 포크 댄스〉 등 하모니카의 정감어린 음색으로 재탄생되어 감수성을 더욱 자극한다. 이와 함께 마이어스의 유명한 기타곡 〈카바티나〉를 비롯하여 〈희망〉, 〈옛날 옛적에〉 등 그로벤의 작품들도 수록했다.



GRCD 4502
그로벤 컬렉션 2집: 민속음악
시그문 그로벤(크로마틱 하모니카),이바르 안톤 보고르(피아노),아르베 텔레프센(바이올린) 등

그로벤의 세련된 편곡과 대중적 감각을 통해 새롭게 탄생된 민속음악
세계 정상의 크로마틱 하모니카 연주자인 시그문 그로벤이 1980년대부터 녹음해온 음원 중에서 선택하여 컬렉션 음반을 내놓고 있다. 이 음반은 그 중 두 번째로, 주제는 민속음악이다. 자신의 조국인 노르웨이의 민속음악을 소재로 하는 자작곡 혹은 편곡 연주가 앨범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아일랜드 민요 〈샐리 가든〉, 〈보헤미아 카니발〉, 유대 민속음악인 〈하바 나길라〉가 함께 수록되어있다. 이 음악들은 그로벤의 세련된 편곡과 대중적 감각을 통해 다른 문화에 속한 세계의 어느 누구라도 즐겨 들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음악으로 탈바꿈되었다.

GRCD 4250
아르베 텔레프센의 아리아
아르베 텔레프센(바이올린), 니다로스 성당 소년합창단, 트론헤임 심포니, 비에른 모에(지휘)

바이올린과 합창이 함께 어우러진 매혹적인 앨범
노르웨이의 바이올린 거장인 텔레프센은 그의 고향 트론헤임에 위치한 700년 역사를 지닌 니다로스 성당의 소년합창단과 함께 매혹적인 앨범을 만들었다. 니다로스 성당 소년합창단은 유럽 최고의 소년합창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를 비롯하여 헨델 〈울게 내버려 두세요〉, 모차르트 〈라크리모사〉, 존 러터 〈선택된 자의 신부로서〉, 해머스타인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꺼예요〉 등 명곡들과 〈푸른 옷소매〉, 브람스 〈자장가〉,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전주곡 등 아름다운 관현악곡을 수록했다. 또한, "새의 노래"로 잘 알려진 카탈로니아 지방의 캐롤 선율도 놓칠 수 없는 트랙이다.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 0310

에른스트: 폴로네이즈, 세 개의 화려한 론도, 화려한 변주곡, 용맹한 변주곡 등

셰르반 루푸(바이올리), 이안 홉슨(피아노)

에른스트의 초절기교로 듣는 경쾌하고 화려한 바이올린 사운드

하인리히 빌헬름 에른스트는 베를리오즈, 쇼팽, 리스트, 멘델스존 등 당대 거장들과 가까이 지냈으며, 파가니니를 잇는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명성을 누렸다. 작곡가로서는 최상의 난이도를 요하는 바이올린 작품들을 썼는데, 이 음반은 에른스트의 초절기교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중주법으로 요동하는 〈폴로네이즈〉를 비롯하여 〈화려한 변주곡〉과 〈네덜란드 국가 주제에 의한 용맹한 변주곡〉 등 경쾌하고 화려한 바이올린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세 개의 화려한 론도〉는 30분에 이르는 대작으로, 에른스트의 예술적 진지함이 배어있다.

TOCC 0313

바인베르크: 여섯 개의 발레 장면, 교향곡 22번

시베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드미트리 바실리예프(지휘)

바인베르크의 화려한 극적 구성과 비장미가 잘 나타나는 걸작들

바르샤바 출신의 바인베르크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소련으로 이주했다. 그의 음악은 쇼스타코비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만의 극적이며 화려한 표현으로 짙은 색채감을 갖고 있다. 이 음반은 알려지지 못한 바인베르크의 두 대작을 수록했다. 〈여섯 개의 발레 장면〉은 매우 극적이고 성격이 선명한 작품으로, 이 녹음 이전에는 연주된 적이 없었다. 〈교향곡 22번〉은 관현악 편곡을 하지 못한 채 남겨졌지만, 우만스키의 편곡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바인베르크의 화려한 극적 구성과 그 안에 깃든 비장미가 잘 나타나는 걸작들이다. ***세계 최초 녹음**

Sono Luminus

www.rondeau.de

DSL 92195

아르테미시아가 들었던 음악들

넬 스나이다스, 셀린 리치, 제니퍼 캄파니(소프라노), 엘 문도, 리차드 사비노(지휘)

16~17세기 바로크 시대 유럽 각지의 음악을 모은 최고의 컬렉션

16~17세기의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와 카라바조가 활동했던 지역과 음악을 재구성한 독특한 앨범이다. 고음악 앙상블인 엘 문도는 젠틸레스키의 활동을 좇아 로마와 피렌체, 베네치아, 나폴리, 런던 등 바로크 시대 유럽 각지의 음악을 들려준다. 우첼리니의 흥미로운 '대전쟁'을 시작으로 로마에서는 건반음악의 거장 프레스코발디, 피렌체에서는 '아베마리아'로 유명해진 카치니, 베네치아에서는 오페라 탄생의 주역 몬테베르디, 나폴리에서는 루이지 로시, 런던에서는 니콜라스 라니어 등의 작품들과 내지에 그림들이 수록되어 훌륭한 컬렉션이다.

DSL–92194

'우리가 온 곳에서'(From Whence We Came)

앙상블 갈릴레이

우주망원경의 시대에서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

허블 우주망원경이 설치된 1990년, 한 악단이 창단되었다. 이들은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름을 악단 이름으로 삼았다. 이 음반에서 갈릴레이의 시대부터 그보다 대략 한 세기 뒤까지 등장한 음악들과, 이 시대 사람들이 당시의 정신으로 지은 곡들을 한데 묶었다. 율리언 파이프, 아일랜드 플루트, 켈트 하프 등 생소한 악기들이 자아내는 신비한 음향은 듣는 이를 수백 년 전의 세계로 곧장 데려다줄 것이다. 두 번째 장에는 같은 프로그램이 고음질을 자랑하는 퓨어오디오 블루레이 포맷으로 담겨 있다.

Alba

www.alba.fi

ABCD 332

비르투오소 첼로

셀리 토이비오(첼로), 칼레 토이비오(피아노)

저음의 따뜻한 음색으로 화려한 기교에 새로운 감성을 입히다

핀란드의 남매 음악가인 셀리 토이비오와 칼레 토이비오가 고난이도의 바이올린 작품들을 첼로로 연주했다. 파가니니의 '모세 환상곡'은 그의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작품 중 하나이며, 사라사테의 '치고이네르바이젠'과 '카르멘 환상곡'은 그의 가장 기교적인 바이올린 곡으로 손꼽힌다. 몬티의 '차르다슈'는 국내에서도 앵콜로 자주 연주되는 익숙한 헝가리 춤곡이다. 악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바이올린 곡을 첼로로 연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셀리는 어색함 없는 완벽한 연주와 저음의 따뜻한 음색으로 화려한 기교에 새로운 감성을 입혔다.

ABCD 314 [HYBRID SACD]

'공중부양' LEVITATION

크리스토페르 순드크비스트 & 쿨레르보 코요(클라리넷), 토미 알토(비올라) 외

인간 내면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클라리넷의 향연

본 음반에는 '부상(또는 부양)'을 주제로 내면의 상상에서부터 인간의 실존을 아우르고 있는 외트뵈시의 '공중부양', 일생 만년의 성찰이 담긴 닐센의 '클라리넷 협주곡'과 더불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통해 휴머니즘의 확립을 피력하고 있는 살리넨의 작품, '두 대의 클라리넷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이 담겨 있다. 인간의 목소리, 클라리넷이 역동적이고 그윽하게 표현하는 내면의 다양한 이미지들은 한누 린투와 오코 카무가 지휘하는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두루 머금으며 머리 위로 떠오른다.

Orchid Classics

www.orchidclassics.com

ORC100051

차이코프스키/ 스메타나: 피아노 삼중주

트리오 콘 브리오 코펜하겐

고급스러운 사운드와 안정된 조화에서 듣는 실내악의 아름다움

덴마크 코펜하겐을 근거지로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리오 콘 브리오' 삼중주단은 뮌헨 ARD 콩쿠르와 피렌체 '비토리오 기' 콩쿠르, 노르웨이 트론헤임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여 세계 정상의 앙상블임을 입증했다. 또한 덴마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P2 예술상'을 수상했으며, 코펜하겐 실내악 축제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차이코프스키와 스메타나의 삼중주곡을 수록한 이 음반에서 이들은 미세하게 조절된 현악기의 다이나믹과 낭랑한 피아노의 임팩트로 고급스러운 사운드와 안정된 조화를 만들며 두 작품이 지닌 실내악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Philharmonia

www.philharmonia-records.com

PHR 0104 [3 for 2]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전곡, 파가니니 광시곡

리즈 드 라 살(피아노), 필하모니아 취리히, 파비오 루이지(지휘)

필하모니아 취리히의 상주예술가로서 이룩한 최상의 하모니의 기록

리즈 드 라 살이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과 〈파가니니 광시곡〉을 수록했다. 1988년생인 그녀는 9세에 라디오 프랑스의 생방송으로 데뷔한 영재 출신이다. 2013~15년에 필하모니아 취리히의 상주예술가로서 수석지휘자인 파비오 루이지아 함께 매년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을 연주했는데, 이 음반은 바로 그 실황의 기록이다. 드 라 살의 연주는 한 음 한 음 선명하게 발현하면서도 낭만적 감수성을 깊이 담고 있다. 그래서 강렬한 표현과 다양한 다이나믹 속에서도 유연한 흐름을 유지하며, 오케스트라와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Royal Philharmonic Orchestra

www.rpo.co.uk

RPO SP 049

멘델스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로버트 다비도비치(바이올린),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제고슈 노바크(지휘)

베토벤과 멘델스존을 하나로 이은 노장 바이올리니스트의 예술혼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제자인 로버트 다비도비치는 초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흔히 베토벤과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지난 성격을 '아담'과 '이브'라는 말로 대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비도비치는 내지에서 베토벤의 협주곡이 멘델스존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연주에서도 두 곡 모두 긴 호흡으로 흐름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월에 로열 필하모니의 종신 객원 지휘자가 된 그제고슈 노바크는 명확하고도 단정한 반주로 다비도비치와 멋진 조화를 이룬다.

RPO SP 050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2집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닉 레인(지휘)

최고의 관현악 연주로 즐기는 영화음악의 대향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1집'으로 대호평을 받았던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닉 레인이 2집으로 돌아왔다. '드래곤 길들이기 2'부터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인셉션', '호빗 : 다섯 군대 전투' 등을 거쳐 '007 스카이폴'에 이르기까지 열세 개의 영화에서 추려낸 명장면의 사운드트랙을 지휘자 닉 레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편곡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연주했다. 무엇보다도 '겨울왕국'의 'Let it go'에서 노래 없이 관현악만으로 원곡의 강렬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라. 같은 곡이 얼마나 다르게 들릴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Tactus

www.tactus.it

TC 672259

비발디: 현을 위한 협주곡과 교향곡

라르키첼발로

시대악기의 고풍스러운 사운드와 비발디의 드라마틱한 표현이 돋보이는 연주

비발디는 수백 곡의 협주곡을 작곡하여 오늘날 협주곡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약 20곡의 교향곡을 작곡하여 한 세대 후에 교향곡이 꽃필 고전시대를 준비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고음악 앙상블인 라르키첼발로는 이러한 비발디의 협주곡과 교향곡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음반을 내놓았다. 독주와 합주가 돌아가며 연주한다는 의미의 '리토르넬로' 형식을 도입한 협주곡들과 모두 함께 연주한다는 의미의 교향곡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라르키첼발로는 시대악기의 고풍스러운 사운드와 비발디의 드라마틱한 표현이 돋보이는 뛰어난 연주를 들려준다.

TC 740001

케루비니: 두 개의 삼중주, 캄비니: 세 개의 삼중주 Op. 2

트리오 헤겔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파리에서 활동했던 두 작곡가의 현악삼중주곡

피렌체 출신의 케루비니는 파리에서 오페라 작곡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여섯 개의 사중주곡을 남길 정도로 현악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음반의 현악삼중주곡 역시 이러한 그의 역량이 훌륭히 발휘된 곡으로, 고전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초기 낭만의 정서가 배어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먼저 파리에서 활동했던 캄비니는 많은 수의 작품을 작곡했으며, 글룩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작품2의 세 개의 현악삼중주곡은 우아한 고전미에 오페라적인 극적 요소가 가미되어, 18세기 후반 파리에서 독보적인 위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Simax

www.grappa.no

시막스 클래식스는

클래식 음악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노르웨이의 전문 레이블입니다. 시막스는 음반을 통해 연주자와 감상자가 만난다는 생각으로, 1978년부터 최고의 음악가와 작곡가, 제작자, 음향기술자와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쌓인 신뢰로 시막스는 오늘날 전세계에서 예술가와 청중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PSC 1035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차이코프스키: 세레나데, 브리튼: 프랭크 브릿지 변주곡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 이오나 브라운(예술감독)

스칸디나비아 정상의 앙상블임을 확인시켜주는 완벽한 콘서트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오나 브라운은 헨리크 셰링의 제자로,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 LA 챔버 오케스트라,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에서 음악감독을 맡았던 앙상블의 명장이다. 노르웨이 챔버도 그녀의 주요 활동 단체 중 하나로, 이 음반을 통해 스칸디나비아 정상의 앙상블임을 확인시켜준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K137〉와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브리튼의 〈프랭크 브릿지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 폭넓은 표현력을 요구하면서도 정확한 앙상블을 이루어야 하는 작품들을 성공적으로 연주한 완벽한 콘서트이다.

PSC 1066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5번

리브 글라세르(피아노)

적절한 터치와 절제된 다이나믹으로 만들어낸 고풍스러운 연주의 모범

리브 글라세르는 레프 오보린과 빌헬름 켐프의 제자로서, 오슬로 음악원 교수 시절에 모차르트 연주법을 배우기 위해 파울 바두라-스코다와 말콤 빌슨을 사사받았을 정도로 모차르트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1번부터 5번까지의 다섯 곡의 피아노 소나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비교적 초기 작품들인 이곡들에서 적절한 터치와 절제된 다이나믹으로 고풍스러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모범적이며, 녹음 또한 명징한 소노리티를 담아내어 모차르트에 대한 글라세르의 애정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PSC 1147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삼중주 1번 & 2번, 블로흐: 세 개의 녹턴, 마르탱: 삼중주

그리그 삼중주단

노르웨이 대표 실내악단이 연주한 쇼스타코비치와 스위스의 두 거장 블로흐와 마르탱

그리그 삼중주단은 콜마르 국제 실내악 콩쿠르 우승팀이자 노르웨이 음악 평론가상을 수상한 노르웨이 대표 실내악단으로, 쇼스타코비치와 스위스의 두 거장 블로흐와 마르탱을 녹음했다. 쇼스타코비치의 〈삼중주 1번〉은 각 부분의 대비를 극대화하고 유명한 〈삼중주 2번〉은 빠른 템포를 완벽한 기교로 소화하여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극적 표현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블로흐의 〈세 개의 녹턴〉은 섬세한 현과 영롱한 피아노 연주가 돋보이며, 마르탱의 〈삼중주〉는 아일랜드 민요풍의 멜로디를 민속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깔끔하고 세련된 음악을 만든다.

PSC 1172

이국적인 기타 작품들

스테인-에리크 올센(기타)

국경을 넘나드는 이국적인 독특한 기타 작품들

노르웨이 기타리스트 스테인-에리크 올센이 독특한 기타음악을 모았다. 브라질 작곡가인 벨리나티의 〈종고〉는 기타를 두드리는 등 강렬한 아프리카 리듬을 들려준다. 슈테판 라크는 러시아 태생의 체코인 작곡가로, 다채로운 음악들을 수록했다. 감상적인 〈세 개의 러시아 왈츠〉와 앨범 타이틀인 〈몽골리아 소나타〉는 이국적인 색채가 물씬 풍긴다. 〈르네상스의 유혹〉은 르네상스 시대의 류트음악을 연상시킨다. 이탈리아 작곡가 도메니코니의 〈코윤바바〉는 터키풍의 장식음이 매혹적이며, 러시아 작곡가 코쉬킨의 〈어셔 왈츠〉는 어두운 긴장감이 감돈다.

PSC 1180

베토벤: 교향곡 4번 & 5번 '운명', 코리올란 서곡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 토마스 다우스고르(지휘)

실내악단의 가볍고 청량한 음색과 민첩함으로 이룩한 18세기적 베토벤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가장 큰 명성을 얻고 있는 실내악단으로서, 여러 음반상을 수상하여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토마스 다우스고르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지휘자 중 한 사람으로,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의 기념비적인 베토벤 관련 악 전곡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이 음반은 이 프로젝트로서 베토벤의 〈교향곡 4번〉과 〈교향곡 5번〉, 그리고 〈코리올란 서곡〉을 수록했다. 〈교향곡 4번〉의 영웅적인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교향곡 5번〉은 가볍고 청량한 음색과 남다른 민첩함으로 18세기적인 사운드로 풀어냈다.

PSC 1292
하이든/ 알비노니/ 후멜/ 네루다: 트럼펫 협주곡
티네 팅 헬세트(트럼펫),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

깔끔하고 청명한 사운드로 18세기의 기풍을 살린 신예 트럼페트리스의 연주
트럼페트리스 헬세트는 7세에 트럼펫을 시작하여 수많은 콩쿠르를 석권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다. 헬세트의 이 음반은 〈아다지오〉로 유명한 알비노니와 하이든과 후멜, 18세기 체코의 거장인 네루다의 협주곡을 수록했다. 그녀의 연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지녔으며, 깔끔하고 청명한 사운드로 팡파르와 같이 울려 퍼지는 금관악기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 오케스트라의 담백한 연주는 헬세트의 음색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며 18세기의 기풍을 살려낸다.

PSC 1277
처녀와 매춘부: 바흐와 피아졸라
페르 아르네 글로르비옌(반도네온), 스베이눙 릴레비예르카(바이올린), 아르눌프 발호른(베이스)

바흐와 피아졸라를 한 음반에 담아 반도네온의 역사를 그린 뜻 깊은 음반
반도네온은 독일에서 교회 성가를 연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세기 초 이민자들과 함께 남미로 넘어오면서 하층민의 저속한 춤인 탱고를 반주하기 위한 악기가 되었다. 노르웨이의 저명한 반도네온 연주자인 글로르비옌은 이러한 반도네온의 역사를 그리며, 독일 최고의 교회음악가인 바흐와 탱고 음악의 거장인 피아졸라를 한 음반에 담았다. 바흐는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 중 '전주곡과 푸가 a단조'와 〈바이올린 소나타 BWV1018〉 중 3악장 아다지오를, 피아졸라는 〈탱고의 역사〉와 〈상어〉를 비롯하여 네 개의 탱고 작품을 수록했다.

PSC 1252
Revisited – 더블베이스 작품집
단 스튀페(더블베이스), 안네 베닝(플루트), 외위스테인 비르셀란(첼로), 곤찰로 모레노(피아노)

게리 카를 사사한 유럽 정상의 베이시스트 단 스튀페가 연주하는 베이스 음악
단 스튀페는 스웨덴 출신의 더블베이스 연주자로, 저명한 베이시스트 게리 카를 사사했다. 그는 노르웨이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오슬로 필하모닉에서 활동한 이후로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 정상의 베이시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이 음반은 '탕고 누에보'로 유명한 피아졸라의 〈탱고 연습곡 4번〉을 비롯하여 그가 선호하는 독주곡과 실내악곡을 수록했다. 특히 셸시의 〈마크농간〉은 동양적인 신비가 가득한 주술사의 주술을 연상시키며, 크세나키스의 〈로스코벡〉은 우주에서 전해오는 사운드로 느껴질 정도로 환상적이며 역동적이다.

PSC 1063
쇼팽: 첼로 소나타/ 슈만: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외
트룰스 뫼르크(첼로),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피아노)

친구지간인 두 작곡가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해 쓴 작품 모음집
쇼팽의 '첼로 소나타'는 작곡가가 피아노 이외의 악기를 위해 쓴 거의 유일한 곡으로 풍부한 서정성을 지닌 작품이다. 슈만이 나흘 만에 작곡한 '아다지오와 알레그로'는 아다지오의 선율미와 알레그로의 약동감이 멋진 대비를 이루는 걸작이다. '민요풍 소품'과 '환상 소곡집, Op. 73'은 슈만의 전형적인 성격 소품으로, 악상의 성격에 따른 각 악장의 대비감이 잘 표현된 작품들이다. 둘 다 서정적인 연주로 정평이 있는 뫼르크와 안스네스는 여기서도 차분하고 깊이 있게 연주하며, 서로 상대를 잘 배려해 훌륭한 조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PSC 1267
하이든: 피아노 삼중주집
그리그 삼중주단

최고의 기량으로 작곡되고 연주된 하이든의 마지막 피아노 삼중주들
다른 대다수 실내악 장르와 마찬가지로 피아노 삼중주 역시 하이든 시대에 비로소 형식이 확립되었다. 대략 45곡에 달하는 그의 피아노 삼중주 가운데 여기 수록된 것은 1795~97년의 작품들로, 이 시기 이후 하이든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피아노 삼중주를 쓰지 않았다. 1987년에 창단한 이래 1989년에 콜마르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많은 상을 받은 그리그 삼중주단은 단순히 명확하고 단정하게 연주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이든 후기 작품의 특징인 완숙한 필치와 세련된 유머감각을 모범적으로 생생하게 포착해내고 있다.

PSC 1350
베토벤: 디아벨리 변주곡/ 하겐: 디아벨리 카덴차
잉그리드 안스네스(피아노)

디아벨리의 주제를 두고 이루어진 200년 간격의 대화
베토벤이 동료 작곡가이자 출판업자였던 안톤 디아벨리가 제시한 주제에 기초해 1823년에 작곡한 '디아벨리 변주곡'은 말년의 대작 중 하나이자 창의성이나 연주의 난이도 면에서 음악사상 작곡된 모든 변주곡 가운데서도 손꼽을 만한 작품이다. 1978년생 노르웨이 출신 연주자인 잉그리드 안스네스는 32번째 변주인 '푸가'에서 다음 변주로 이어지는 '포코 아다지오' 악구를 빼고 대신 노르웨이 작곡가이자 큐레이터인 라르스 페터 하겐이 쓴 '디아벨리 카덴차'를 집어넣었다. 이 '카덴차'가 드리우는 기이한 그림자는 마지막 변주의 활기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

PSC 1204
브람스: 교향곡 2번 & 3번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리스 얀손스(지휘)

얀손스와 오슬로 필하모닉의 황금기, 1999년 브람스 사이클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이 유럽 정상의 관현악으로 발돋움한 데에는 마리스 얀손스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는 1979년부터 2002년까지 23년간 오슬로 필하모닉을 이끌었으며, 이 음반은 높은 명성을 누렸던 시기인 1999년 브람스 사이클을 수록했다. 〈교향곡 2번〉은 밝고 화사한 음색이 인상적이며, 주요 주제를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듯한 낙천적인 모습으로 그렸다. 〈교향곡 3번〉은 고뇌에 부딪히며 도전하는 젊은이의 모습과 같이 패기가 있다. 특히 유명한 3악장은 비애로 가득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품고 있는 희로애락이 깃들어 있다.

PSC 1205
브람스: 교향곡 4번, 요아힘: 하인리히 4세 서곡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리스 얀손스(지휘)

얀손스 특유의 해석력이 빛나는 1999년 오슬로 필과의 브람스 사이클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이 유럽 정상의 관현악으로 발돋움한 데에는 얀손스의 공이 매우 컸다. 그는 1979년부터 23년간 오슬로 필을 이끌었으며, 이 음반은 큰 명성을 누렸던 시기인 1999년 브람스 사이클을 수록했다. 〈교향곡 4번〉은 브람스의 교향곡 중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터운 화음을 가진 곡으로, 얀손스는 특유의 해석력으로 가볍고 청량감 있게 풀어냈다. 특히 맑은 음색의 목관악기와 서사적인 현악은 귀를 사로잡는다. 브람스의 친구이자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요아힘의 〈하인리히 4세〉는 독일적인 기풍이 가득한 수작이다.

PSC 1187
그리그: 네 개의 시편, 홀베르그 칸타타 등
오슬로 필하모닉 합창단, 스테판 스콜(지휘)

풍부한 낭만적 감성을 가진 그리그의 사랑스러운 합창곡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작품은 〈페르 귄트〉와 〈피아노 협주곡〉, 〈홀베르크 모음곡〉, 세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등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상당한 수의 노래와 합창곡들을 작곡했다. 하지만 이들은 노르웨이어 가사를 갖고 있어서 노르웨이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못했다. 그의 노래와 합창들은 풍부한 낭만적 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속적인 친근한 선율과 심플한 화음으로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이 음반은 〈네 개의 시편〉, 〈홀베르그 칸타타〉 등 무게 있는 작품들과 가벼운 합창을 고루 수록했다.

PSC 1270
말러: 교향곡 1번 & 9번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리스 얀손스(지휘)

말러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시절 얀손스의 연주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이 오늘날 유럽 정상의 관현악단으로 발돋움한 데에는 얀손스의 역할이 지대했다. 그는 1979년부터 2002년까지 23년간 오슬로 필하모닉을 이끌었는데, 말러의 교향곡을 수록한 이 음반은 이 둘의 융합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9~2000년의 녹음이다. 얀손스는 〈교향곡 1번〉에서 절도 있는 리듬 위에 과장되지 않는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말러의 바흐에 대한 존경심이 엿보이기도 한다. 〈교향곡 9번〉에서는 삶을 관조하면서 여유를 만끽하며, 마지막 4악장은 여한 없는 평온 속에서 마무리한다.

PSC 1206
브람스: 교향곡 1번, 요아힘: 햄릿 서곡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리스 얀손스(지휘)

낭만적 인간으로서의 브람스의 모습을 만나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이 오늘날 유럽 정상의 관현악으로 발돋움한 데에는 마리스 얀손스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는 1979년부터 2002년까지 23년간 오슬로 필하모닉을 이끌었으며, 이 음반은 가장 높은 명성을 누렸던 시기인 1999년 브람스 사이클을 수록했다. 얀손스는 〈교향곡 1번〉을 안정되어있기 보다는 감성적인 흐름에 충실하게 연주하여, 낭만적 인간으로서의 브람스의 모습을 그려냈다. 함께 수록된 곡은 브람스의 친구이자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요아힘의 〈햄릿 서곡〉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섬세한 멜로디가 돋보인다.

PSC 1290 **[강력 추천/ 세계 최초 녹음]**
모차르트: 비올라 협주곡, 현악오중주
라르스 안데르스 톰테르(비올라),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 아르비 엥에고르(지휘)

원곡보다 더욱 자연스러운 클라리넷 협주곡과 클라리넷 오중주의 비올라 편곡
클라리넷은 현악기의 비올라로 대체되곤 하는데, 이 음반은 모차르트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곡 중 하나인 〈클라리넷 협주곡〉을 비올라 협주곡으로 편곡한 것이다. 이 편곡은 비올라를 독주로 사용했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연상시키며, 마치 본래 비올라를 위해 작곡한 곡인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다. 오히려 오케스트라의 현악 앙상블과 매혹적으로 조화되어 더욱 강한 호소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수록된 〈클라리넷 오중주〉의 비올라 편곡은 앙상블의 밸런스가 재조정되어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재탄생되었다.

PSC 1029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 2번, 일곱 개의 노래

트룰스 뫼르크(첼로), 유하니 라에르스페츠(피아노)

세계 정상의 첼리스트 트룰스 뫼르크가 27세 때에 남긴 브람스

1982년 차이코프스키 콩쿨 우승자인 세계 정상의 노르웨이 첼리스트인 트룰스 뫼르크 젊은시절 녹음들

브람스는 두 곡의 첼로 소나타를 남겼다. 1번은 32세 때 완성한 곡으로 무려 3년이나 걸렸으며, 2번은 53세 때 완숙한 시기의 작품이다. 1번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표현을 갖고 있다면, 2번은 아름다운 멜로디에 달관하는 여유가 깃들어있다. 이 음반은 1982년 차이코프스키 콩쿨 우승자인 세계 정상의 노르웨이 첼리스트인 트룰스 뫼르크가 27세 때에 연주한 것으로, 젊은 패기와 거침없는 해석을 들을 수 있다. 라예르스페츠는 같은 콩쿨에서 소련 작곡가 작품의 최고 해석상을 받은 피아니스트로, 첼로와 이중주로서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PSC 1058

프랑크, 드뷔시, 풀렝크: 첼로 소나타

트룰스 뫼르크(첼로), 호콘 에우스트뵈(피아노)

정상의 첼리스트 뫼르크의 연주로 듣는 19~20세기의 프랑스 낭만음악의 큰 흐름

19세기 프랑스는 정치적인 혼란기였다. 하지만 음악계는 착실히 프랑스 낭만음악의 내실을 다져왔는데, 그 절대적인 공헌자는 벨기에 출신의 세자르 프랑크였다. 그는 중요한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에르네스트 쇼송과 클로드 드뷔시도 그로부터 배웠다. 그 중에서도 20세기에 맹위를 떨친 작곡가는 드뷔시였다. 풀렝크 역시 드뷔시의 열렬한 팬이었다. 이 음반은 이 네 작곡가의 첼로 작품을 수록하여, 19~20세기의 프랑스 낭만음악의 큰 흐름을 접할 수 있다. 세계 정상의 첼리스트인 뫼르크가 28세 때 녹음한 패기 넘치는 앨범이라는 점도 큰 매력이다.

PSC 1078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 2번

트룰스 뫼르크(첼로),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 이오나 브라운(지휘)

하이든이 남긴 두 개의 첼로 협주곡을 트룰스 뫼르크의 연주로 듣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중에서 현재 두 곡이 전해지고 있다. 1번은 30대 초에 완성된 젊은 시절의 작품으로, 명료한 선율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관현악으로 오늘날 많이 연주되고 있다. 2번은 51세 때의 완숙한 시기의 작품으로, 보다 현란하고 장식적인 멜로디와 다양한 음색을 활용한 관현악에서 높은 완성도를 지닌다. 세계 정상의 첼리스트인 트룰스 뫼르크가 30세에 녹음한 이 앨범은 이러한 두 곡의 특징을 훌륭히 부각시키며, 흠 없는 완벽한 연주를 들려준다. 이오나 브라운은 헨릭 셰링의 제자로, 세인트 마틴-인-더-필즈의 예술감독 출신이다.

PSC 1288

패르트: 거울 속의 거울, 바스크스: 베이스 여행, 셰퍼: 아듀 등

단 스튀페(더블베이스),모레노(피아노),비르셀란(첼로),블록(비올라),발룸뢰(보컬),쇠렌센(타악기)

게리 카를 사사한 유럽 정상의 베이시스트 단 스튀페의 연주

스웨덴 출신의 단 스튀페는 저명한 베이시스트 게리 카를 사사했다. 노르웨이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오슬로 필하모닉에서 활동한 이후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 정상의 베이시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패르트의 유명한 〈거울 속의 거울〉은 더블베이스의 음색과 대비되어 피아노의 영롱한 음색이 두드러지며, 더블베이스는 음악공간을 배회한다. 바스크스의 〈베이스 여행〉은 멜랑콜릭한 선율과 중후한 초저음 화음으로 강한 흡인력을 지닌다. 셰퍼의 〈아듀〉는 서정적인 발라드로, 누구든 이 곡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PSC 1801

플라그스타드가 부르는 찬송가

키르스텐 플라그스타드(소프라노), 시그바르트 포틀란(오르간)

20세기 초 전설적인 바그네리안 소프라노가 부르는 소박한 성가

노르웨이 출신의 플라그스타드는 20세기 초 전설적인 바그네리안 소프라노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음반은 그녀가 오르간 반주로 부른 성가를 수록한 것으로, 61세 때인 1956년에 녹음되었다. 두터운 관현악을 뚫고 뻗어 나오던 영웅적인 목소리가 소박한 오르간 반주에 대중적인 성가를 부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만큼 이 음반은 플라그스타드에게 매우 뜻 깊은 음반이며, 또한 그녀의 순수한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단순한 노래에서도 짙은 호소력은 여전하며, '다 찬양하여라' 등 익숙한 찬송가도 여러 곡 들린다.

PSC 1147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삼중주 1번 & 2번/ 블로흐: 세 개의 녹턴, 마르탱: 삼중주

그리그 삼중주단

노르웨이 대표 실내악단이 연주한 쇼스타코비치와 스위스의 두 거장 블로흐와 마르탱

그리그 삼중주단은 콜마르 국제 실내악 콩쿠르 우승팀이자 노르웨이 음악 평론가상을 수상한 노르웨이 대표 실내악단으로, 쇼스타코비치와 스위스의 두 거장 블로흐와 마르탱을 녹음했다. 쇼스타코비치의 〈삼중주 1번〉은 각 부분의 대비를 극대화하고 유명한 〈삼중주 2번〉은 빠른 템포를 완벽한 기교로 소화하여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극적 표현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블로흐의 〈세 개의 녹턴〉은 섬세한 현과 영롱한 피아노 연주가 돋보이며, 마르탱의 〈삼중주〉는 아일랜드 민요풍의 멜로디를 민속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깔끔하고 세련된 음악을 만든다.

KKV

www.kkv.no

FXCD 415

SONDRE BRATLAND: Gje Meg Handa Di

손길을 내미네

노르웨이의 밥 딜런으로 불리는 손드레 블라트란드의 생애를 통 털어 고른 대표곡 모음집

손드레 블라트란드는 노르웨이의 밥 딜런으로 불리며 나라를 대표하는 원로 성가 가수이자 왕립음대 명예 교수이다. 민속음악을 보전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수장으로 지방정부를 오가며 교회와 시민의 음악적 유대, 정통 포크음악의 보급에 생애를 바쳤다. 그의 생애를 통 털어 대표곡들을 모은 베스트 음반집. 이 컬렉션을 명프로듀서 에릭 힐스타드가 진행했고, 두장의 CD에 푸른 숲의 기운을 온전히 담아냈다. 도합 29곡의 포크송, 성가, 합창은 얇게 쌓인 숫눈을 밟고 갔던 데뷔 무렵부터 심해의 침묵까지도 노래하는 칠순이 넘은 가수의 격정에 찬 결말을 통째 들려주고 있다. 정교한 녹음과 오래된 고교회의 공명, 육중한 인간의 음성이 맑은 기타와 피아노, 오르간, 전통악기들에 휩싸여 무리를 지어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떼를 보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게 만든다.

FXCD 418

JUL PÅ ORKESTERPLASS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하는 크리스마스

성야곱교회에서 5명의 가수들이 부른 캐럴과 국영라디오방송 오케스트의 황홀한 연주

성야곱교회에서 이루어진 다섯명의 가수들과 함께한 오케스트라 연주로 부른 크리스마스 캐럴 콘서트 실황 녹음. 솔베이지 슬래타엘 , 아니타 스코르간, 림 바나, 리카르드 볼프와 손드레 블라트란드를 비롯 위대한 가수들의 목소리에 노르웨이 국영라디오방송 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연주가 보태졌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홍색 꽃",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작은 순교자의 노래" "베들레헴에서" 등의 우리도 잘 아는 북국의 캐럴들이 유성우처럼 쏟아지는 이 앨범은 입 안 가득 퍼지는 사탕의 달큼함을 선물한다.

FXCD 412

FABLER OM EN ÅPEN KIRKE

시간과 교회의 이야기

노르웨이 성가 가수 13명이 부른 전통 성가와 꿈과 사랑의 노래들. 북구 가스펠 음악의 결정판

우리도 잘 아는 케롤라인 크루거, 헤닝 소메로, 아이다 마리아, 시그라르트 닥스란트, 린스코베 등이 전통 성가를 비롯하여 꿈과 사랑, 웨딩 송을 노래했다. 이 기획 음반의 시작은 교회 성직자단에 집중된 구조를 개혁하여 국민과 대중에게 낮게 내려가는 교회, 중앙권력과의 밀착을 막으며 교회다움을 야성을 되찾자는 캠페인의 시작에서 비롯되었다. 노르웨이 국가교회의 개혁을 진행하며 교회음악이 이를 엄호하고 후견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담아낸 음반이다. "크레도", "어머니인 하느님", "문을 열고", "길르앗의 밤", "나를 위하여", "모든 노래" 등의 노르웨이 전통성가들이 현대적인 연주, 오르간, 기타, 피아노의 선율에 차분하게 담겨졌다. 켜켜이 암울한 시절에도 노래는 빛나고 빛난다. 가볍게 나는 새보다는 묵묵한 낙타의 생이 감동을 주는 것처럼 생의 고난을 끌어안은 인간의 성가란 종교의 다름이나 유무와 관계없이 큰 울림과 눈물을 안겨준다. **생을 요동치게 만드는 성가들을 골고루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C Major Entertainment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32208 **[DVD]**
C Major 732304 **[Blu-ray]**

베르디: 아이다

크리스틴 루이스(아이다)/ 파비오 사르토리(라다메스)/ 아니타 라흐벨리쉬빌리(암네리스)/ 마티 살미넨(람피스) 외/ 주빈 메타/ 밀라노 알라 스칼라

라 스칼라 관객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킨 페터 슈타인의 최신 프로덕션

〈아이다〉는 베르디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작품이다. 카이로에서의 초연 이후, 유럽에서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된 곳은 바로 밀라노 라 스칼라였다. 〈아이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극장의 핵심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오페라로 까다로운 눈높이의 라 스칼라 관객들을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2015년에 처음 공개된 페터 슈타인의 프로덕션은 객석과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다. 슈타인은 스펙터클 오페라의 대명사와도 같은 이 작품을 색다른 각도에서 조망하였다. 고대 이집트의 이미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간결하고도 상징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각 인물들의 심리묘사와 내밀한 연기 앙상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연출이다. 주빈 메타의 지휘는 노거장의 관록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흑인 프리마 돈나 크리스틴 루이스와 이탈리아의 중견 테너 파비오 사르토리가 남녀 주인공을 열연하였다. 어느덧 70줄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활약을 보여주는 마티 살미넨의 모습도 반갑다.

[보조자료]

– 베르디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작 〈돈 카를로〉를 완성한 이후 한 동안 칩거생활에 들어갔다. 카이로의 케디브 오페라하우스의 건축을 기념하기 위해 이집트 정부는 베르디에게 새로운 작품을 위촉하였고, 베르디는 몇 번의 거절 끝에 이 작품에 착수하였다. 고대 이집트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의 리브레토는 안토니오 기슬란초니가 완성하였는데, 작품의 원작은 프랑스의 이집트학자였던 아우구스트 마리에트가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혹자는 테미스토클레 솔레라의 작품이라는 이견도 내놓고 있다. 초연은 1871년 12월 24일 카이로에서 펼쳐졌다. 〈아이다〉는 원숙기의 베르디가 작곡한 명작답게 다른 작품과 구분되는 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1막과 2막을 화려한 볼거리로 치장한 다음 3막과 4막에서 역대 어느 오페라보다도 깊이 있는 휴먼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것에 있다. '개선행진곡'에만 열광하는 관객은 후반부가 지루하다고 할지 모르나, 오페라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3막과 4막이야말로 베르디 오페라의 진수로 평가한다.

– 오페라와 연극 양쪽 모두에서 세계적인 거장 연출가로 존경을 받고 있는 페터 슈타인은 1937년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뮌헨대학에서 ETA 호프만의 작품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무대에 대한 갈망은 결국 그를 연극연출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이후 오페라연출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는데, 대표적인 오페라 프로덕션으로는 1996년 불레즈의 지휘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공연되었던 〈모세와 아론〉, 역시 잘츠부르크에서 각각 2011년과 2013년에 공연되었던 〈맥베스〉와 〈돈 카를로〉 등이 있다. 슈타인은 2008년 유럽 위원회(EC)가 수여하는 Europe Theatre Prize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C Major 731608 **[DVD]**
C Major 731704 **[Blu-ray]**

모차르트: 다윗의 회심

크리스티아네 카룩(sop)/ 마리안네 크레바사(ms)/ 스타니슬라스 데 바르베이락(te)/ 마르크 민코프스키/ 르 뮈지시엥 뒤 루브르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마장마술의 놀라운 세계

'다윗의 회심'(Davide Penitente)은 모차르트가 완성한 몇 안 되는 오라토리오(혹은 칸타타) 장르의 작품이다. 1785년 빈 음악가협회는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젊은 천재 작곡가에게 자선콘서트용 작품을 위촉하였고, 그 결과로 탄생한 작품이 바로 '다윗의 회심'이다. 모차르트는 이를 위해 자신의 미완성 작품인 미사 C단조의 키리에와 글로리아를 재활용하였고, 두 개의 근사한 아리아들(A te, fra tanti affanni와 Tra l'oscure ombre funeste)을 추가했다. 본 영상물은 2015년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트 주간(Mozartwoche)에 Felsenreitschule에서 펼쳐졌었던 특별한 공연실황을 담은 것이다.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과 마장마술의 우아한 매력을 결합시킨 이 콘서트는 과거 승마학교로 사용되었던 이 공간의 원형을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세계적인 마장마술 예술가인 바르타바스가 안무와 연출을 맡았고, 그가 설립한 베르사유 마장마술 아카데미의 말과 기수들이 혼연일체로 놀라운 마장마술의 묘기를 선보인다. 마르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이 섬세하게 빚어낸 음악적 성과 또한 대단히 훌륭하다.

[보조자료]

– '다윗의 회심'은 구약의 시편들을 편집한 사베리오 마테이의 이탈리아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모차르트가 완성한 오라토리오(혹은 칸타타) 장르의 종교합창곡이다. 빈 음악협회(Wiener Tonkunstler–Societat)의 위촉으로 완성된 이 작품은 1785년 3월 13일 빈의 궁정극장(Burgtheater)에서 초연되었는데, 작품의 상당부분은 미완성상태로 남겨져있던 자신의 이전 작품인 대미사 c단조를 재활용한 것이다. 두 개의 아리아(A te, fra tanti affanni와 Tra l'oscure ombre funeste)가 특히 빼어나며, 다섯 개의 걸출한 합창곡과 목관을 적극 활용한 관현악 반주 등에서도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드러난다.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주요 공연장으로 우리에게도 낯익은 공간인 Felsenreitschule은 '암벽 승마학교'라는 이름 그대로 과거 잘츠부르크 대주교의 승마연습장으로 사용되던 암벽구조물을 대규모 공연장으로 개축한 건물이다. 1693년 잘츠부르크 대주교 요한 에른스트 폰 툰은 잘츠부르크대성당의 건축에 사용된 석재를 파내고 남은 채석장의 잔해를 이용하여 승마연습장을 완성하였다. 암벽을 뚫어서 만든 3개 층의 아케이드는 관람석의 역할을 하였는데, 1926년 이 장소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위한 공연장으로 개축된 이후에는 이들 아케이드 구조물은 자연스레 무대의 독특한 배경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바로 옆에는 1956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주도로 건축된 축전대극장(Gross Festspielhaus)이 위치하고 있다.

– 바르타바스(Bartabas)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마장마술 예술가이자 말 조련사인 클레멩 마르티(Clement Marty)의 예명이다. 그는 1998년부터 마장마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공연예술을 시작하였으며, 'Mazeppa'(1993년)나 'Chamane'(1995년) 등과 같은 스펙터클한 마장마술 퍼포먼스가 삽입된 영화들에도 출연하여 자신의 놀라운 재능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그는 2002년에 베르사유 궁전 내에 마장마술 교육기관인 Academie Equestre de Versailles를 설립하기도 했다.

C Major 732908 **[9 DVDs]**
C Major 733004 **[5 Blu-ray]**

핫 이슈!!!

파보 예르비의
말러 교향곡 프로젝트 완결기념

* 스페셜박스 (9 DVDs, 5 Blu-rays for 2.5 price)
* 각 교향곡에 대한 파보 예르비의 육성해설 〈한글자막〉
* 특별한 가격

[구성]

***말러: 교향곡 1번, 교향곡 2번 [한글자막]**
카밀라 틸링(sop)/ 릴리 파시키비(ms)/ 파보 예르비/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718008 (2DVD) / 708104 (Blu-ray)

파보 예르비와 HR-신포니가 함께 완성한 말러 교향곡 프로젝트의 제1탄
파보 예르비는 2013/14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역임했던 HR-신포니오케스트라(구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에서 물러났다. 그가 재임기에 완성했던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의 하나가 영상물로 등장하였다. 예르비와 HR-신포니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라인가우 무지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였는데, 그 공연실황들이 C Major를 통해서 차례로 영상물로 출시될 예정이다. 그 첫 출시작인 본 신보에는 말러의 교향곡 1번과 교향곡 2번 '부활'이 함께 수록되었다. 교향곡 1번은 2012년 8월 23일 비스바덴 쿠어하우스의 프리드리히-폰-티에르슈-잘에서 있었던 실황이고, 교향곡 2번은 2010년 6월 26/7일 에버바흐 수도원에서의 실황을 편집 수록한 것이다. 특히 교향곡 2번은 거대한 로마네스크 바실리카 건물인 에버바흐 수도원의 광활한 공간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울림이 작품의 장대한 스케일과 종교적인 엄숙함을 더 한층 돋보이게 만든다. 교향곡 2번 성악 파트의 텍스트는 물론, 각 교향곡에 대한 파보 예르비의 육성 해설에도 한글자막이 첨부되었다.

***말러: 교향곡 3번, 교향곡 4번 [한글자막]**
발트라우트 마이어(ms)/ 게니아 퀴흐마이어(sop)/ 파보 예르비/ HR 신포니오케스터
719108 (2DVD) / 719204 (Blu-ray)

파보 예르비와 HR-신포니가 함께 완성한 말러 교향곡 프로젝트의 제2탄
파보 예르비는 2013/14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역임했던 HR-신포니오케스트라(구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에서 물러났다. 그가 재임기에 완성했던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고품질의 영상물로 등장하였다. 예르비와 HR-신포니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라인가우 무지크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였는데, 그 공연실황들이 C Major를 통해서 차례로 영상물로 출시되고 있다. 두 번째 출시작인 본 신보에는 이른바 '뿔피리 3부작'의 마지막 두 작품인 교향곡 3번과 교향곡 4번 '부활'이 함께 수록되었다. 두 교향곡 모두 에버바흐 수도원에서 공연된 것으로, 교향곡 3번은 2007년 6월, 교향곡 4번은 2008년 6월의 기록이다. 두 교향곡의 세부를 잘 다듬어낸 예르비의 섬세한 연출력과 더불어, 발트라우트 마이어의 중후한 저음과 게니아 퀴흐마이어의 깨끗한 미성이 두 교향곡의 캐릭터를 더 한층 돋보이게 만든다. 두 교향곡에 삽입된 성악 파트들의 텍스트는 물론이거니와, 각 교향곡에 대한 파보 예르비의 육성 해설에도 한글자막이 첨부되었다.

***말러: 교향곡 5번, 교향곡 6번 [한글자막]**
파보 예르비/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729308 (2DVD) / 729404 (Blu-ray)

파보 예르비와 HR-신포니가 함께 완성한 말러 교향곡 프로젝트의 제3탄
파보 예르비는 2013/14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역임했던 HR-신포니오케스트라(구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에서 물러났다. 그가 재임기에 완성했던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고품질의 영상물로 등장하였다. 예르비와 HR-신포니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라인가우 무지크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였는데, 그 공연실황들이 C Major를 통해서 차례로 영상물로 출시되고 있다. 세 번째 출시작인 본 신보는 말러가 '뿔피리 삼부작'을 완성하고 나서 다시 순수 기악 교향곡으로 회귀했던 시절에 완성했던 두 편의 묵직한 교향곡들을 함께 담고 있다.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사용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아다지에토'를 담고 있는 교향곡 5번과 어마어마한 나무망치의 타격으로 유명한 교향곡 6번 '비극적'이 그것이다. 두 교향곡 모두 에버바흐 수도원에서 연주된 것으로, 교향곡 5번은 2011년, 교향곡 6번은 2013년의 기록이다. 두 교향곡의 핵심 요소들을 설명하는 예르비의 육성해설도 흥미롭다.

***말러: 교향곡 7번, 교향곡 8번 [한글자막]**
에린 웰(sop), 알리스 쿠트(ms), 샬로테 헬레칸트(alt), 니콜라이 슈코프(te), 에인 앵거(bass) 외/ 브루노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 외/ 파보 예르비/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729508 (2DVD) / 729604 (Blu-ray)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는 말러 교향곡 8번의 장대한 위용

파보 예르비는 2013/14 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역임했던 HR-신포니오케스터(구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C Major에서는 그가 재임기에 완성했던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의 하나인 말러 교향곡 시리즈를 최고 품질의 영상물로 차례로 발매 중이다. 시리즈의 4탄인 본 신보에는 'Nachtmusik'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독특한 두 악장이 포함된 순수 기악 교향곡인 교향곡 7번과 '천인의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전대미문의 방대한 스케일의 칸타타 풍의 작품인 교향곡 8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교향곡 7번은 2011년 8월 12일 비스바덴 쿠어하우스의 프리드리히-푼-티에르슈-잘에서 있었던 실황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고, 교향곡 8번은 2013년 5월 24/25일 프랑크푸르트 알테오퍼에서 있었던 두 번의 실황을 편집 수록한 것이다. 특히 교향곡 8번의 장대한 위용을 한글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본 신보의 등장은 많은 말러리안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영상으로 제공되는 각 교향곡에 대한 예르비의 육성 해설에도 한글자막이 제공된다.

말러: 교향곡 9번, 교향곡 10번 중 '아다지오' [한글자막]

파보 예르비/ HR-신포니오케스터

729708 (DVD) / 729804 (Blu-ray)

파보 예르비와 HR-신포니가 함께 완성한 말러 교향곡 프로젝트의 완결작

파보 예르비는 2013/14 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역임했던 HR-신포니오케스터(구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가 재임기에 완성했던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의 하나인 말러 교향곡 시리즈가 최고 품질의 영상물로 차례로 발매 중이다. 시리즈의 최종작인 본 신보에는 말러가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교향곡인 9번과 교향곡 10번 중에서 유일하게 완성된 악장인 1악장 '아다지오'가 함께 수록되었다. 교향곡 9번은 말러가 현세에 남기는 고별사와도 같은 걸작으로, 특히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듯한 마지막 악장의 감동이 각별하다. 미완성 상태의 유작인 교향곡 10번은 후대에 여러 작곡가들의 저마다의 완성본을 내놓고 있지만, 예르비는 말러가 마무리한 진정한 마지막 작품인 '아다지오' 악장만을 본 사이클에 포함시켰다. 두 작품 모두 에버바흐 수도원에서의 콘서트를 수록한 것으로 교향곡 9번은 2009년 6월, '아다지오'는 2008년 6월에 녹화된 영상이다. 교향곡 9번과 말러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예르비의 육성 인터뷰가 한글자막과 함께 수록되었다.

C Major 734108 **[DVD]**
C Major 734204 **[Blu-ray]**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VOL.1

베토벤 소나타 1번, 10번, 13번 '환상곡에 준하여', 17번 '템페스트', 18번 '사냥',
베토벤 소나타 5번, 12번, 22번, 4번, 14번 '월광'
루돌프 부흐빈더 (피아노)

칠순을 앞둔 베토벤 전문 피아니스트의 위업

2014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행사 중의 공연으로 8월 3~4일 모차르트테움 대 공연장 실황.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사이클 완주를 시도한 피아니스트는 루돌프 부흐빈더 이전에 아무도 없었다. 체코 출신으로 10세 때 베토벤의 협주곡으로 데뷔한 이래 수십 년을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살아온 그는 칠순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기량이 쇠퇴한 기색이 전혀 없이 대가다운 음악성으로 곡의 분위기에 따라 어린이 같은 순진무구함에서 깊은 내적 성찰과 격렬한 감정적 동요까지 막힘없이 유창하게 오가는 연주를 들려준다.

[보조자료]

– 1946년생인 루돌프 부흐빈더는 체코 태생이지만 출생 직후 빈으로 이주했다. 다섯 살 때부터 빈 음악 아카데미에서 피아노를 배웠으며 열 살 때 베토벤의 협주곡으로 공식 데뷔했다. 1961년에 빈 삼중주단의 일원으로서 뮌헨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래 실내악과 독주 양면으로 꾸준히 활발하고 있으며, 특히 그의 베토벤 해석은 정평이 나 있다.

– 이 영상물은 2014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8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모차르테움 대공연장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은 것이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사이클 완주를 시도한 피아니스트는 부흐빈더 이전에 아무도 없었으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흐빈더의 공연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 부흐빈더는 칠순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전혀 기량이 쇠퇴한 징후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이따금 모차르트의 후기 소나타를 연상케 하는 단정하고도 명징한 스타일로 악상에 따라 어린이 같은 순진무구함에서 깊은 내적 성찰은 물론이고 격한 감정적 동요까지 자유롭게 오가면서 막힘없이 유창하게 연주한다. 평생을 음악에, 그리고 베토벤에게 헌신한 노대가의 진면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C Major 733108 **[2DVD]**
C Major 733204 **[Blu-ray]**

베버: 마탄의 사수

아드리안 에뢰드(오토카르)/ 알버트 도멘(쿠노)/ 사라 야쿠비아크(아가테)/ 작센 국립 오페라/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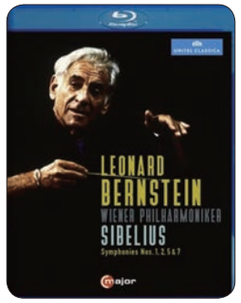
20세기 라 스칼라를 이끌었던 주역들의 공연과 함께 육성 인터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2015년 5월에 드레스덴의 젬퍼오퍼에서 공연된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를 수록했다. 서곡의 시작과 함께 혼이 연주하는 선율이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에 사용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오페라는, 독일의 전설을 소재로 하는 극 중심의 진행으로 진정한 독일 낭만 오페라의 첫 발걸음으로서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영상물에 수록된 공연은 악셀 쾰러의 프로덕션으로, '디 프레세'로부터 "드레스덴의 작은 기적"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쾰러는 '잘츠부르거 나흐리히텐'에서 "과녁의 중앙을 맞췄다"로 말했다. 그는 이 공연에서 침울하고 사악한 드라마로 해석하면서 사랑과 유혹, 악마에게 팔린 영혼, 집착, 믿음 등 다양한 키워드를 살렸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오케스트라 피트로부터 죽음의 테러를 감행했다. 틸레만은 모든 상세한 부분을 지시했다. 그래서 더욱 눈을 뗄 수 없었다."고 절찬했다. 쾰러는 무대를 전쟁 직후의 혼란의 시대로 설정했다. 1945년 2월 드레스덴 폭격 70주년과 이로 인한 젬퍼오퍼의 파괴 후 재개관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당시 드레스덴이 처했던 암울한 상황을 연상케 한다.

[보조자료]

– 드레스덴 국립 오페라가 제작한 〈마탄의 사수〉의 어떤 프로덕션도 특별한 의미를 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베버가 드레스덴에서 카펠마이스터로 있었으며, 또한 이곳에서 〈마탄의 사수〉에 대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곡은 드레스덴에서만 1500번 공연되었으며, 드레스덴 국립 오페라는 세계의 어떤 오페라단보다도 이 곡을 가장 많이 무대에 올렸다. 〈마탄의 사수〉는 드레스덴 국립 오페라가 1945년 2월 연합군의 폭격으로 도시가 파괴되기 전 마지막으로 공연된 작품이기도 하다. 폭격으로 파괴된 오페라 극장은 1985년이 되어서야 재개관이 되었으며, 그 첫 작품 역시 〈마탄의 사수〉였다.

– 폭격 70주년과 젬퍼오퍼의 재개관 30주년을 맞아 2015년 5월 1일에 〈마탄의 사수〉의 새로운 프로덕션을 선보였다. 연출은 악셀 쾰러로, 유명한 카운터네너이자 현재는 할레 오페라의 감독이기도 하다.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2012년부터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베버가 있었던 직책의 후임이기도 하다.



C Major 732404 **[Blu-ray]**

시벨리우스: 교향곡 1, 2, 5, 7번

레너드 번스타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번스타인의 미완성 시벨리우스 사이클

번스타인 마니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값진 영상이 Blu-ray로 발매되었다. 번스타인은 1980년대 후반 빈 필하모닉과 더불어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전집에 착수했었다. 1986년 교향곡 2번을 시작으로 매년 한 작품씩 무지크페라인 홀에서 콘서트실황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으며, DG와 Unitel에서 각각 CD와 영상물로 출반되었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1990년 2월 교향곡 1번의 녹화가 완료된 이후 더 이상 이 사이클은 진행되지 못했다. 그해 10월 14일 72세를 일기로 번스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시벨리우스의 일곱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들인 1,2,5,7번의 녹음이 완료되었다는 점이다. 번스타인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빈 필의 비단결 같은 소노러티가 조화를 이룬 이 미완성의 시벨리우스 사이클은 음반으로서도 크게 호평을 받았던 번스타인 만년의 역작이었다. 그 감동이 영상을 통해 또 다시 우리 곁으로 생생하게 찾아 올 것이다. 번스타인의 팬들은 물론, 시벨리우스 애호가들이라면 반드시 갖춰야할 필수 아이템으로 적극 추천한다.

C Major 732708 **[2DVD]**
C Major 732804 **[Blu-ray]**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발레 버전

함부르크 발레단/함부르크 필하모니 슈타츠오케스트라/ 알레산드로 데 마르키(지휘)

발레를 통해 새롭게 조명한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존 노이마이어가 연출한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발레 버전을 함부르크 발레단의 공연을 담은 영상물로서 2014년 12월 25~29일의 공연실황을 담고 있다. 1942년 미국 위스콘신 출생의 존 노이마이어는 무용수이자 안무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요한 발레 예술가로서 1973년부터 함부르크 발레단의 감독이자 수석 안무가로, 1996년부터는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의 발레 감독으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그가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에서 무용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진실과 희망, 믿음, 의심, 자기희생 등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한 우리 인간의 경험이다.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인간 본연의 욕구와 표현을 보여주고자 한 노이마이어의 연출을 통해 우리는 바흐의 오라토리오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5년전에 발매되었던 노이마이어–함부르크 발레단의 바흐 마태 수난곡 연출에 이은 두 번째 작품으로서, 항상 고전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인간 고유의 의미를 발견해온 노이마이어의 진정한 예술혼을 경험할 수 있는 회심의 프로덕션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C Major 733908 **[2DVD]**
C Major 734004 **[Blu-ray]**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20번, 21번, 27번

루돌프 부흐빈더(피아노 겸 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부흐빈더, 자동차 공장에서 모차르트를 연주하다

2015년 6월 15~17일 드레스덴 공연 실황. 2016년 12월에 칠순이 되는 부흐빈더는 예전부터 베토벤과 모차르트 해석의 최고 권위자로 꼽혀 왔으며, 고전파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은 지휘까지 겸해 연주한다는 철칙을 고수하는 드문 연주자이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지휘를 겸하는 독주자에게 부여하는 'Capell-Virtuos' 칭호를 처음 받은 사람이기도 한 부흐빈더는 세 곡 모두에서 절정의 원숙함으로 명징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주를 들려준다. 3분여의 보너스 영상에는 연주장소인 폴크스바겐 공장에서 연주회를 열게 되기까지 준비 과정이 담겨 있다.

[보조자료]

– 1946년생인 루돌프 부흐빈더는 체코 태생이지만 출생 직후 빈으로 이주했다. 다섯 살 때부터 빈 음악 아카데미에서 피아노를 배웠으며 열 살 때 베토벤의 협주곡으로 공식 데뷔했다. 1961년에 빈 삼중주단의 일원으로서 뮌헨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래 실내악과 독주 양면으로 꾸준히 활발하고 있으며, 특히 그의 모차르트와 베토벤 해석은 정평이 나 있다.

– 이 DVD는 2015년 6월 15~17일에 걸쳐 드레스덴에 있는 폴크스바겐의 '유리 공장'(Die Glaserne Manufaktur)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은 것이다. 부흐빈더는 고전파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은 지휘까지 겸해 연주한다는 철칙을 고수하는 드문 연주자로, 베토벤의 '황제'처럼 다루기 어려운 대곡까지도 연주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지휘와 독주를 겸하고 있다. 여기서도 그는 세 곡 모두 독주와 지휘를 겸해 연주하며, 절정에 다다른 원숙함으로 단정하고 명료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주를 들려준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일찍이 지휘를 겸하는 독주자에게 부여하는 칭호인 'Capell-Virtuos' 칭호를 맨 처음으로 부여했던 부흐빈더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 연주하고 있다. 3분여의 보너스 영상에는 연주장소인 폴크스바겐 공장에서 연주회를 열게 되기까지의 준비 과정, 다시 말해 자동차 공장이라는 이질적인 공간이 훌륭한 연주회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Naxos

www.naxos.com

Naxos 2.110370 **[DVD]**

All Star Orchestra Programs 9 & 10

거쉰: 랩소디 인 블루/ 코플랜드: 극장을 위한 음악/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롤라 아스타노바(pf)/제러드 슈워츠/ 올스타 오케스트라

오리지널 재즈밴드 버전 '랩소디 인 블루'와 데이비드 김의 솔로를 담은 '세헤라자데'

올스타 오케스트라는 이름 그대로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뮤지션들이 모여서 결성했던 비상설 오케스트라이다. 시애틀 심포니를 미국의 정상급 악단으로 성장시켰던 제러드 슈워츠의 지휘봉 아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악장 데이비드 김을 비롯한 미국 22개 주의 30개 이상의 악단의 연주자들이 클래식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시리즈 영상물을 녹화한 것이다. 여덟 편의 프로그램을 나누어 담은 네 종의 DVD가 지난 2013년에 선보였던 것에 이어서 네 편의 프로그램이 추가로 출시되었다. 본 DVD에는 아메리칸 클래식의 대명사와도 같은 작품들인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와 코플랜드의 '극장을 위한 음악'과 함께, 9/11의 비극을 추도하는 로버트 비저의 작품 '그라운드 제로'를 함께 담은 9편과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를 담은 10편이 함께 수록되었다. 쉽게 접하기 힘든 '랩소디 인 블루'의 오리지널 재즈밴드 버전을 담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세헤라자데'를 이끌어가는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김의 활약상도 놓칠 수 없다.

Naxos 2.110371 **[DVD]**

All Star Orchestra Programs 11 & 12

R.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모차르트: 포스트혼 세레나데/ 존스: 바이올린협주곡

안느 아키코 마이어즈(vn)/ 제러드 슈워츠/ 올스타 오케스트라

전설적인 명기 과르네리 델 제수 '비외탕'으로 연주한 사무엘 존스의 바이올린협주곡

올스타 오케스트라는 이름 그대로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뮤지션들이 모여서 결성했던 비상설 오케스트라이다. 시애틀 심포니를 미국의 정상급 악단으로 성장시켰던 제러드 슈워츠의 지휘봉 아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악장 데이비드 김을 비롯한 미국 22개 주의 30개 이상의 악단의 연주자들이 클래식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시리즈 영상물을 녹화한 것이다. 여덟 편의 프로그램을 나누어 담은 네 종의 DVD가 지난 2013년에 선보였던 것에 이어서 네 편의 프로그램이 추가로 출시되었다. '음악 속에서의 영웅의 생애'라는 타이틀의 프로그램 11은 제목 그대로 R. 슈트라우스를 대표하는 관현악 걸작인 '영웅의 생애'를 데이비드 김의 솔로와 함께 담고 있으며, 열두 번째 프로그램인 '모차르트와 세계초연'에서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9번 '포스트혼'과 더불어 사무엘 존스의 바이올린협주곡을 바올리니스트 안느 아키코 마이어즈가 연주하는 전설적인 명기 과르넬리 델 제수 '비외탕'의 빼어난 사운드로 만나볼 수 있다.

Accentus Music

www.accentus.com

Accentus ACC 20309 **[DVD]**
Accentus ACC 10309 **[Blu-ray]**

말러: 교향곡 7번 '밤의 노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리카르도 샤이(지휘)

샤이-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새 역작, 말러 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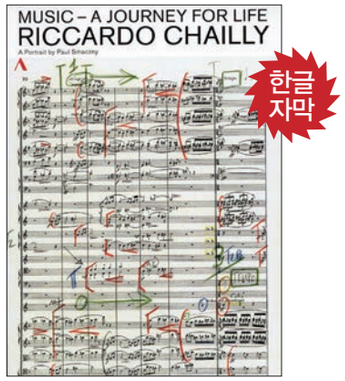
2014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2014년 2~3월 실황. '교향곡 7번'은 일반적으로 말러 교향곡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한 곡으로 여겨지지만, 쇤베르크는 초연 직후에 말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악장이 마음에 들었으며, 내 주의를 끌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모든 것이 실로 투명하며, 항상 주요 선율선을 따라갈 수 있었다."고 썼다. 모든 성부를 명확하게 강조하면서도 짜임새를 두텁지 않게 처리하는 샤이의 명쾌하고도 확신에 찬 해석은 분명 쇤베르크의 견해와 궤를 같이하며, 이 영상물을 보고 나면 여러분도 샤이와 쇤베르크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보조자료]

– "이 곡은 내 최고 걸작이며, 근본적으로 명랑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말러가 자신의 '교향곡 7번'을 작곡한 직후에 말한 이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상당수 음악 애호가가 이 곡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으며 이 곡을 말러의 모든 교향곡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한 곡으로 꼽는 데 주저치 않는다. 그러나 쇤베르크는 1909년에 이 곡이 초연된 직후 말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열광적인 어조로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이제 완벽하게 당신 편입니다. 어느 악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냐고요? 모두 다요! 도저히 그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군요. 제 주의를 끌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맨 끝까지 완벽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로 투명하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처음 듣자마자 형식이 실로 정치하게 다루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항상 주요 선율선을 따라갈 수 있었고요. 그것은 제게 비상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 쇤베르크의 확신에 찬 단언이 아니더라도 이 곡만이 지니는 매력은 많다. 말러가 직접 붙인 제목은 아니지만 종종 '밤의 노래'로 불리는 이 곡은 2악장과 4악장에 붙은 '밤의 음악'이라는 부제(이것은 말러가 직접 붙였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다루고 있다. 불길함과 신비로움에서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적인 세레나데(4악장)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특히 4악장에서는 세레나데적인 효과를 증폭하기 위해 기타와 만돌린이라는, 교향곡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악기들까지 동원된다. 또한 이 곡은 장대한 관현악 편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목에서 악기들이 매우 경제적이고 실내악적으로 다루어진다. 말러는 이 곡에서 다양한 악기 조합을 통해 이전에 쓴 어느 곡보다도 더 다채로운 음색을 이끌어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상당수 녹음이 이 곡의 정교한 짜임새를 투명하게 살려내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용케 곡의 짜임새를 살리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곡 특유의 정서를 제대로 살리는 데 실패해 결과적으로 정확하지만 무미건조하다는 느낌을 주는 녹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리카르도 샤이에게 이 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로열 콘세르트허바우와의 1994년 녹음(Decca)에서 그랬듯이, 샤이는 이 영상물에서도 곡의 주요 선율선을 살리면서도 어느 성부도 묻히지 않게 하고, 또 여기에 독특한 정감까지 부여하는 마법을 부리고 있다. 이 놀라운 영상물을 보고 나면 샤이가 이 곡에 대해 쇤베르크와 완전히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샤이와 쇤베르크의 견해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Accentus ACC 20254 **[DVD]**

리카르도 샤이 : 음악 – 평생에 걸친 여정

라르스 포크트(피아노),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리카르도 샤이(지휘)

음악과 더불어 함께한 리카르도 샤이 평생의 궤적

리카르도 샤이는 이 시대 최고의 거장 중 하나이며, 마주어와 불레즈가 타계한 지금 그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 영상물은 다큐멘터리와 공연 실황으로 나뉘며, 다큐멘터리에서는 샤이가 자택에서 지휘자가 된 계기, 자신의 음악관 등에 대해 격의 없는 태도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영상 사이사이에 말러를 비롯한 여러 공연 영상의 단편들이 들어 있다. 공연 실황은 2013년 2월에 라르스 포크트가 샤이가 지휘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한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상은 한국어 자막이 지원된다.

[보조자료]

– "저는 언제나 악보는 적혀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음표와 각종 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관현악 총보에 함께 들어 있는 그 많은 평행선의 층들이 청중에게 안개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리카르도 샤이***

– 최근 쿠르트 마주어와 피에르 불레즈가 연이어 타계함으로써, 우리가 '거장'이라는 칭호를 거부감 없이 붙여줄 수 있는 지휘자는 이제 몇 안 남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리카르도 샤이는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다. 1953년에 이탈리아의 음악 가문(그의 아버지 루치아노 샤이는 작곡가였고 여동생 체칠리아 샤이 역시 하프 주자 겸 작곡가이다)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접하면서 지휘자의 꿈을 키워나갔으며, 20세 때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부지휘자로서 동경하던 라 스칼라에 입성했다. 이렇게 오페라 지휘자로 출발한 샤이는 이후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1982~88),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1988~2004),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2005~현재) 등 굵직한 악단들을 이끌면서 성공가도를 달렸다. 이는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성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모든 성부를 균등하게 다루면서 세부를 꼼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정평 있는 그의 해석 방식도 바로 이런 치밀한 연구에서 비롯한 것이다.

– 이 영상물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원을 탐구하고 있다. 이 DVD는 다큐멘터리 영상과 공연 실황 영상으로 나뉘며, 샤이가 알프스가 바라보이는 한적한 자택에서 악보를 연구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은 그가 자신이 음악을 처음 접했던 계기와 아바도 등 자신에게 영향을 준 음악가들에 대한 이야기, 작곡가였던 아버지에 대한 회상,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감, 자신의 음악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솔직하고 격의 없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러 교향곡 4번, 라벨 피아노 협주곡 등 여러 공연 실황 및 리허설의 단편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이 다큐멘터리 영상은 한국어 자막이 지원된다.

– 공연 실황은 2013년 2월에 라르스 포크트가 샤이가 지휘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한 것이다. 포크트는 매우 명징하면서도 달콤한 음색으로 서정적인 연주를 들려주며, 샤이 역시 다이내믹을 주의 깊게 통제하면서 뉘앙스 풍부한 반주로 포크트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72788 **[DVD]**

그라페넥 한여름 밤의 갈라 콘서트

엘리자베트 쿨만(ms)/ 피오트르 베찰라(te)/ 율리아 피셔(vn)/ 유타카 사도/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

그라페넥 성의 현대적인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던 화려한 여름밤의 갈라 콘서트

빈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정도 차를 달리면 과거 라티보르 공작의 저택이었던 그라페넥 성에 도착한다. 지난 2007년부터 이곳에서는 국제적인 야외 음악축제인 그라페넥 페스티벌이 펼쳐져왔는데, 성채의 정원에다 기하학적 형태의 지붕을 씌운 Wolkenturm(구름 탑)이라는 야외무대가 이 페스티벌의 주무대가 된다. 독특한 형태의 지붕은 고풍스런 성채와 대비를 이루는 초현대적인 야외조형물 역할까지 담당한다. 페스티벌의 주관 악단인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는 본격적인 페스티벌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시민들을 위한 갈라 콘서트를 이곳에서 펼쳐왔는데, 지난 2015년 6월에 펼쳐졌던 성대한 실황이 본 영상물에 수록되었다. 2015년부터 이 악단의 상임을 맡고 있는 일본 출신의 지휘자 유타카 사도가 지휘봉을 잡았던 이 콘서트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가 사라사테의 두 작품(카르멘환상곡, 전주곡과 타란텔라)을 화려하게 연주하였고, 정상급 성악가들인 피오트르 베찰라와 엘리자베트 쿨만이 〈카르멘〉과 〈삼손과 데릴라〉의 주요 아리아들과 함께 빈 오페레타의 인기곡들을 노래하였다.

EuroArts 2072758 **[DVD]**

스메타나: 나의 조국 전곡

이지 벨로흐라베크/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벨로흘라베크와 체코 필이 함께 완성한 2015년 '프라하의 봄' 오프닝 콘서트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음악축제인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의 기원은 194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장구한 역사의 이 페스티벌은 스메타나의 탄생일인 5월 12일에 펼쳐지는 오프닝 콘서트로 시작되는데, 이때 그의 대표작인 '나의 조국' 전곡을 연주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본 영상물은 체코의 정상급 지휘자 이지 벨로흘라베크가 체코 필하모닉을 이끌고 연주한 2015년의 오프닝 콘서트 실황을 담고 있다. 여섯 편의 교향시들로 구성된 '나의 조국'은 국민주의 작곡가로서의 스메타나를 상징하는 걸작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두 번째 곡 '블타바'(몰다우)는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다섯 작품('비셰라드', '사르카', '보헤미아의 숲과 초원', '타보르', '블라닉') 모두가 자국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이 위대한 작곡가 뜨거운 애정을 감동적으로 드러낸다. 벨로흘라베크가 프라하 음악원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던 2011년도 오프닝 콘서트도 PAL 포맷의 영상물로 발매된 바 있지만, 자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체코 필과 함께 완성한 이 영상물의 가치는 더 한층 각별하다.

EuroArts 2060978 **[DVD]**
EuroArts 2060974 **[Blu-ray]**

베를린 필하모니 2015 발트뷔네 콘서트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사이먼 래틀(지휘)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영화음악의 향연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1984년부터 매년 여름 베를린 외곽에 있는 대형 야외공연장인 발트뷔네에서 연주회를 열고 있다. 2015년의 테마는 '영화음악'으로, 음악회를 시작하는 '20세기 폭스 팡파르'부터 코른골트의 '로빈 후드의 모험', 미클로스 로사의 '벤허 모음곡', 존 윌리엄스의 '인디애나 존스', 'E.T', '스타워즈' 등 할리우드를 화려하게 수놓은 여러 작곡가들의 걸작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연주되었다. 스콧 브래들리의 '톰과 제리'도 절대 놓치지 말 것. 공연을 보면 이 익숙한 음악이 이렇게 연주하기 어려운 곡이었던가 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보조자료]

–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1984년부터 매년 여름 베를린 외곽에 있는 대형 야외공연장인 발트뷔네에서 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해 연주하고 있다. 2015년의 테마는 '조명, 카메라, 액션!', 즉 영화를 테마로 하고 있다. 내지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막곡은 알프레드 뉴먼이 작곡했으며 오늘날에는 영화음악사를 대표하는 곡이 된 '20세기 폭스' 팡파르이다. 이후에도 코른골트의 '로빈 후드의 모험', 미클로스 로사의 '벤허 모음곡', 존 윌리엄스의 '인디애나 존스', 'E.T', '스타워즈' 등 20세기 중후반을 화려하게 수놓은 대표적인 영화음악들이 연주되고 있다. 2002년 이후 십 수 년에 걸쳐 상임지휘자로서 베를린 필하모니를 이끌고 있는 사이먼 래틀은 모든 곡에 화려한 색채감을 부여하며, '인디애나 존스'나 '스타워즈' 등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디 단원들의 유머 감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주로나 시각적인 면에서나 최고의 체험은 단연 스콧 브래들리의 '톰과 제리'가 될 것이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만화영화의 배경으로 익숙한 이 곡이 실제로 연주되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이 곡이 이렇게 연주하기 어려웠던가?'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어떤 현대음악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난도를 자랑하는 음악이 최고의 기량을 갖춘 오케스트라를 만나 그야말로 화려하게 만개했다. 이 공연은 일종의 앙코르로 항상 발트뷔네 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파울 링케의 '베를린 공기'로 끝난다. 청중과 교감하는 모습에서 베를린 필하모니는 세계 일류 오케스트라이기에 앞서 베를린의 오케스트라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수록곡]

알프레드 뉴먼 : '20세기 폭스' 팡파르
브로니슬로 케이퍼 : 바운티 호의 반란(1935)
데이비드 락신 : 로라(1944)
제롬 모로스 : 빅 컨츄리(1958)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 : 로빈 후드의 모험(1938)
스콧 브래들리 : 톰과 제리(1940~58)
미클로스 로사 : '벤허' 모음곡(1959)
존 윌리엄스 : 인디애나 존스(1981), E.T(1982), 스타워즈(1977)
파울 링케 : 베를린 공기

EuroArts 2061138 **[DVD]**
EuroArts 2061134 **[Blu-ray]**

New Year's Eve Concert 2014

메나헴 플레슬러(피아노),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사이먼 래틀(지휘)

90세의 노대가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음악과 삶의 이야기

메나헴 프레슬러는 1923년생으로 이미 9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래틀/베를린 필의 2014년의 신년 이브 콘서트 공연에서 그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및 쇼팽의 녹턴을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하게 연주했다. 라모, 드보르자크, 코다이 등에서 래틀과 베를린 필이 들려주는 연주 역시 흥취를 돋운다. 또 이 영상물에는 프레슬러가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와 53년에 걸쳐 단원으로 활동했던 보자르 트리오와의 인연 등에 대해 이야기한 다큐멘터리 영상도 실려 있다. 노대가의 진지한 고백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자료이다.

[보조자료]

– 독일 태생의 유대계 미국인 피아니스트인 메나헴 프레슬러는 1923년생으로 이미 90세가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가족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이주하는 데 성공했지만 친척들은 수용소에서 잃어야 했던 비운의 체험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1946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드뷔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연주자 경력을 시작한 그는 1955년에 보자르 트리오를 결성했으며, 2008년에 53년의 활동을 마치고 해체할 때까지 다른 멤버들이 계속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교육자로서도 1955년에 인디애나 대학교의 교수진에 들어간 뒤 꾸준한 활동으로 뛰어난 피아니스트를 여럿 양성했다.

– 사이먼 래틀/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2014년의 신년 이브 콘서트 공연에서 프레슬러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협연했으며 이어 앙코르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다. 둘 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한 연주이다. 라모의 '인도의 우아한 나라들'이나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춤곡', 코다이의 '하리 야노스 모음곡' 등에서 래틀과 베를린 필이 들려주는 연주 역시 흥취를 돋우기에 충분하다. 또 이 영상물에는 프레슬러가 교육자로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음악가로서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와 53년에 걸쳐 단원으로 활동했던 보자르 트리오와의 인연 등에 대해 이야기한 다큐멘터리 영상도 실려 있다. 노대가의 진지한 고백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자료이다.

[수록곡]

라모 : '인도의 우아한 나라들' 모음곡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23번 가장조, K.488
쇼팽 : 녹턴 올림다장조 Op.27–1
드보르자크 : 슬라브 춤곡 Op.46–2 및 Op.72–7
코다이 : 하리 야노스 모음곡
브람스 : 헝가리 춤곡 1번
하차투리안 : '가야느' 모음곡 1번 중 '레즈긴 춤'

EuroArts 2060878 **[DVD]**
EuroArts 2060874 **[Blu-ray]**

'교향곡 9번' – 모리스 베자르의 안무에 의한 발레

루이스(소프라노) 외, 이스라엘 필, 주빈 메타(지휘), 베자르 발레 로잔 & 도쿄 발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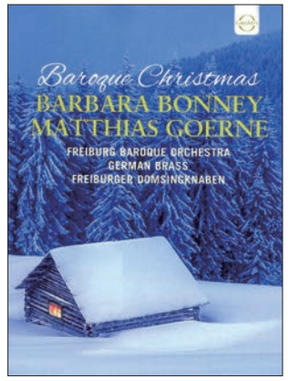
베토벤의 '합창'을 발레로 만나다

모리스 베자르는 프랑스 태생의 무용가이자 안무가, 오페라 감독으로서 활동하다 2007년에 타계했다. 이 영상물은 그가 생전에 창안한 안무에 따라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음악에 맞춰 발레를 공연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2014년 도쿄 NHK 홀 실황이며, 본 공연에 앞서 낭송되는 니체의 텍스트 역시 내용상 교향곡의 가사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 베자르의 말에 따르면 발레 자체는 특정 개념이나 목적이 아닌 음악 자체의 흐름에 따라 두려움에서 환희로,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향하는 작곡가의 발자취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한글 자막 지원.

[보조자료]

– 모리스 베자르(1927~2007, 본명 모리스–장 베르제)는 프랑스 태생의 무용가 겸 안무가이며 오페라 감독을 지내기도 했고 1987년에는 발레단 '베자르 발레 로잔'을 창단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발레단으로 육성했다. 스위스 정부는 그가 죽은 뒤 예술계에 미친 지대한 공헌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스위스 시민권을 부여했다.

– 이 영상물은 그가 생전에 창안한 안무에 따라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음악에 맞춰 발레를 공연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통상적인 베토벤 '교향곡 9번' 공연에 발레를 더한 형태이다. 2014년 도쿄 NHK 홀 실황이며, 본 공연에 앞서 7분 정도 니체의 텍스트를 낭송하는 시간이 있다. 이 텍스트는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자연과 인간이 환희 속에서 화해한다는 내용으로, 교향곡에 사용된 실러의 가사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 베자르 자신의 말에 따르면 발레 자체는 특정한 개념이나 목적을 지닌 게 아니라 음악 자체의 흐름에 따라 두려움에서 환희로,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향하는 작곡가의 발자취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 녹음 당시 78세이던 주빈 메타는 나이가 무색하게 열정적으로 지휘하며, 성악진과 합창단 역시 최선을 다해 노래한다.



EuroArts 2016388 **[DVD]**

바버라 보니와 마티아스 괴르네의 바로크 크리스마스

바버라 보니(소프라노), 마티아스 괴르네(바리톤),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아름다운 대성당 안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용 바로크 음악의 향연

1999년 프라이부르크 대성당 실황.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프라이브루크 시내 풍경과 프라이부르크 대성당 내부의 아름다운 장식들이 간간이 비치는 가운데 바로크 시대의 걸작들이 노래된다.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당연히 필수 레퍼토리이며, 이 곡의 주요 악장들 사이사이에 바흐와 헨델, 모차르트의 다른 작품들이 배치되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위해 썼거나 그 정신에 부합하는 곡만 선정했으며, 독창을 맡은 바버라 보니와 마티아스 괴르네는 물론 프라이부르크 성당 소년 합창단 등 모두가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를 들려준다.

[보조자료]

– 1999년에 프라이부르크 대성당에서 열린 공연 실황.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프라이브루크 시내 풍경과 프라이부르크 대성당 내부의 아름다운 장식들이 간간이 비치는 가운데 바로크 시대의 걸작들이 노래된다.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시기를 감안하면 당연히 필수 레퍼토리이며, 이 곡의 주요 악장 사이사이에 바흐의 협주곡이나 헨델의 '메시아' 및 모차르트 미사곡 발췌 등이 배치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크리스마스를 위해 창작된 곡이나 그 정신에 부합하는 곡으로만 이루어졌으며, 독창을 맡은 바버라 보니와 마티아스 괴르네는 물론 프라이부르크 성당 소년 합창단 등 모두가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1987년에 '새로운 소리로 바로크 음악의 세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창단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면서 여러 뛰어난 녹음을 남긴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역시 소박하면서도 정성스런 연주로 이들을 훌륭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수록곡]

바흐 : 협주곡 라장조 BWV 972 중 알레그로
바흐 : 칸타타 '우리들 입가에 웃음이 넘치게 하소서, BWV 100' 중
'Wachet auf, ihr Adern und ihr Glieder'
바흐 :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248 중 'Nun seid Ihr wohl gerochen'
모차르트 : 미사 다단조, KV 427 중 '그리고 육화하시어'
바흐 :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248 중 '신포니아'
바흐 :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248 중 'Ehre sei Dir, Gott gesungen'
바흐 :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248 중 'Herr dein Mitleid, dein Erbarmen'
바흐 : Je me suis lev□
바흐 : In dulci Jubilo
바흐 :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248 중 'Gro ß er Herr, o starker K□nig'
핸델 :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그분은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고'
바흐 : G선상의 아리아

EuroArts 2072778 **[DVD]**

그라페네크 2014 한여름 밤 갈라

데노케(소프라노), 바르가스(테너), 티보데(피아노),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 메나(지휘)

오스트리아의 밤하늘을 수놓은 다양한 음악들

그라페네크는 인구가 3,000명가량 되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이지만 음악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여기서 2007년 이래 매년 열리고 있는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때문이다. 이 영상물은 이 음악제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20일 밤에 열린 갈라쇼 실황을 담고 있다. 음악제 상주 오케스트라인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고, 소프라노 앙겔라 데노케와 테너 라몬 바르가스, 피아니스트 장–이브 티보데가 출연했다. 라벨의 협주곡에서 오페레타 아리아와 뮤지컬 명곡, '베사메 무초' 같은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선곡이 한여름 밤의 흥취를 돋운다.

[보조자료]

그라페네크는 인구가 3,000명가량 되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이지만 음악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여기서 2007년 이래 매년 열리고 있는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때문이다. 이 영상물은 이 음악제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20일 밤에 열린 갈라쇼 실황이다. 음악제 상주 오케스트라인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가 연주했고, 독일 소프라노 앙겔라 데노케와 멕시코 출신 명 테너 라몬 바르가스, 근래 최고의 성가를 올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장–이브 티보데가 출연했다. 라벨의 협주곡 같은 기악곡에서 슈트라우스의 가곡, 푸치니의 오페라, 레하르 등의 오페레타 아리아와 뮤지컬 명곡, '베사메 무초' 같은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류의 갈라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선곡이 한여름 밤의 흥취를 돋운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이 불꽃놀이와 더불어 이 음악제의 대미를 멋지게 장식한다.

[수록곡]

1. 라벨 : 페리아
2. R. 슈트라우스 : 장미 화환, Op.36–1
3. R. 슈트라우스 : 체칠리아, Op.27–2
4. 푸치니 :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5. 칠레아 : '아를의 여인' 중 '페데리코의 탄식'
6. 라벨 : 피아노 협주곡 사장조 중 3악장
7. 레하르 : Warum hat jeder Fr□hling, ach, nur einen Mai
8. 호이베르거 : 외딴 방으로 갈까요?
9. 슈트라우스 : Warum soll eine Frau kein Verh□ltnis haben?
10. 히메네스 : '루이스 알론소의 결혼' 중 간주곡
11. 바르첼라타 : 마리아 엘레나
12. 발라스케스 : 베사메 무초
13. 거슈윈 : 'I Got Rhythm' &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14. 로저스 & 해머스타인 : 저 사람 손을 내 머리칼에서 떼어낼 거야
15. 로저스 & 해머스타인 : 어떤 황홀한 저녁
16. 로저스 & 해머스타인 : '남태평양' 서곡 외
17. 홀랜더 : ich weiss nicht, zu wem ich geh□re!(탈 발샤이 편곡)
18. 엘가 : 위풍당당 행진곡 1번

EuroArts 2061424 **[Blu-ray]**

'리허설과 공연에서' (In rehearsal & performance)

지휘: 솔티, 클라이버, 라인스도르프, 첼리비다케, 노이만, 프리차이, 줄리니, 뵘

옛 거장들의 시대에 향수를 지닌 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상물
장장 12시간 50분에 걸쳐 기록된 거장들의 음악 세계

놀라운 기록이다! 솔티에서 클라이버, 라인스도르프, 첼리비다케, 노이만, 프리차이, 줄리니, 뵘에 이르는 옛 거장 지휘자 여덟 명이 1960~97년 사이에 남긴 리허설과 공연 장면을 단 한 장으로, 무려 12시간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훌륭한 화질과 블루레이 포맷 특유의 뛰어난 음질로 즐길 수 있다. 그것도 클라이버는 '박쥐' 서곡, 노이만은 '팔려간 신부', 줄리니는 브루크너 '교향곡 9번' 등 각 지휘자의 음악세계를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곡들로 엄선되었다. 옛 거장들의 시대에 향수를 지닌 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게오르그 솔티, 카를로스 클라이버, 에리히 라인스도르프, 세르주 첼리비다케, 바츨라프 노이만, 페렌츠 프리차이,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카를 뵘…. 모두 제각기 한 시대를 풍미했으며 이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간 거장 지휘자들의 이름이다. 만약 이들의 공연 모습을, 그것도 리허설 장면과 함께 한 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데 그 꿈같은 일이 여기서 실현되었다! 이 블루레이에는 솔티가 1966년에 지휘한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파리 버전)을 필두로 카를 뵘의 1978년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에 이르기까지 1960~97년 사이에 여덟 거장이 남긴 리허설 및 공연 장면이 담겨 있다. 무려 12시간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훌륭한 화질과 블루레이 포맷 특유의 뛰어난 음질을 단 한 장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클라이버는 '박쥐' 서곡, 노이만은 '팔려간 신부', 줄리니는 브루크너 '교향곡 9번' 등 각 지휘자의 음악세계를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곡들로 엄선되었다. 옛 거장들의 시대에 향수를 지닌 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상물이다.

[수록곡]

에피소드 1: 게오르그 솔티/ 슈투트가르트 남서 독일 방송 교향악단 (1966년)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파리 버전)

에피소드 2: 카를로스 클라이버/ 슈투트가르트 남서 독일 방송 교향악단 (1970년)
베버: '마탄의 사수' 서곡 & J. 슈트라우스: '박쥐' 서곡

에피소드 3: 에리히 라인스도르프/ 남부 방송 교향악단 (1984년)
바그너: '파르지팔' 전주곡과 간주곡 & 슈만: 교향곡 4번

에피소드 4: 세르주 첼리비다케/ 슈투트가르트 남서 독일 방송 교향악단 (1965년)
R. 슈트라우스: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에피소드 5: 바츨라프 노이만/ 슈투트가르트 남서 독일 방송 교향악단 (1968~69년)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 3번 & 스메타나: '팔려간 신부'

에피소드 6: 페렌츠 프리차이/ 슈투트가르트 남서 독일 방송 교향악단 (1960년)
스메타나: 몰다우

에피소드 7: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슈투트가르트 남서 독일 방송 교향악단 (1997년)
브루크너: 교향곡 9번

에피소드 8: 카를 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1966/1978년)
베토벤: 교향곡 7번 &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에서'

EuroArts 2072744 **[DVD]**

모차르트 : 코시 판 투테

미터루츠너(테너), 하르텔리우스(소프라노),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에셴바흐(지휘)

'여자란 다 그런 것'이라고? 아니지, '사랑이 다 그런 것'이야!

2013년 8월 잘츠부루크 페스티벌 공연 실황. 황금의 콤비였던 로렌조 다 폰테와 모차르트가 마지막으로 합작한 작품인 '코시 판 투테'는 '여자란 다 그런 것'이라는 뜻이지만, 무대 감독 스벤-에릭 베흐톨프가 내지에서 주장했듯이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을 주제로 하고 있다. 크리스토프 에셴바흐는 탁월한 지휘로 자신이 뛰어난 오페라 지휘자임을 증명했고, 주역을 맡은 하르텔리우스-미터루츠너의 젊은 연인 연기는 물론 돈 알폰소 역을 맡은 바리톤 제럴드 핀리의 관록 있는 연기는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보조자료]

– 2013년 8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 실황. 황금의 콤비였던 대본작가 로렌조 다 폰테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오페라를 합작해 성공을 거두었으며, '코시 판 투테'는 이들의 마지막 합작품이다. 페란도와 돈 알폰소 사이에 여성의 정조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는 장면부터 시작하며, 늙은 회의주의자인 돈 알폰소는 여성의 정조란 믿을 게 못된다고 주장하고 페란도는 그의 말에 반박하다가 결국 내기를 걸기로 한다. 갖가지 소동이 일어난 끝에 돈 알폰소가 내기에서 이기지만, 모두가 우울함을 억지로 털고 화합하는 척하는 마지막 장면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오페라 부파에 속하지만 완전히 희극이라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결말 때문에 이 작품의 진정한 성격과 의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지금도 모차르트의 오페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수께끼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2012년부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드라마 감독을 맡고 있는 스벤-에릭 베흐톨프는 여기서도 무대 감독으로 참여했으며, 이 블루레이의 내지 해설도 직접 썼다. 이 해설에서 그는 이 오페라가 겉보기와는 달리 여성의 정조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통찰력 있게 주장했다. 베흐톨프를 비롯한 무대 연출팀은 화려한 의상과 식물원을 방불케 할 만큼 수목이 많은 배경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했다.

– 2016년 1월 9일에 갑작스런 지휘자 공백 상태에 처한 서울시향을 이끌고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을 훌륭하게 지휘해 다시금 찬사를 받은 바 있는 크리스토프 에셴바흐는 이 공연에서 자신이 탁월한 오페라 지휘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피오르딜리지 역의 소프라노 말린 하르텔리우스와 정열적이지만 심약한 성격의 페란도 역을 맡은 테너 마르틴 미터루츠너는 이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돈 알폰소 역을 맡아 관록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바리톤 제럴드 핀리 역시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OPUS ARTE **OpusArte**

www.opusarte.com

OpusArte OABD7184D **[8 Blu-ray]**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오페라에디션
SPECIAL PRICE [8BD FOR 2.5]

1)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한글자막]
2) 탄호이저 [한글자막]
3) 로엔그린
4) 발퀴레
5) 트리스탄과 이졸데
6)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 축제 역사에 길이 남을 6개 걸작 오페라 프로덕션**

*** 고화질 HD 와이드스크린과 서라운드 사운드**

*** 독일 오페라의 정수를 보여주는 바그너 오페라의 고향 바이로이트, 서로 다른 느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6개의 오페라**

1876년 개막이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오페라 프로덕션의 대명사가 된 바이로이트 축제!
오리지널 세팅, 창의적 프로덕션, 뛰어난 음향으로 유명한 바이로이트 축제는, 지속적인 혁신과 새로운 인재의 후원으로 해가 갈수록 그 명성을 더욱 공공히 하고 있으며, 금번 출시된 6개의 오페라 역시 그 전통을 고스란히 잇고 있다. 논란을 불러온 얀 필립 글로거 감독, 크리스티안 틸레만 지휘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거대한 실험 무대를 선보인 세바스티안 바움가르텐 감독, 악셀 코버 지휘의 "탄호이저", 뛰어난 퍼포먼스로 언론의 극찬을 받은 떠오르는 신예 성악가 요한 보타, 에디트 할러의 "발퀴레", 전통적인 표현을 벗어나 1950년대 공산주의 시대 접견실 같은 사이코드라마 분위기를 파격적으로 연출한 크리스토퍼 마르탈러 감독의 낭만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카타리나 바그너 감독의 스펙타클한 데뷔 무대로 〈오페라 캐나다〉의 극찬을 받은 "뉘른베르그의 명가수". 독일 오페라의 정수를 보여주는 바그너 오페라의 고향 바이로이트, 서로 다른 느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6개의 오페라 고화질 HD 와이드스크린과 서라운드 사운드.

OpusArte OABD7186D **[3 Blu-ray]**

무대를 빛낸 무용의 대가, 당대 가장 위대한 무용가 "카를로스 아코스타"
SPECIAL PRICE [3BD]

"카를로스 아코스타"의 대표발레 3편이 스페셜 가격으로....

1) 고집쟁이 딸
2) 로미오와 줄리엣
3) 돈키호테

쿠바 출신의 카를로스 아코스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무용계의 슈퍼 히어로다. 1988년 로얄 발레단의 종신단원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이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코스타는 최근 안무가로서 새로운 캐리어를 쌓아나가기를 시작했다.

[보조자료]

– 카를로스 아코스타는 당대 가장 위대한 발레리노 중의 한 사람이며, 약 20년간 로열 발레단에서 특별한 위상을 확보해왔다. 이 컬렉션은 로열 발레단의 세 가지 작품에서 각각 대비되는 역할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컬렉션이다.

– 그는 프레데릭 애쉬턴의 명랑하고 목가적인 작품 '고집쟁이 딸(La fille mal gardee)'에서 유쾌한 젊은 애인 콜라스역을 맡는다. 로미오역의 그는 케니스 맥밀란의 획기적인 각본에서 선량하고 비극적인 셰익스피어의 영웅이다. 19세기의 고전 〈돈키호테〉의 생생한 아코스타 연출, 바실리오 역에서 풍성하고, 매혹적이고 라틴적인 솜씨를 보여준다. (HD 화질 녹화 & 생생한 서라운드 사운드 녹음)

[해외평]

그의 로열 발레단 동료들과 강렬한 연기와 눈부신 테크닉을 보여주고, 엄청난 교감의 연기를 펼친다–모두 아코스타의 세계수준의 재능이다. ***– 클래스 탤런트***

OpusArte OA1109D **[DVD]**
OpusArte OABD7124D **[Blu-ray]**

로시니 : 브루스키노 씨

레포레(베이스), 알레이다(소프라노), 알레그레(테너), 루스티오니(지휘)

테마파크 '로시니랜드' 안에서 벌어지는 유쾌한 결혼 소동

브루스키노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을 둘러싼 결혼 소동을 그린 '브루스키노 씨'는 내용 면에서는 전형적인 몰리에르풍의 희극이지만 소테라네오 극장의 연출진은 모든 내용을 '로시니랜드'라는 이름의 현대 테마파크 안에서 벌어지는 극중극으로 처리함으로써 이 오페라가 지닌 희극적인 측면을 참신하고도 유쾌하게 과장해 놓았다. 가우덴치오 역의 베이스 카를로 레포레의 능청스런 연기와 소피아 역의 마리아 알레이다 및 플로르빌레의 열창, 오케스트라의 말쑥한 반주, 자연스럽고도 독창적인 연출 등 어느 면에서도 빼놓을 데 없는 영상물.

OpusArte OA1195D **[DVD]**
OpusArte OABD7185D **[Blu-ray]**

발레 '나폴리'

렌도르프(제나로 역), 로 사르도(테레지나 역), 덴마크 왕립 발레단, 그레이엄 본드(지휘)

나폴리의 풍광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 덴마크 왕립 발레단의 고정 레퍼토리

19세기 덴마크의 전설적인 무용가 겸 안무가였던 오귀스트 부르농빌이 1842년에 창안해 낸 발레 '나폴리'는 이후 덴마크 왕립 발레단의 고정 레퍼토리 중 하나가 되었다. 어부 제나로가 바다에 빠진 연인 테레지나를 구해내는 이야기를 발레로 꾸민 것으로, 헬스테드, 파울리, 알레니우스 등 당대의 전문 작곡가들이 쓴 아름다운 음악이 나폴리의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마야 라븐은 배경과 의상을 현대적으로 각색했지만 이 발레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대로 살려두었다. 엥글룬드와 휘베는 연기와 무용이 적절히 결합된 안무로 내용 전개를 알기 쉽게 해준다.

OpusArte OA1196D **[DVD]**
OpusArte OABD7187D **[Blu-ray]**

에롤/애쉬턴: 말괄량이 아가씨

나탈리아 오시포바(리즈)/ 스티븐 맥래(콜라)/ 필립 모슬리(미망인 시몬)/ 크리스토퍼 손더스(토마)/ 폴 케이(알랭)/배리 위즈워스/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천재 안무가 애쉬턴의 걸작 〈말괄량이 아가씨〉의 2015년 프로덕션

19세기 초에 활약했던 프랑스의 작곡가 페르디낭 에롤은 오페라로 큰 명성을 얻었지만, 오늘날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품은 바로 발레곡 〈말괄량이 아가씨〉이다. 이 작품이 유명하게 된 것은 영국의 안무가 프레데릭 애쉬턴의 역할이 크다. 그는 1960년에 〈말괄량이 아가씨〉를 서정적이면서도 상당한 기교를 요구하는 안무를 만들었으며, 사랑이 꽃피는 화사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당시 공연에 대해 "발레는 굉장한 엘랑('도약'을 뜻하는 발레 용어)으로 진행되었으며, 즐겁게 받아들여졌다"(더 타임즈), "모든 면에서 성공적"(더 파이낸셜 타임즈) 등의 찬사를 받았으며, 이 안무는 큰 인기를 얻어 이후에도 수차례 재공연되었다. 이 영상물은 2015년 5월 5일 공연으로, 소품과 의상 등이 19세기 유럽의 소박한 시골이라는 배경을 잘 보여주며, 주역을 맡은 나탈리아 오시포바와 스티븐 맥래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인디펜던트는 "발레단의 승리"로 평했으며, 가디언은 오시포바에 대해 "활기차고 말괄량이 같은 리즈의 정확한 핀드랍",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맥래에 대해 "특별한 애쉬턴 무용수"라고 절찬을 보냈다.

OpusArte OA1161D **[DVD]**
OpusArte OABD7162D **[Blu-ray]**

시마노프스키: 로저 왕

마리우스 크비에치엔(로저 왕)/ 조지아 자먼(록사나)/ 사이미르 피르구(목자)/ 킴 베글리(에드리시)/ 앨런 어윙(대주교)/ 아녜스 츠비에르코(여집사)/ 안토니오 파파노/ 로열 오페라

신과 인간의 갈등을 그린 근대 오페라의 걸작 〈로저 왕〉의 역사적인 런던 재연 무대

오페라 〈로저 왕〉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폴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카롤 시마노프스키의 위대한 걸작이다. 이 작품은 12세기 폴란드의 왕이었던 로저 2세가 주인공이다. 그는 예언자 목자에 관심을 보이지만 그를 거부한다. 그러자 목자는 왕비인 록사나를 포함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로저 왕이 따라가 보니 그 목자는 디오니소스였다. 로저 왕은 디오니소스 제전의 춤을 보고 변화되어 찬가를 부른다. 이 작품에서 왕과 목자의 갈등에서 문화와 자연, 사람과 동물 간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상물은 2015년 5월 런던에서 40년 만에 올린 오페라 〈로저 왕〉의 실황으로, 덴마크의 젊은 연출가 카스퍼 홀텐의 연출과 오페라 지휘의 거장인 안토니오 파파노의 지휘로 공연되었다. "중요한 예술의 승리"(데일리 텔레그래프), "진정한 개성적인 걸작"(아츠 데스크), "음악적인 대성공"(더 가디언), "오페라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관해 당신의 지경을 확장시켜줄 것"(바흐트랙) 등 최고의 찬사를 얻었다. 이 영상물에서는 한국어 자막으로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으며, 홀텐과 파파노의 해설도 포함되어 있다.

ARTHAUS MUSIK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166 **[DVD]**
Arthaus 109167 **[Blu-ray]**

베를리오즈 : 환상 교향곡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지휘)

하이팅크와 콘세르트허바우의 완벽한 화학작용이 빚어낸 또 하나의 명연

1979년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공연 실황. 베르나르트 하이팅크는 1961년에 에두아르트 반 베이눔의 후임으로 콘세르트허바우의 상임지휘자가 된 이후 장장 27년에 걸쳐 이 악단을 이끌면서 콘세르트허바우가 전 세계에서도 한 손에 꼽히는 위치로 오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 영상물에서 당시 50세였던 하이팅크가 모범적인 중용을 지키면서도 오케스트라의 표현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면 하이팅크와 콘세르트허바우의 동반자 관계가 그토록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보조자료]

– '환상 교향곡'은 베를리오즈가 27세이던 1830년에 작곡한 것으로서, 작곡가의 대표작이자 음악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배우 해리엇 스미드슨에 대한 일그러진 연정을 다섯 악장에 담아낸 이 교향곡은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는 선율을 가리키는 '고정악상'이라는 베를리오즈 특유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곡으로서, 리스트나 바그너 등 이후의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향곡에 하프가 처음으로 사용되는 등 관현악법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 베르나르트 하이팅크는 1961년부터 1988년까지 장장 27년에 걸쳐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지내면서 이 악단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단독 상임직은 1963년부터 수행). 이 악단 특유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음색은 사실상 하이팅크 시대에 완성된 것이며, 이는 콘세르트허바우가 나중에 영국 '그라모폰'이 선정한 세계 제1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데에도 적잖이 기여했다. 1979년에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은 이 영상물은 콘세르트허바우의 표현력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모범적인 중용을 지키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격동적인 연주도 이끌어낼 수 있는 하이팅크의 능력도 잘 보여주고 있다.

Arthaus 109129 **[DVD]**
Arthaus 109130 **[Blu-ray]**

레하르: 메리 위도우 (발레 버전)

캐런 케인(한나 글라바리 역), 존 미헌(다닐로 백작 역), 에르마노 플로리오(지휘)

레하르의 매혹적인 최고 걸작을 발레 버전으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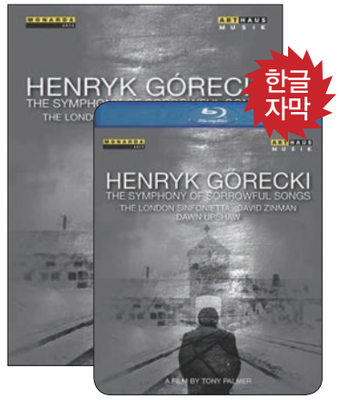
프란츠 레하르는 생전에 최고의 오페레타 작곡가로 군림하면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렸다. 그의 작품 중 상당수는 현재 공연되지 않지만 '메리 위도우'(명랑한 과부)만은 지금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안무가 로널드 하인드는 이 오페레타를 3막짜리 발레로 개작했는데, 데스먼드 힐리의 사실적이고 화려한 무대와 의상 덕도 있어서 노래가 전혀 없음에도 줄거리의 흥미진진함을 잃지 않고 있다. 주역인 케인과 미헌을 비롯해 캐나다 국립 발레단 모두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며, 에르마노 플로리오의 노련한 지휘는 이 곡이 원래 발레곡이 아닌가 착각하게 한다.

Arthaus 109135 **[DVD]**
Arthaus 109136 **[Blu-ray]**

Jardi Tancat (발레와 다큐멘터리)

나초 두아토의 걸작 발레 프로덕션인 Jardi Tancat에 대한 이야기와 공연

나초 두아토(Nacho Duato)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무용가이자 저명한 안무가로 손꼽히는 인물로서 그가 안무한 발레 작품들은 그 창조력과 예술적 완성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경력은 이리 킬리안(Jiri Kylian)이 1981년 네덜란드의 단스 테아터(Nederlands Dans Theater)의 무용수(후일 안무가)로 발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Jardi Tancat'은 그가 제작한 첫 번째 발레작품으로서 네덜란드 단스 테아터의 젊은 그룹을 위해 제작한 것. 이 작품은 1984년 쾰른에서 열린 젊은 안무가를 위한 국제 콩쿠르에서 1등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 네덜란드 단스 테아터에서 상업적,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Jardi Tancat'(닫힌 정원)은 옛 카탈로그의 민요에 가사와 음악을 스페인 가수 마리아 델 마르 본넷이 부른 노래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스페인 농부가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길 기다리지만 여전히 가물고 있음을 노래로 전달한다. 이 과정을 두아토는 강하고 서정적이며 아름다움이 넘치는 발레로 승화시켰고, 그 결과 다이내믹과 표현력이 넘치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다큐멘터리 필름에는 나초 두아토가 스페인의 자연에서 받은 영감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rthaus 109131 **[DVD]**
Arthaus 109173 **[Blu-ray]**

구레츠키: 교향곡 '슬픔의 노래'

토니 파머(감독), 던 업쇼(소프라노), 런던 신포니에타, 데이비드 진먼(지휘)

'현대음악 사상 초유의 밀리언셀러'와 관련한 작곡가 자신의 고백

공산 정권 시절 폴란드에서 헨리크 구레츠키는 거론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고, 그의 작품은 어느 것도 연주되지 않았다.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는 이런 분위기가 지배하던 1976년에 작곡되었다. 이 곡은 곧 비밀 경로로 동구권 전체에 퍼져나갔고, 1992년에는 데이비드 진먼이 던 업쇼와 함께 이 곡을 녹음해 서구권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1993년에 촬영된 이 영상물에서는 진먼의 음원이 배경에서 흐르는 가운데 60세를 맞은 구레츠키가 직접 등장해 자신의 삶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글 자막 포함.

[보조자료]

– 이 영상물은 공연 실황을 담은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공산 정권 시절 폴란드에서 헨리크 구레츠키는 거론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고, 그의 작품은 어느 것도 연주되지 않았다.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는 이런 분위기가 지배하던 1976년에 작곡되었다. 이 곡은 곧 비밀 경로를 통해 동구권 전체에 퍼져나갔고, 1992년에는 데이비드 진먼이 던 업쇼와 함께 이 곡을 녹음함으로써 서구권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를 기점으로 이 곡을 녹음한 음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들 음반의 누계 판매량은 백만 장을 넘어섰다. 현대음악 가운데 '밀리언셀러'라 부를 만한 곡은 아직도 이것이 유일하다.

– 이 영상물에서는 진먼의 음원이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가운데 말년의 구레츠키가 직접 등장해 자신의 삶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곡가의 고향 카토비체 근교에는 2차 대전 참극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남아 있다(구레츠키는 자신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오두막에 수용소에서 시체를 태운 재가 날아들곤 했다고 회상한다). 1970년에 구레츠키는 폴란드가 나치에 점령된 시기를 다룬 책을 접했다. 그 책에 적힌 내용 가운데 아우슈비츠 이야기를 다룬 한 대목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희생자들이 수용소 벽에 적은 여러 글귀 중 어린 소녀가 남긴 글이 '슬픔의 노래'에 영감을 주었다. 그 글귀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엄마, 울지 마'

Arthaus 109079 **[DVD]**
Arthaus 109080 **[Blu-ray]**

바인베르크: 오페라 '승객' (The Passenger)

미셸 브레트(메조소프라노), 엘레나 켈레시디(소프라노), 테오도르 쿠렌치스(지휘)

아우슈비츠와 그 이후, 두 여인 사이에 벌어지는 진실게임

2010년 브레겐츠 공연 실황. 폴란드 출신 러시아 작곡가 바인베르크(1919~96)는 생전에 '프로코피예프와 쇼스타코비치에 이어 세 번째로 위대한 러시아 작곡가'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의 오페라 '승객'은 2차 대전 당시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조피아 포스미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브라질로 가는 배에 탄 승객 중 한 사람인 리사는 자신이 아우슈비츠 경비로 일하던 시절에 수감자였던 인물을 보았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 상황과 이들 사이에 얽힌 과거사가 서로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쟈켓에는 한국어, 일본어 자막이 표시되어 있지만 한국어, 일본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조자료]

– 폴란드의 출신의 러시아 작곡가 미에치수아프 바인베르크(1919~96, 모이세이 바인베르크로 불리기도 한다)는 스탈린 시절 극에 달했던 유대인 박해 때 붙잡혀 살해당할 뻔했으나, 체포된 뒤 한 달 만에 스탈린이 급사하면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후 그는 죽을 때까지 22개의 교향곡과 17개의 현악 사중주 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생전에 '프로코피예프와 쇼스타코비치에 이어 세 번째로 위대한 러시아 작곡가'로 불리기까지 했다. 그의 작품은 '신고전적이며 이성주의적인 명석함과 균형감이 빛난다'는 평을 받고 있다.

– 바인베르크의 오페라 '승객'은 2차 대전 당시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지닌 작가 조피아 포스미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는 대본에 기초하고 있다. 이 오페라는 2층으로 이루어진 무대에서 공연된다. 위층은 2차 대전 뒤 독일에서 브라질로 향하는 배의 갑판이다. 독일 외교관인 발터는 아내인 리사(혹은 리제)와 함께 새 근무지로 향하는 중이다. 리사는 갑판 위에 나타난 한 여인을 보고 그녀가 자신이 아우슈비츠에서 경비로 근무하던 시절(리사는 이를 남편에게 숨기고 있었다)에 수감자였던 폴란드 여인 마르타가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무대의 아래층은 강제수용소를 묘사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리사와 마르타의 과거사가 다루어진다. 이 오페라의 줄거리는 이 두 층을 오가면서 전개된다.

– 무대감독 : 데이비드 푼트니

– 주역 : 미셸 브레트(메조소프라노/리사 역), 엘레나 켈레시디(소프라노/마르타 역)

– 연주 :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라하 필하모니 합창단

– 2010년 브레겐츠 공연 실황

– 자막 : 독어, 영어, 불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등

Arthaus 101796 [5 DVDs]
Arthaus 101797 [3 Blu-ray]

Key 이슈!!!

시벨리우스: 7개의 교향곡 전집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누 린투(지휘)

*** 독보적인 시벨리우스 연주의 원형**

*** 각 교향곡마다 콘서트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작품 배경에 대한 역사적인 해설을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와 작품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해설을 음악학자와 지휘자 한누 린투가 나누는 인터뷰 영상 (한글자막)**

*** 보너스: 시벨리우스 다큐멘터리**
한 인간으로서의 시벨리우스를 조명한, 약1시간 10여분 정도 길이의 다큐멘터리인 'Sort of Sibelius'가 한글자막과 더불어 수록

*** 90 페이지의 해설책자**

*** 2015/16 아트하우스 카탈로그 부록**

[구성]

* 5 DVD BOX / 3 Blu-Ray BOX

* PCM Stereo / DTS-HD Master Audio 5.0

*** 화면 16:9 / Subtitle 한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 지역코드 0**

시벨리우스 음악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정서적 정통성과 음악적 정확성을 부여한 기념비적인 기획

이 영상물은 핀란드 작곡가인 얀 시벨리우스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트하우스에서 기획한 것으로서, 그의 교향곡 7개 모두를 핀란드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인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핀란드 지휘자인 한누 린투가 녹음, 녹화한 최초의 영상물 교향곡 전집이다. 시벨리우스의 음악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정서적 정통성과 음악적 정확성을 부여한 기념비적인 기획인 이 영상물 전집은 작곡가에 대한 역사적, 음악적, 분석적 기준과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한누 린투는 서울시향을 객원지휘한 바 있는, 우리에게 대단히 친숙한 지휘자이기도 하다.

[보조자료]

독보적인 시벨리우스 연주의 원형

– 영상물들을 일별해 보면 린투와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의 시벨리우스는 그 어떤 녹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자연스러운 동시에 한 편의 연극이 펼쳐지는 것처럼 정교하면서도 드라마틱하다. 이러한 연주가 바로 시벨리우스의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황홀한 음악과 음악적 몰입도를 제공하는 만큼 우리 시대 시벨리우스 교향곡의 표본으로 삼을 만하다. 연주는 헬싱키 뮤직 센터에서의 라이브 레코딩으로서 다양한 앵글과 많은 수의 카메라가 마치 악보를 옮겨놓은 듯 디테일과 파트를 정확하고도 자연스럽게 포착해냈다. 음질 퀄리티도 대단히 높은 편으로서 홀의 낭랑한 울림과 훌륭한 밸런스, 악단의 따스한 질감과 완벽한 앙상블, 지휘자의 다이내믹하면서도 서정적인 해석 모두가 완벽하게 재생된다.

– 교향곡은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작곡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간다는 신념에 대한 선언에 가깝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 시벨리우스.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향한 창을 열어주었다고 평가받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들은 20세기 교향곡 레퍼토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일컬어진다. 시벨리우스의 음악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정서적 정통성과 음악적 정확성을 부여한 기념비적인 기획인 이 영상물 전집은 작곡가에 대한 역사적, 음악적, 분석적 기준과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작곡배경과 진지한 작품해설 영상물

– 특히 각 교향곡마다 콘서트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작품 배경에 대한 역사적인 해설을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와 작품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해설을 음악학자와 지휘자 한누 린투가 나누는 인터뷰 영상물 두 개가 먼저 수록되어 있다. 각 교향곡마다의 작품배경은 당시의 역사적인 사진들이나 작곡가가 작곡할 당시의 도시나 환경의 영상물들을 바탕으로 사실성과 역사성을 강조, 작곡가 신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된다. 한편 작품에 대한 인터뷰 영상은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작품의 구조와 주제들의 제시 및 발전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이 담겨 있어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가이드 역할을 해 준다. 한편 하드커버로 정성스럽게 만든 박스 안의 해설서에는 'The Large-Scale Genres', 'Teleology or Chronology', 'The Fourth is Closer To Me' 라는 세 개의 아티클이 수록되어 있어 각기 다른 관점과 주제로 교향곡들과 작곡가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 보너스: 시벨리우스 다큐멘터리 "Sort of Sibelius" [한글자막]**

한 인간으로서의 시벨리우스를 조명한, 약 한 시간 10여분 정도 길이의 다큐멘터리인 'Sort of Sibelius'가 한글자막과 더불어 수록되어 있다.
1. 용모와 인간성 – 2. 천재성과 자연 – 3.건강과 신경과민 – 4. 돈과 쾌락 – 5. 아버지와 가족 – 6. 작품과 영감 – 7. 아이노와 얀네 – 8. 중단의 어려움
이상 8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이 다큐멘터리는 작곡가로서의 시벨리우스라기보다는 한 인간에 대한 영상일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삶과 생활, 건강과 가족 등 그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 대해 재치 있는 영상과 흥미로운 주제들을 갖고 관찰한 훌륭한 영상물이다. 작곡가인 카이야 사리아호와 작가인 마르티 안하바, 편집자인 헬레나 아호넨 등이 출연하여 설명을 덧붙여가고, 인터뷰이로는 재봉사, 의사, 테라피스트, 와인 커너서, 필체 감정가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시벨리우스의 삶을 하나하나씩 증명해 나아간다. 흥미로운 내용도 훌륭하지만 전문 배우들의 상황재현 연기와 인터뷰, 도시의 다양한 모습들,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다채롭게 교차시킨 편집과 영화적인 영상미가 주는 영상물로서의 독창적인 재미 또한 그 이상이다.

Arthaus 101798 **[DVD + CD]**
Arthaus 101799 **[Blu-ray + CD]**

키로프 클래식스

쇼피니아나/ 페트루슈카/ 아다지오/ 해적/ 인형/ 파퀴타 외

키로프 발레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역사적인 기록물

러시아의 발레의 역사는 17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 때부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훌륭한 무용수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져내려오고 있다. 1977년 키로프 발레단의 중요한 단원으로서 레닌그라드(현재 상뜨 페테르부르크)의 매우 중요한 바가노바 발레학교를 졸업한 올레그 베노그라도프가 키로프 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취임했다. 그가 선보인 안무와 작품들은 전통을 따르는 동시에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서 키로프 발레(현재는 마린스키 발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기 수록된 영상물들은 키로프 발레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1991년 단마크 라디오 아르후스 댄스 스튜디오에서 저명한 감독인 토마스 그림이 제작한 것이다. 키로프 발레단의 고전과 현대 발레 레퍼토리에서 선별한 중요장면들로서, 미하일 포킨느가 쇼팽의 음악에 맞추어 안무한 '쇼피니아나'와 20세기 발레의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사용한 '아다지오', 아돌프 아당 음악에 의한 고전 발레인 '해적', '마르키텐카'로부터의 6인무와 마리우스 페티파의 발레 '파퀴타'로부터의 그랑 파 등을 수록하고 있다.

[보조자료]

* 쇼피니아나: 알티나이 아시무라토바, 콘스탄틴 자클린스키, 예레나 판코바, 아나 폴리카프포바
* 페트루슈카: 바야티슬라프 오쿠네프, 세르게이 비카레프
* 아다지오: 예레나 예프티바, 엘다 알례프
* 해적 파 드 되: 류보프 쿠타코바, 파로크 루지마토프
* 페어리 돌: 라리사 레즈니나, 드미트리 그루즈데프, 야로슬라프 파다예프
* 마르키텐카 파 드 시스: 예레나 판코바, 세르게이 비카레프, 이리나 시트니코바, 알렉산더 콜툰
* 파퀴타: 율리아 마크하리나, 이고르 젤렌스키
* 연주: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박토르 A. 페도토프(지휘)

Arthaus 109164 **[DVD]**

마리아 주엉 피레스 – 어느 피아니스트의 초상

마리아 주엉 피레스(피아노)

피아니스트이자, 딸, 엄마로서 이야기하는 피레스의 자기 고백

1944년생으로 이미 칠순인 마리아 주엉 피레스는 오늘날 현존하는 포르투갈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이 시대의 독보적인 모차르트 해석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1991년경에 촬영된 이 영상물은 피레스가 모차르트와 쇼팽, 베토벤, 슈베르트 등 여러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는 모습 사이사이에 피레스 자신과 그녀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피레스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주 영상은 모차르트 전문가로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할 것이다.

[보조자료]

– 누구나 현존하는 포르투갈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이 시대의 독보적인 모차르트 해석가로 인정하는 데 주저치 않는 마리아 주엉 피레스는 1944년생으로 어느덧 칠순에 접어들어 있다. 피레스는 다섯 살 때 첫 독주회를 열었고 일곱 살 때 이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할 정도로 일찍부터 신동 기질을 보였다. 그러다가 1970년에 브뤼셀에서 열린 베토벤 탄생 200주년 기념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80년 전후로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동안 무대에서 은퇴했으나 얼마 후 복귀하여 다시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갔다.

– 1991년경에 촬영된 이 영상물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시작으로 쇼팽 등 여러 작곡가의 작품 연주 영상 사이사이에 피레스 자신과 피레스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두 사람은 다소 과보호되었던 피레스의 어린 시절이나 그녀 특유의 예민한 감수성, 연주자로서 자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울러 자신이 한동안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또한 풍부하게 수록된 각종 연주 영상은 피레스의 모차르트 연주에만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폭넓은 음악성의 소유자인가를 일깨워줄 것이다.

[수록곡]

–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26번, 피아노 소나타 K.280
– 쇼팽: 녹턴 1번 및 7번 / 풀랑크: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 2번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번
– 슈만: '숲의 정경' 중 '고별'

Arthaus 109161 **[2DVD]**
Arthaus 109162 **[Blu-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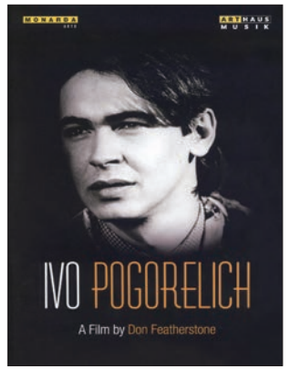
요한 슈트라우스: 박쥐 (조안 서덜랜드 고별 갈라)

아델레: Judith Howarth/ 로잘린데: Nancy Gustafson/ 알프레도: Bonaventura Bottone / 에이젠슈타인: Louis Otey/ 블린트 박스: John Dobson/ 팔케 박사: Anthony Michaels-Moore/ 오를로프스키 공작: Jochen Kowalski/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리차드 보닌지(지휘)

***스페셜 게스트: 조안 서덜랜드, 마릴린 혼, 루치아노 파바로티**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서덜랜드의 고별 갈라 실황

2010년 스위스에서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조안 서덜랜드가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1990년 12월 31일에 가진 고별 갈라 실황 연주회 실황을 담은 DVD. 1952년 '마술피리'로 처음으로 코벤트 가든 무대에 선 이후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그녀가 이 오페라 하우스에 등장하는 마지막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특별한 감흥을 자아낸다. '박쥐' 전곡은 리차드 보닌지가 지휘, 낸시 구스타프슨과 우리스 오테이 등등이 출연한 영어 오페레타 공연으로서, 이 가운데 2막의 파티 갈라 장면에서 초대손님으로 서덜랜드를 비롯하여 그녀의 오랜 파트너들인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마릴힌 혼이 함께 등장한다. 여기서 서덜랜드는 그들과 함께 '세미라미데'와 '라 트라비아타' 2중창을 노래하고 '홈 스위트 홈'을 마지막으로 혼자 노래한다. 그 가운데에는 파바로티의 "페데리코의 탄식"과 혼의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와 같은 독창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1994년 호주 오페라에서 제작한 서덜랜드의 아리아 세 개, '일 트로바토레' 가운데 "사랑은 장밋빛 날개를 타고"와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가운데 광란의 장면, '노르마' 가운데 "정결한 여신"이 수록되어 있어 이 DVD의 역사적 가치를 높여준다.



Arthaus 109165 **[DVD]**

이보 포고렐리치 라벨: '밤의 가스파르'

이보 포고렐리치(피아노)

예술가로서 접하는 이보 포고렐리치의 진면목

1958년생으로 유고슬라비아 출신 피아니스트인 이보 포고렐리치는 1980년 모스크바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1980년에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에 머문 것은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항의의 뜻으로 심사위원직을 사퇴할 정도로 논란거리가 되었다.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자로 이름난 돈 피더스톤은 포고렐리치가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1983년에 그의 집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여기서 포고렐리치는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등을 연주하는 한편 스승이자 아내인 알리자 케제라제에 대한 이야기나 자신의 예술관 등을 토로하고 있다.

Dynamic

www.dynamic.it

Dynamic 37730 **[DVD]**

라 스칼라 극장의 황금시대 3집

플라시도 도밍고/ 클라우디오 아바도/ 피에로 카푸칠리/ 미렐라 프레니/ 엔초 비아지(인터뷰)

20세기 라 스칼라를 이끌었던 주역들의 공연과 함께 육성 인터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이탈리아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엔초 비아지가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주역들과 직접 인터뷰를 했던 영상물이다. 20세기에 라 스칼라를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으로 이끌었던 주역들의 공연과 함께 육성 인터뷰를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이 영상물은 1981년과 82년에 걸쳐 16mm 필름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 영상물로 복원되어 공개되었다. 3집에는 1981년에 있었던 일본 투어를 중심으로 제작된 약 40분 길이의 다큐멘터리 두 편 '밀라노-도쿄'와 '사요나라 스칼라!'가 수록되어있다. '밀라노-도쿄'는 베르디의 〈오텔로〉를 중심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 투어에서는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를 맡았으며 플라시도 도밍고가 오텔로 역으로 등장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도밍고의 인터뷰와 함께 공연의 장면들을 보여준다. '사요나라 스칼라!'는 일본 투어에서 〈오텔로〉와 함께 공연된 베르디의 〈시몬 보카네그라〉에 대해서는 주역으로 무대에 섰던 바리톤 피에로 카푸칠리와, 그리고 베르디의 〈진혼 미사곡〉의 히로인 미렐라 프레니와의 인터뷰도 수록되어있다.

[보조자료]

– 라 스칼라의 황금시대 시리즈의 3집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라 스칼라를 이끌었던 주역들의 인터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영상물에서는 도쿄에서 오텔로를 성공적으로 공연했던 플라시도 도밍고가 등장한다. 도밍고는 1969년에 안토니오 보티가 지휘했던 〈에르나니〉에서 데뷔한 후 최근인 2014년 11월 〈시몬 보카네그라〉까지 끊임없이 라 스칼라의 무대에 서왔다. 도밍고는 특출난 사교성과 인상적인 무대 매너로 밀라노 청중들로부터 오랜 사랑을 받아왔다. 그가 라 스칼라 무대에서 공연한 기간은 자그마치 45년으로, 가장 오랫동안 라 스칼라 무대에 섰던 가수 중 한 사람이다.

– 도밍고와 함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라 스칼라에 자주 모습을 보였던 사람은 피에로 카푸칠리였다. 그는 완벽한 이탈리아 바리톤이었다. 도쿄에서 그가 자주 공연했던 작품 중 하나였던 〈시몬 보카네그라〉에서 열연했다. 이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자주 공연되는 작품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덕에 이 작품이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1981년 9월 1일 도쿄에서의 첫 공연에서는 20분에 이르는 박수를 받는 등, 일본 투어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연으로 손꼽는다.

– 베르디의 〈진혼 미사곡〉에서 최고의 노래를 들려준 미렐라 프레니는 최고의 명성을 누린 소프라노로, 정기적으로 라 스칼라 무대에 올랐다. 1962년에 라 스칼라에 데뷔한 그녀는 밀라노에서 베르디, 푸치니 등의 작품을 수천 번 공연했으며, 많은 뛰어난 녹음들을 남겼다. 그녀는 70세였던 2005년에 은퇴했다.

Dynamic 37675 **[DVD]**

리치 : 크리스피노와 요정

콜라이아니(베이스), 보스콜로(메조), 본파델리(소프라노) 외, 비냐미니(지휘)

21세기에 복원된 요정 이야기 [세계 최초 녹음]

2013년 7월 공연 실황. 루이지 리치와 그 동생 페데리코 리치는 둘 다 오페라 전문 작곡가였으며, 몇몇 작품은 합작해서 쓰기도 했다. 1850년에 초연된 '크리스피노와 요정'도 형제의 합작품으로, 19세기에는 매우 인기를 끌었다. 가난한 구두장이인 크리스피노는 요정의 도움으로 성공을 거두지만, 졸부가 된 그는 올바로 처신하지 못하고 아내를 학대한다. 그러나 결국 요정의 깨우침으로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가가 화합하게 된다. DVD로는 세계 최초 녹음인 이 영상물에서 한때 부당하게 잊힌 이 오페라의 참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조자료]

– 루이지 리치(1805~59)와 페데리코 리치(1809~77)은 둘 다 19세기에 활동한 오페라 전문 작곡가로, 각자 개별적으로 활동했지만 몇몇 작품은 합작해서 쓰기도 했다.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의 이탈리아어 대본에 의한 4막 오페라인 '크리스피노와 요정'은 1850년 2월에 초연된 이후로 크게 인기를 끌었으며, 한때는 미국에서 공연하는 이탈리아 오페라단들의 단골 레퍼토리이기도 했다.

– 이 오페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벌어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구두장이 크리스피노는 요정의 도움을 받아 약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졸부가 된 그는 올바로 처신하지 못하고 아내를 학대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요정의 깨우침을 받은 크리스피노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다시 일가가 화합하게 된다.

– 이 오페라는 19세기에 엄청난 인기를 끈 것과 대조적으로 20세기 들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잊히는 신세가 되었으며, 21세기 들어서야 복원 시도가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7월 13일과 29일에 이탈리아 남부 도시 마르티나 프랑카에 있는 두칼레 궁전에서 이루어진 공연도 이런 시도의 일환이었다. 당시 공연을 담은 이 영상물은 '크리스피노와 요정'을 DVD화한 세계 최초 영상물이다. 무대감독 알레산드로 탈레비를 비롯한 연출팀은 의상과 무대를 21세기로 설정하여(유로화 마크가 그려진 돈가방이 나온다) 줄거리가 지나치게 진부해 보이지 않도록 연출했다. 지휘자 야더 비냐미니가 지휘하는 페트루첼리 극장 소속 이탈리아 국립 오페라단 오케스트라의 반주와 크리스피노 역의 베이스 도메니코 콜라이아니, 크리스피노의 아내 아네타 역의 스테파니아 본파델리, 요정 역의 로미나 보스콜로 등 성악진 모두 한때 부당하게 잊힌 이 오페라의 참모습을 알게 해주기에 부족함 없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Dynamic 37719 **[DVD]**

스카를라티 : 디린디나
알비노니 : 핌피노네

데 시모네(소프라노), 토리아니(테너), 보르톨라토, 부세티니(지휘)

같은 성악진이 노래한 두 개의 유쾌한 막간극

자기가 쓰지도 않은 곡('아다지오')으로 유명한 알비노니의 진짜 작품 중 하나인 '핌피노네'는 원래 그의 오페라 '아스타르토'의 일부로 계획된 막간극이다. 지체 낮은 젊은 여인과 사랑에 빠진 부유한 늙은이를 다룬 이 작품은 워낙 인기를 끌어 단독으로 여러 차례 공연되었다. 이 곡이 작곡된 뒤 불과 7년 뒤에 세상에 나온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디린디나'는 '암블레토'의 막간극으로 작곡되었으며 오랫동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으나 필사본이 발견되어 부활할 수 있었다. 두 작품 모두에서 주역을 맡은 데 시모네와 토리아니는 완벽한 호흡으로 노래했다.

[보조자료]

– 음악사에서 토마소 알비노니만큼 얄궂은 운명을 타고난 작곡가도 드물 것이다. 그는 오직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곡은 실제로는 알비노니의 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무능한 작곡가가 결코 아니었으며, 그의 '진짜' 작품 중 하나로 이 DVD에 수록된 '핌피노네'도 이를 증명하는 곡 중 하나이다. 원래는 '아스타르토'라는 오페라의 일부로 계획된 막간극으로 지체 낮은 젊은 여인과 사랑에 빠진 부유한 늙은이(페르골레시의 '마님이 된 하녀'와 비슷한 소재이다)를 다룬 이 작품은 워낙 인기를 끌어 단독으로 여러 차례 공연되었다.

– 도메니코 스카를라티가 '디린디나'를 작곡한 것은 '핌피노네'가 나온 지 불과 7년 뒤의 일이었다. 알비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곡 역시 '암블레토'라는 오페라의 막간극으로 작곡되었다. 젊은 귀족 여성과 그녀의 음악교사 및 카스트라토 사이에서 벌어지는 오해를 다룬 이 막간극은 내용이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여긴 높으신 분들의 압력으로 곧 다른 곡으로 대체되었다. 이후 이 작품은 오랫동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으나, 필사본이 발견되어 부활할 수 있었다.

– 소프라노 엘레나 데 시모네는 하녀('핌피노네'에서)와 귀족 여인('디린디나'에서)이라는 상반된 역을 사랑스러운 연기로 훌륭하게 소화했으며, 베이스 카를로 토리아니 역시 두 곡 모두에서 부포 베이스(희극 오페라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우스꽝스러운 베이스 역할)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연기로 데 시모네와 절묘한 호흡을 보여준다.

Dynamic 33764 [DVD]
Dynamic 55764 [Blu-ray]

푸치니 : 투란도트

데시(소프라노), 말라니니(테너),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렌체티(지휘)

세 개의 수수께끼와 하나의 삶, 그리고 영원히 매혹적인 오페라

망국의 왕자가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고 오만한 중국 공주와 사랑으로 맺어지는 이야기는 푸치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매혹하고 있다. 2012년 12월 카를로 펠리체 극장 공연 실황을 담은 이 공연에서 지휘자 도나토 렌체티는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말쑥하게 다듬어진 연주를 들려주며, 투란도트 역의 다니엘라 데시나 칼라프 왕자 역의 마리오 말라니니 같은 주역뿐만 아니라 류 역의 로베르타 칸치안, 황제와 티무르, 핑, 팡, 퐁에 이르기까지 고른 완성도로 노래하고 있다.

Eagle Rock Entertainment

www.eagle-rock.com

ERBRD 5258 [Blu-ray]

RITCHIE BLACKMORE:
THE RITCHIE BLACKMORE STORY

기타의 전설이란 무엇인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 하나의 타이틀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기타 연주자 중 하나인 리치 블랙모어

딥 퍼플과 레인보우의 결성 시 함께 한 리치는 다양한 스타일을 모두 섭렵하며 그가 바로 기타의 주인임을 증명해내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리치의 인터뷰.

리치의 추종자들인
브라이언 메이, 글렌 휴즈, 라스 울리히, 스티브 루카서, 조 새트리아니,
데이비드 커버데일, 진 시몬스, 조 린 터너, 스티브 바이, 그레이엄 보닛과
이안 앤더슨이 함께 이야기 하는 놀라운 리치의 행적.

ERBRD 5278 [Blu-ray]

LADY ANTEBELLUM:
WHEELS UP TOUR

미국의 3인조 혼성 컨트리 팝 그룹 '레이디 앤터벨룸' 의 2015 투어 실황.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된 이 투어는 유럽과 호주를 거쳐 북미에 입성,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대 단원을 내릴 것이다. 이 타이틀은 6월 27일,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원형 극장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으로 생생한 무대 뒷 모습과 팬 미팅 등 투어 기간중의 세 멤버들 모습을 그대로 담아 내었다.

ERBRD 5279 [Blu-ray]

THE JAM:
ABOUT THE YOUNG IDEA

The Jam의 젊은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1982년 밴드 자체 최고 기록을 갱신한 Town Called Malice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The Jam의 자서전 적 타이틀이 발매되었다. 밴드의 소중한 영상 자료, 폴 웰러와 브루스 폭스, 릭 버클러와 함께 한 새로운 인터뷰.
팬들과 기자들의 끊임 없는 찬사와 함께 독일의 인기 TV 프로그램 'Rockpalast'에서 보여준 미공개 퍼포먼스까지 The Jam 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ERSBD 3023 [Blu-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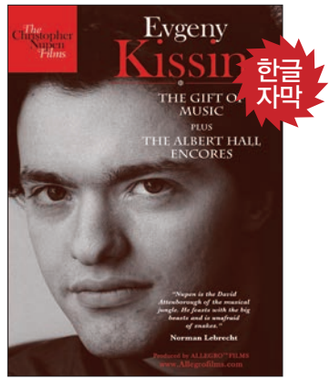
THE ROLLING STONES/ FROM THE VAULT:
LIVE IN LEEDS 1982

From The Vault 시리즈의 또 다른 미 발매 콘서트

유럽 투어의 마지막 무대였던 1982년 영국 리즈의 라운드 헤이공원에서의 공연 실황. 이언 스튜어트와 함께 한 마지막 무대로 Tattoo you 앨범을 포함한 25곡의 셋리스트, 신중하게 복원된 사운드로 돔 공연과는 다른 재미의 야외 공연 실황을 느낄 수 있다.

Aulos Media

www.aulosmedia.com



Aulos Media ADVD 067 **[DVD]**

[꼭 소장해야 하는 영상물!!]

예브게니 키신 – 음악의 재능

Evgeny Kissin/ The Gift of Music

103년의 프롬나드 콘서트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 (6천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로열 앨버트 홀 콘서트 공연 앙코르 전 장면과 그의 성공 스토리

그를 '천재 중의 천재'라고 불렀던 이유

20세기 예리한 비평가, 수많은 청중과 전문 연주가들 모두가 천재 중의 천재라며 감탄했던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영상물이다. 2살 때 피아노를 시작한 그가 탁월한 재능으로 걸어온 경력 초기의 모습을 담았는데, 꼭 소장해야 하는 타이틀은 바로 이런 영상물이다. 뒤프레 필름에서 송어 5중주를 흥미롭게 보여줬던 누펜이 이 영상물에서도 기돈 크레머를 위시한 연주자들과 함께한 키신의 모습을 조명한다. 아주 흥미롭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은 1997년 8월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의 앙코르 공연이다. 거의 6천명의 청중들이 이 26세 피아니스트를 놓고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는,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프롬나드 콘서트다. 당시 103년 프롬나드 콘서트 사상 최대 사건이었다. 리스트, 글루크,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파가니니, 그리고 자신의 곡까지, 천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초절기교를 보여준다.

Aulos Media ADVD 068 **[DVD]**

[꼭 소장해야 하는 영상물!!]

다닐 트리포노프 – 음악의 마법

Daniil Trifonov/ The Magics fo Music

"트리포노프의 기교는 경이로울 따름이다. 그리고 그의 터치에는, 천부적인 부드러움과 동시에 악마적인 요소가 있다. 지금까지 이런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다."

– 마르타 아르헤리치 –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격하게 감동했던 20대 거장

1991년 생, 다닐 트리포노프의 다큐멘터리 필름이다. 20세에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를 석권했고, 이미 유니버설의 그라모폰, 데카 음반을 통해 그 실력을 뽐내고 있는, 이 시대 가장 젊으면서 믿음직한 러시아 피아니스트다. 아르헤리치는 '모든 것을 갖췄고, 아니 그 이상'이라며 극찬했는데, 하지만 정작 그는 늘 겸손하고 소탈하며 늘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이다. 훈련과정, 콘서트 준비, 음악해석 등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포인트는 그가 얼마나 많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미묘한 차이를 생각하며,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인가 하는 점. 그는 단순히 양팡 테리블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훌륭한 작곡가이기도 하다. 2014년 4월 미국 클리블랜드 인스티튜트에서 선보인 자신의 첫 피아노 협주곡으로 증명해 보인다. 러시아 낭만주의 작곡가의 풍모다. 후반부 리사이틀은 이탈리아 베네치아 근교 카르텔프랑코 베네토의 한 콘서트 실황. 쇼팽, 스크랴빈, 요한 슈트라우스,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연주한다.

Coming Soon !

New Year's Eve Concert 2015

Berliner Philharmoniker
Sir Simon Rattle
Anne-Sophie Mutter_ Violin

EuroArts
2061478 (DVD)
2061474 (Blu-ray)

Beethoven Violin Concerto & Symphony No.6 "Pastoral"

Berliner Philharmoniker
Bernard Haitink
Isabelle Faust_ Violin

EuroArts
2061298 (DVD)
2061294 (Blu-ray)

낙소스 코리아 추천도서

- 클래식 음악 애호가를 사로잡는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가〉 시리즈

CD 2장 부록

모차르트, 그 삶과 음악
간행물윤리 위원회 선정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제러미 시프먼 지음
임선근 옮김
155×220mm
280쪽
20,000원
위대한 작곡가이자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매혹적인, 그러나 정의하기 어려운 그의 참모습을 보다.

베토벤, 그 삶과 음악
제러미 시프먼 지음
김병화 옮김
155×220mm
288쪽
20,000원
음악가로서 감당하기 힘든 가장 큰 장애와 맞붙어 싸웠던 영웅, '악성 베토벤'. 키가 작다는 것만 빼면 모든 면에서 거인이었다.

하이든, 그 삶과 음악
데이비드 비커스 지음
김병화 옮김
155×220mm
248쪽
20,000원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스승,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일생을 통해 18세기 유럽의 역사와 음악을 꿰뚫어 본다.

멘델스존 그 삶과 음악
널 웰본 지음
김병화 옮김
155×220mm
288쪽
20,000원
펭론가들이 뽑은 음악사 최고의 천재. 38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믿기 어려운 기록들을 남긴 위대한 음악가 멘델스존의 일생을 파고든다.

CD 2장 부록

쇼팽, 그 삶과 음악
제러미 니콜러스 지음
임희근 옮김
155×220mm
368쪽
20,000원
피아노의 시인, 피아노의 마음, 피아노의 영혼. 39년의 짧은 삶을 오직 피아노를 위해 살았던 위대한 작곡가이자 연주자 쇼팽을 만난다.

말러, 그 삶과 음악
스티븐 존슨 지음
임선근 옮김
155×220mm
260쪽
20,000원
클래식 애호가의 폭넓은 사랑과 경배를 받는 말러. 인간 말러의 기쁨과 슬픔, 그의 예술적 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차이콥스키, 그 삶과 음악
제러미 시프먼 지음
김형수 옮김
155×220mm
260쪽
20,000원
괴팍한 천재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영화음악을 예고하는 러시아의 서정, 섬세하고 매력적인 예술가 차이콥스키를 만난다.

바그너, 그 삶과 음악
스티븐 존슨 지음
이석호 옮김
155×220mm
276쪽
20,000원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재능으로, 반유태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바그너의 불꽃 같은 삶과 음악을 만난다.

- 음반 2장과 함께 읽는 〈클래식, 시대와의 만남〉 시리즈

CD 7장 부록

클래식, 고음악과의 만남
루시엔 첸킨스 지음
임선근 옮김
150×220mm
124쪽
20,000원
교회음악과 중세음악은 물론, 음악에 적극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실기 시작하며 인쇄술의 발전으로 음악의 대중확산에 기폭제가 되었던 르네상스 음악을 모두 만날 수 있다.

클래식, 바로크시대와의 만남
클라이브 옹거 해밀턴 지음
김형수 옮김
150×220mm
160쪽
20,000원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음악으로, 바흐, 헨델, 비발디 등의 작품을 통해 '바로크'의 원뜻인 '기괴하다'는 조롱이 사라지고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유럽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클래식, 고전시대와의 만남
스티븐 존슨 지음
김지량 옮김
150×220mm
128쪽
20,000원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초까지의 음악으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걸작들, 베토벤의 원숙한 첫 작품이 탄생했다. 자연과 인간,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추구한 고전시대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클래식, 낭만시대와의 만남
데이비드 맥클리리 지음
김형수 옮김
150×220mm
184쪽
20,000원
19세기에 성행했던 음악으로, 자유로운 형식과 연주 기법, 그리고 주제와 이념을 소설과 미술 등에서 찾는 표제음악이 발전했다. 슈베르트, 차이콥스키,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등이 있다.

클래식, 현대음악과의 만남
데이비드 맥클리리 지음
김형수 옮김
150×220mm
224쪽
20,000원
전통적 표현 수단과 결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가 활발했던 20세기의 음악으로, 필립 글래스, 쇼스타코비치, 메시앙 등을 통해 우연성 음악, 구체음악, 전자음악 등을 접할 수 있다.

출판사 : PHONO 음악, 삶의 풍요

판매처 :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교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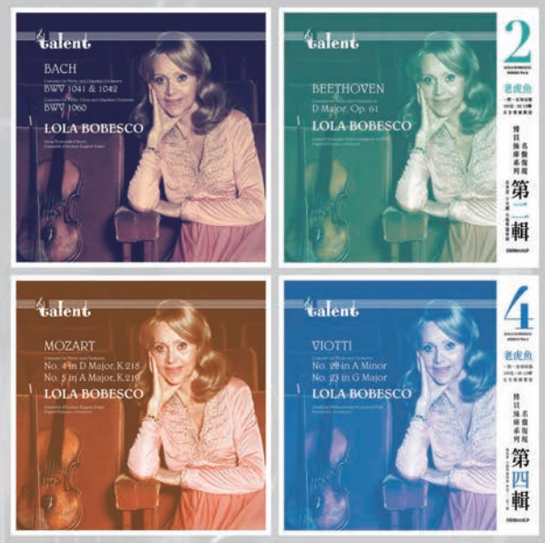
클래식 음반사 Naxos의 한국지사, 낙소스 코리아는
국내 시장의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구독 및 관련사업, 음원유통,
라이센싱 업무 등에 관해서는 낙소스 코리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naxos.co.kr | twitter.com/naxoskorea
Naxos Korea (낙소스 코리아) 02-717-1070

NAXOS MUSIC LIBRARY · NAXOS SPOKEN WORD LIBRARY · NAXOS Music Library jazz · naxos video library
NAXOS WEB RADIO · NAXOS AudioBooks · YouTube · twitter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구독하시면, Naxos를 비롯한 Warner Classics, Teldec, EMI Classics...등 다양한 레이블의 1백만여 곡의 음악을 스트리밍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낙소스 코리아)

talent 독일제작 180g 슈퍼 LP

바이얼린 벨기에 악파 최후의 대표 바이얼리니스트 "롤라 보베스코"의 대표적인 녹음



1
BACH:
Violin Concerto BWV1041,1042 & 1060
SRM012LP

2
BEETHOVEN:
Conerto for Violin & Orchestra Op.61
SRM015LP

3
MOZART:
Concerto for Violin & Orchestra No.4 & 5
SRM026LP

4
VIOTTI:
Concerto for Violin & Orchestra No.22 & 23
SRM030LP

헨루마니아의 크라이오바 태생. 아버지 한테 처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불과 **6세 때 첫 콘서트를 가진 신동**으로, 오늘날 처럼 미도리, 장영주 등이 없던 시절에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나타난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였다. 어린 나이로 유럽 전역의 중요 도시에서 많은 연주를 해보였던 그녀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신동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프랑스 악파의 두 거장인 마르셀 샤이유에와 쥘 부세리에게 사사**하였고, 그곳에서 불과 12세의 나이로 최우수 바이올린 상을 받았다. 그녀의 이력은 점점 더 화려해졌다. **1937년 브뤼셀의 유진 이자이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최연소 수상자로 결정**됨에 따라 명실공히 세계가 주목하는 괄목할만한 연주자로 급부상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세계 최고의 악단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3번이나 초청 협연**을 했고, **앙세르메, 첼리비다케, 켐페, 폰 마타치치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들이 함께 연주**했을 만큼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보베스코는 1980년 이래 그녀는 일본에서 정규적으로 협연하거나 독주회를 개최해왔다. 따라서 그녀는 최근에는 유럽 보다는 일본에서 더 유명한 음악가로 인식되기도 했다. 일본 내에 중요한 팬 클럽까지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중요한 음반들은 일본의 킹 레코드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물론 레코딩 중의 몇몇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휩쓸기도 하였다.

표지사진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선보인
베토벤의 세계 CD

〈아울로스뉴스〉 2016년 1월호
통권 제 64호 발행 2016년 1월 2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는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며,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지를 받고 싶으신 분은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또는 기타 안내 가능합니다.